

# KINU Insight

2021  
No.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민  
강채연  
박소혜  
권주현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강채연 성균관대 글로벌미래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권주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 참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 례

요약 .....	1
I. 서론   홍민 .....	6
1. 연구목적 .....	6
2. 연구내용 .....	7
3. 연구범위 및 방법 .....	8
II.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	11
1. 사설   박소혜 .....	11
2.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권주현 .....	57
3. 소결   홍민 .....	84
III. 『우리민족끼리』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강채연 .....	86
1. 개관 및 분석방법 .....	86
2. 주요 전략·정책용어 .....	88
3. 소결 .....	99
IV. 결론   홍민 .....	101
부록 .....	108
참고문헌 .....	109

# 차례

## 표 차례

〈표 I-1〉 주요 전략·정책용어 목록 .....	10
〈표 II-1〉 연도별 『노동신문』 사설 게재 수 .....	12
〈표 II-2〉 전략·정책용어 목록 .....	13
〈표 II-3〉 ‘김일성 조선’ 언급 횟수 .....	21
〈표 II-4〉 ‘김정은 시대’ 언급 횟수 .....	22
〈표 II-5〉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언급 횟수 .....	23
〈표 II-6〉 ‘천하제일강국’ 언급 횟수 .....	31
〈표 II-7〉 ‘강대국’ 언급 횟수 .....	33
〈표 II-8〉 ‘영웅조선’ 언급 횟수 .....	33
〈표 II-9〉 ‘속도’ 언급 횟수 .....	40
〈표 II-10〉 연도별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	45
〈표 II-11〉 ‘생눈길’ 언급 횟수 .....	45
〈표 II-12〉 ‘일당백’ 언급 횟수 .....	46
〈표 II-13〉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언급 횟수 .....	47
〈표 II-14〉 ‘황금해’ 언급 횟수 .....	48
〈표 II-15〉 ‘단숨에’ 언급 횟수 .....	49
〈표 II-16〉 ‘곧바로’ 언급 횟수 .....	50
〈표 II-17〉 ‘강원도정신’ 언급 횟수 .....	51
〈표 II-18〉 연도별 『노동신문』 공개활동 관련 기사 게재 수 .....	57
〈표 II-19〉 공개활동 보도에서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목록 .....	59
〈표 II-20〉 ‘백두’ 언급 횟수 .....	63
〈표 II-21〉 ‘과학기술’ 언급 횟수 .....	74
〈표 III-1〉 2019~2020년 『우리민족끼리』 기사유형 .....	87
〈표 IV-1〉 전략·정책용어로 본 김정은 시대의 변천 .....	102

## 그래프 차례

〈그래프 II-1〉 ‘인민대중제일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14
〈그래프 II-2〉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시기별 빈도와 추이 .....	16
〈그래프 II-3〉 ‘김일성-김정일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17
〈그래프 II-4〉 ‘김정일애국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19
〈그래프 II-5〉 ‘김일성, 김정일조선’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21
〈그래프 II-6〉 ‘백두’ 연관어 시기별 빈도와 추이 .....	24
〈그래프 II-7〉 ‘강성국가’와 ‘선군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28
〈그래프 II-8〉 ‘사회주의문명국’ 시기별 빈도와 추이 .....	29
〈그래프 II-9〉 ‘강국’과 ‘주체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31
〈그래프 II-10〉 ‘자력갱생’과 ‘자력갱생대진군’ 시기별 빈도와 추이 .....	34
〈그래프 II-11〉 ‘자강력’과 ‘자력자강’ 시기별 빈도와 추이 .....	36
〈그래프 II-12〉 ‘마식령속도’와 ‘만리만속도’ 시기별 빈도와 추이 .....	37
〈그래프 II-13〉 ‘조선속도’와 ‘평양속도’ 시기별 빈도와 추이 .....	39
〈그래프 II-14〉 ‘제일주의’ 관련 용어들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41
〈그래프 II-15〉 ‘청년중시’,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시기별 빈도와 추이 .....	42
〈그래프 II-16〉 ‘강성국가’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0
〈그래프 II-17〉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2
〈그래프 II-18〉 ‘백두(산)’을 활용한 주요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4
〈그래프 II-19〉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5
〈그래프 II-20〉 ‘병진노선’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7
〈그래프 II-21〉 ‘핵’과 ‘평화’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68
〈그래프 II-22〉 ‘정면돌파전’ 빈도와 추이 .....	69
〈그래프 II-23〉 ‘자력갱생’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71
〈그래프 II-24〉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72
〈그래프 II-25〉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74
〈그래프 II-26〉 ‘돌격전’ 관련 용어 빈도와 추이 .....	75
〈그래프 II-27〉 ‘청년강국’과 ‘청년돌격대’ 빈도와 추이 .....	76
〈그래프 II-28〉 김정은시대 속도를 나타내는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77
〈그래프 II-29〉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의 빈도와 추이 .....	79
〈그래프 II-30〉 ‘지방’ 빈도와 추이 .....	80
〈그래프 II-31〉 ‘방역’ 빈도와 추이 .....	81
〈그래프 II-32〉 ‘피해복구’ 빈도와 추이 .....	82

〈그래프 Ⅲ-1〉 2010~2018년 『우리민족끼리』 기사유형 .....	86
〈그래프 Ⅲ-2〉 국가·사상을 대표하는 전략·정책용어와 빈도수 .....	89
〈그래프 Ⅲ-3〉 정신·시대를 대표하는 전략·정책용어와 빈도수 .....	90
〈그래프 Ⅲ-4〉 ‘자력’부분 핵심용어와 빈도수 .....	92
〈그래프 Ⅲ-5〉 ‘자립’부분 핵심용어와 빈도수 .....	92
〈그래프 Ⅲ-6〉 ‘속도’, ‘과학’ 부문 핵심용어와 빈도수 .....	93
〈그래프 Ⅲ-7〉 ‘인민’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	94
〈그래프 Ⅲ-8〉 ‘문명’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	94
〈그래프 Ⅲ-9〉 ‘자존’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	96
〈그래프 Ⅲ-10〉 ‘군사’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	97
〈그래프 Ⅲ-11〉 ‘민족·적대’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	98
〈그래프 Ⅲ-12〉 ‘평화·화해’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	98



## 요약

- 김정은 시대 전략·정책용어로 본 통치코드 변화 분석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외 통치 차원에서 등장한 주요 용어를 식별하고 전략적·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대내통치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기초,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담론과 그것을 함축하는 용어를 ‘전략·정책용어’로 개념화하였음.
  - 김정은 집권 9년(2012~2020)을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주요 ‘전략·정책용어’를 식별하여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통치코드 변화를 파악함.
  - 대내통치 측면에서 강조하는 용어와 대외 정세에 대응한 용어를 식별하기 위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텍스트를 분석함.
- 김정은 시대 전략·정책용어에 나타난 주요 특징
  - 전략·정책용어 사용의 전체적인 변곡점은 제7차 당대회와 2018년 정세전환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2012~2015) 다양한 전략적·정책적 강조 용어들이 등장했으나,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용어들이 정리, 새로운 용어 등장, 대체로 간소화되는 추이
    - ‘김일성-김정일주의’, ‘백두’ 등과 같이 집권 초기 선대와의 계승성, 정통성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용어들의 사용이 많았으나,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만의 통치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전략·정책용어화 되는 경향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8년 정세전환을 통해 핵무력 과시 단어들이 경제발전이나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용어들로 변화

-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전략·정책용어화
  - 2017년까지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속도와 위력,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법에 주력했다면, 2018년부터는 국제관계에서 국가 ‘지위’, ‘국력’ 변화 쪽으로 포괄적 의미로 전략·정책용어가 변용
  - 2017년까지 핵능력 과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태도에서 이후 핵무기를 통해 높아진 국가 위상을 드러내는 쪽으로 용법이 뚜렷하게 변화함.
  
- 독자적 이념의 철학적 체계화보다는 실용주의적 통치용어 사용 및 대중화에 초점
  - 주체사상, 선군사상, 총대철학 등 심오한 통치철학의 체계화에 주력한 김정일 시대와 달리 인민, 국가, 과학, 청년, 강국, 백두산, 자력갱생, 정면돌파 등과 같은 조성된 정세에 즉답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통치용어를 선호
  - 다양한 용어들의 명멸 속에서도 초기부터 강조한 ‘인민’ 관련 용어를 2016년 이후부터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수렴하면서 체계화
  -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내부적 내핍 극복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력갱생’을 전략적 지침으로 삼는 등 실용적 용어 사용
  
- 인격적 국가 호명에서 국가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 용어 강조 추세
  - 김일성·김정일조선,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등과 같이 선대 지도자의 인격성에 의존하는 국가 호명에서 점차 ‘국가제일주의’, ‘지식경제강국’, ‘강국’ 등 국가성 자체를 강조하는 용어 선호
  - 초기 강조했던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 ‘전략국가’ 등은 조성된 정세에 조용하여 점차 빈도수를 줄였지만, ‘국가’ 자체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
  - 2016년 당대회 이후 국가의 강대성을 표현하는 용어와 서사구조의 강화,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강국’ 담론 증가

- ‘핵’과 관련된 용어의 용법과 파생어 확대의 추이에서 현격한 변화 발견
  - 2016~2018년 핵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핵’ 관련 용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비핵화 담론으로 축소, 2020년 이후 다시 핵무력 고도화 담론이 재활성화되는 추세
  - ‘핵’ 관련 용어는 전체 전략·정책용어 중 사용 빈도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 용어로, 이 용어가 대외적으로 갖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파생어 확대 다변화에서도 ‘핵’ 관련 용어가 가장 활발했는데, ‘핵강국’, ‘군사대국’, ‘핵대국’, ‘핵무력 고도화’, ‘핵공격무력’, ‘핵억제력’, ‘자위적 국방력’, ‘핵운반수단’, ‘초강력열핵무기’, ‘핵타격사정권’, ‘전략무기’, ‘전략군’, ‘국가핵무력’, ‘전쟁억제력’ 등이 있음.
  - 2019년 이후 ‘핵’ 관련 용법은 ‘평화’ 관련 용어와 수사적 관계를 맺으며 의미화, 핵무기 고도화가 평화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담론 강화
  - 핵무기 지속 개발과 장기적 보유 의사를 ‘평화’ 담론과 결부하여 정당화하는 기조가 2020년 이후 강화되는 추세
  - 관련하여 ‘민족’, ‘평화’, ‘화해’, ‘통일’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은 2019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서 크게 자제하는 경향
  
- 적극적인 외향적 정책 비전에서 내부 결속 중심의 전략·정책용어로의 변화
  - 초기 특정 정책 비전을 담은 ‘강국’ 표현이 두드러졌으나 2019년 이후 내핍 극복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력’ 구호와 담론으로 변화
  - 집권 초기 강조했던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 백두산대국 등 국가운영의 포부가 담긴 정책 비전 용어가 급격히 줄고 2019년 이후 ‘자력’ 관련 용어들이 강조되는 추세
  - 2017년 전까지는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대외적 압박을 내부적으로 견뎌내는 차원에서 ‘자력’ 관련 용어가 강조되다, 2019년 북미협상 교착 이후 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내부결속과 내부 자원 동원 등을 강조하는 의미로 변화
  - 2020년에는 ‘정면돌파전’, 2021년에는 ‘자력갱생전략’ 등 전략적 기조 차원에서 ‘자력’ 담론을 강조

- 김정은 시대의 실용적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하며 사상적 지위로 격상시켜 체계화
  - 2015년 당 창건 70주년,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거치며 김정은 시대의 사상으로 체계화, '정치이념'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사업 및 국가사업 전반의 통치 구호로 전면화
  - 202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거쳐 '이념, 원칙, 방법'으로 체계화 시도
  - 2020년 사용 빈도를 늘리기 시작 2021년 제8차 당대회 등을 거치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과 정치'로 전면화
  - 전통적인 '수령-인민' 사이의 수혜적 관계를 김정은 시대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재생산하는 의미
  
- 당 중심 통치체제의 정비와 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전략·정책용어 증가 현상
  -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당대회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다양하게 파생어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임.
  - 집권 초기에는 선대 지도자들과의 계승성에 비중을 두었다면,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본격 제시, 제8차 당대회는 조성된 대내외 정세의 어려움에 응전하는 전략·정책용어 생성에 주력
  -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했던 전략·정책용어의 대부분은 2017~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회 기점으로 쏟아낸 용어들의 현실적 파급효과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정리 및 간소화
  - 전략·정책용어들은 당대회를 기점으로 일군의 전략·정책용어군을 형성하다가 특정 몇 개의 용어로 정리·수렴되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 전후 다시 전략·정책용어군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런 경향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비전들을 조성된 정세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서 통치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김정은 공개활동 증감폭에 따른 전략·정책용어의 수적 감소 현상
  - 김정은의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지도자의 지적사항, 과업 제시 등이 이후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전략·정책용어화되는 경향이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2~2015년 사이 매년 150~240여 회 수준의 공개활동을 하다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 2~3년 사이 70~90여 회 수준으로 급감
  - 공개활동 감소에 따라 현지도도를 통해 나오는 문제 지적이나 과업 제시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 전략·정책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 발화 기회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전체적으로 공개활동의 횟수와 현장 방문 횟수가 줄고 당 회의를 통한 지적, 결정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데, 당 회의가 적지만 전략·정책 용어의 생성 지점으로 부각
  
- 전체적으로 집권 초기 권력을 장악하고 정통성을 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정책용어를 등장시켰다면, 2018년 이후 대외적으로 조성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실용적으로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는 현상유지적 전략·정책용어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I 서론

홍민

### 1. 연구목적

- 김정은 시대 전략·정책용어로 본 통치코드 변화 분석
-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내외 통치 차원에서 등장한 주요 용어를 식별하고 전략적·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대내통치와 대외정책의 전략적 방향과 기초, 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담론과 그것을 함축하는 용어를 '전략·정책용어'로 개념화하였음.
- 김정은 집권 9년(2012~2020)을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주요 '전략·정책용어'를 식별하여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통치코드 변화를 파악
  - 주요 '전략·정책용어'의 등장 시기, 사용 빈도 및 용법의 변화, 소멸 및 확장(연관어 확장) 등을 파악하여 전략적·정책적 관심 사안을 분석
- 대내통치 측면에서 강조하는 용어와 대외 정세에 대응한 용어를 식별하기 위해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텍스트를 분석
  - 『노동신문』은 대내외 모두에 공개되는 텍스트로 당의 공식 입장과 정제된 대외 보도 태도 견지
  - 『우리민족끼리』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인터넷 매체로 대외 정세 관련 기사는 대체로 현안 중심적이고,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
- 김정은 정권의 '전략·정책용어' 변화 분석을 통해 지도부의 대내외 정세 인식과 전략적 대응 방식을 파악할 수 있음.

- 권력의 변동과 운용방식의 변화, 외부 정세에 대한 인식 변화, 대내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 단기 및 중장기적인 과제와 정책 지향점, 발전전략 등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지표

□ 전략적·정책적 중요도에 따른 해석적 가중치를 둔 용어 분석

- 기존 텍스트 분석은 전략적·정책적 중요 용어에 대한 식별 없이 일반 용어를 포함한 모든 단어를 대량 집계하는 방식을 취해 유의미한 통치코드 분석에 한계를 가짐.

- 가령 ‘인민’, ‘경제’, ‘당’과 같이 사용 빈도수는 많으나 사실상 전략적·정책적 강조의 의미를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없는 일반 용어를 대량 집계
- 본 연구는 모든 단어에 대한 사용 빈도의 양적 과소에 치우친 분석을 지양하고, 특정 전략 기조를 함축하는 용어를 식별하여, 이들 용어들의 확장 또는 감소·소멸의 추이를 분석하는 해석적인 양적 분석을 시도

- ‘전략·정책용어’의 식별 및 분석을 매년 연차별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향후 정책평가 및 정세 전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연말에 해당 연도에 전략적·정책적으로 중요도가 높았던 용어를 식별, 신규 등장 용어, 사용 빈도, 용법, 맥락, 파생어 및 확장어 등을 분석

## 2. 연구내용

□ 『노동신문』 기사 및 보도형식에 따른 분석 텍스트 구분

- 『노동신문』 지면 배치 및 보도 형식에 따른 ‘전략·정책용어’ 사용 맥락 분석

- 『노동신문』의 1~2면은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사설·정론, 정치·사상 관련 보도, 3~5면은 경제·사회 관련 보도, 6면은 통상 대남·대외 관련 기사 배치
-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는 현지지도, 군부대 시찰, 군사훈련 및 무기 실험 참관, 각종 회의 주재 및 주요 연설, 대회 참석 및 기념촬영, 연회, 참배 및 기념사 등 최고지도자의 활동을

담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적·비판, 정책결정, 신조어의 등장 등 ‘전략·정책용어’ 등장의 시발점 역할

- 사설은 지도부의 의중과 당의 정책 방향을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표현한 텍스트로 대내 통치와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용어를 선별 사용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식별

- 본 연구는 『노동신문』의 ① 사설, ② 김정은 공개활동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한 ‘전략·정책용어’를 식별하고 그 사용 빈도와 내용 변화를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함.

□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텍스트 분석체계

- 『노동신문』의 ① 사설, ② 김정은 공개활동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한 ‘전략·정책용어’를 아래와 같은 체계를 통해 내용분석
  - ① 해당 텍스트가 전략적·정책적으로 갖는 특성을 개괄적으로 소개
  - ② 해당 텍스트에서 식별한 ‘전략·정책용어’ 목록과 선정 이유 설명
  - ③ 선정된 ‘전략·정책용어’의 양적 사용 빈도와 추이 분석
  - ④ 해당 ‘전략·정책용어’의 의미와 사용맥락 분석
  - ⑤ 해당 텍스트에서 ‘전략·정책용어’ 사용의 서사구조 파악
  - ⑥ 총평: 정책적 함의

### 3.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시기가 분석대상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본격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9년 기간,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를 분석대상으로 함.

- 『노동신문』 보도내용 및 기사 성격별 텍스트 특성을 고려한 양적·질적 분석
-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식별 및 양적·질적 분석
  -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에 인터넷 매체로 개설되었으나 2018년까지 약 8년간 일반적인 상식과 대내 소식을 일부 전하는 기능으로 제한
  - 2019년부터 기사 유형을 대폭 확대하여 국내외 정책 현안을 포괄하는 선전매체로서 위상을 갖춰감.
  - 2010~2020년 전체 기사건수 7,248건 중, 6,582건(90.8%)이 2019~2020년에 실린 기사
  - 기사유형도 보도, 논평, 투고, 인입기사, 단평, 수필, 문답, 반향, 사설, 논설, 기고 등을 포함하여 28개의 유형으로 확대
  - 대외선전매체의 특성에 맞춰 북한이 구사한 전략·정책용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

## □ 연구방법

- 연구 텍스트 분석 방법
  - 『노동신문』 2012~2020년 원문 텍스트 월별 통합파일 확보
  - 텍스트 읽기 및 전략·정책용어 후보 목록작성(파생어, 확장어 포함)
  - 공동연구자 회의 통해 각 섹션별 ‘전략·정책용어’ 선정 및 통합 분류군 설정
  - <표 I-1>과 같이 주요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핵심어근을 통해 파생·확장돼 일군의 ‘전략·정책용어군’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핵심어근’은 다양한 전략·정책용어들을 식별하여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들 용어들을 응집시키는 ‘어근’ 역할을 하는 것을 선별한 결과임.

〈표 I-1〉 주요 전략·정책용어 목록

핵심어근	전략·정책용어(파생·확장어)
인민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중시/존중/사랑
백두	백두산대국 백두산-칼바람/혁명강군/총대정신 백두의-혁명정신/훈련열풍
속도	조선/평양-속도 마식령/천리마/만리마-속도
김일성-김정일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조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청년	청년강국 청년중시
자력	자력갱생/자력부강/자력번영/자력자강 자립적민족경제 사회주의자립경제
과학	과학기술-강국/중시정책 인재강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핵	최첨단돌파전 자강력/자강력제일주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자위적 국방력/핵무력/전쟁억제력
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우리국가/우리민족-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국가	강성국가 주체조선 천하제일강국 전략국가 사회주의문명국
경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증산-투쟁/돌격/절약 황금-산/벌/해
전략	전략자산/자원 전민총돌격전
기타	정면돌파전 강원도정신

- 각 섹션별 공통 및 개별 ‘전략·정책용어’ 빈도 조사, 양적 통계
- 각 섹션별 파생어 및 확장어 체계 정리 및 분석

## II 『노동신문』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홍민·박소혜·권주현

### 1. 사설

#### 가. 김정은 시대 『노동신문』 사설의 특징

##### □ 개괄

-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당·정·군 행사, 특정 이슈에 대한 해설과 당적 입장 표명
  - 김정은 신년사, 각종 연설, 현지지도 발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구호 제시
  - 당대회, 당중앙위 전원회의,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결정에 대한 의미 설명
  - 각종 대회, 특정 이슈와 정세 및 현상에 대한 의미와 방향 제시
- 연례적인 각종 기념일에 대한 의미 부여
  - 특정 기념일마다 매해 사설을 통해 정세와 연관하여 의미 부여
    - 공화국 창건일, 당 창건일, 태양절, 광명성절, 김일성·김정일 사망일, 삼일절, 식수절, 부녀절, 노동절, 전승절, 광복, 건군절, 선군절, 소년절, 청년절, 사회주의헌법절, 최고지도자 직위 관련 기념일 등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설 중에서도 맥락적 의미의 변화가 관찰됨.
- 사설 제목과 내용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는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이거나 전략·정책용어로 내세우고 있는 용어로 볼 수 있음.

##### □ 분석 개요

##### ○ 분석 범위

- 2012~2020년 『노동신문』 총 843개 사설
- 연도별로 게재된 사설의 수는 <표 II-1>과 같음.

〈표 II-1〉 연도별 『노동신문』 사설 게재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게재 수	81	94	127	93	103	74	84	93	94	843

○ 전략·정책용어 선정 기준

- 사설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 사설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 사설에서 ‘구호, 사상, 정신’ 등으로 강조한 용어
- 다양한 파생어, 연관어를 만든 용어
- 자주 등장하면서 용법에서 변화가 나타난 용어
- 대내외 정세와 관련 맥락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용어 등

○ 분석방법

- 사설 속 전략·정책용어 빈도 조사
- 용어별 연관어, 파생어 등 특징 파악
- 사설 속 서사구조와 맥락 분석
- 정책적 함의 제시

○ 분석의 한계

- 다양한 자료원을 토대로 데이터를 취합하는 등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표기 오류 등의 이유로 용어별 빈도에 일정한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전략·정책용어 선정에 있어 맥락적 의미 등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한 정성·정량적 선별로 인해 양적 분석만으로 대량집계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김정은 시대 『노동신문』 사설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목록

〈표 II-2〉 전략·정책용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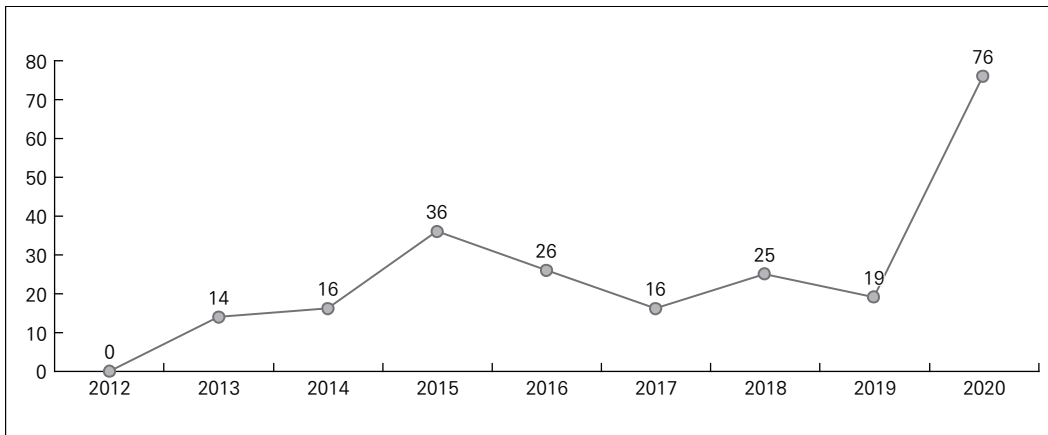
핵심어근	전략·정책용어
인민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
김일성-김정일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 김정일조선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백두	백두산대국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혁명강군 백두산정신
국가	강성국가, 선군조선 사회주의문명국 강국, 주체조선
자력	자력갱생, 자력갱생대진군 자강력, 자력자강 자력부강, 자력번영
속도	마식령속도, 만리마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
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청년	청년중시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생눈길, 일당백 강원도정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황금해, 곧바로 전민총돌격전 정면돌파전

나. 『노동신문』 사설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전략·정책용어

(1) ‘인민’ 연관어

□ 인민대중제일주의

〈그래프 II-1〉 ‘인민대중제일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2012년 ‘인민대중’, ‘인민대중중심’, ‘근로인민대중’ 등으로 주로 사용되다가 2013년 등장
  - 2013년 1월 29일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김정은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sup>1)</sup>라는 발언에서 첫 등장
  - 2013년 신년사의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와 연결해 설명
  -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 ‘인민대중제일주의기치’ 등으로 파생어 확장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이자 ‘사회주의헌법’에서 구현되었다고 설명<sup>2)</sup>
- 선대 지도자들의 사상과 김정은의 사상 결합
  - 2014년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등장<sup>3)</sup>

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노동신문』, 2013.1.30.

2)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노동신문』, 2013.12.27.

-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치’를 펼치고 있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었다고 설명
  
- 2016년 제7차 당대회 계기로 김정은 사상으로 자리매김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김정은의 사상으로 규정하기 전 단계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김정일의 구호에서 김정은의 기초로 전환해 설명
  - “당 제7차대회는 …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의 위대성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 정신의 절대불변성을 다시금 만방에 과시한 중대한 계기”<sup>4)</sup>
  - 2017년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정치이념이라고 설명
  - 2018년부터는 ‘국가활동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적용
  
- 2020년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용 빈도 폭증하며 의미 확대
  - 당의 정치이념, 존재방식, 활동원칙으로 설명
  -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 정치방식’으로 내세움.<sup>5)</sup>
  
- 두 차례의 당대회를 통해 사상적 지위로 체계화
  - 2015년 당 창건 70주년,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거치며 김정은의 사상으로 자리 잡음.
  - 202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거쳐 ‘이념, 원칙, 방법’으로 체계화 시도
  - 2021년 제8차 당대회 등을 거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정치’로 다시 한 번 전면 부각되기까지 사용 빈도가 증가
  - 두 번의 당대회를 기점으로 ‘정치’ 방법에서 멈추지 않고 ‘사상’과 ‘이념’ 위상으로 전개되며 김정은 시대 대표적인 전략용어로 확립

3)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자,” 『노동신문』, 2014.3.26.

4) “조선로동당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노동신문』, 2016.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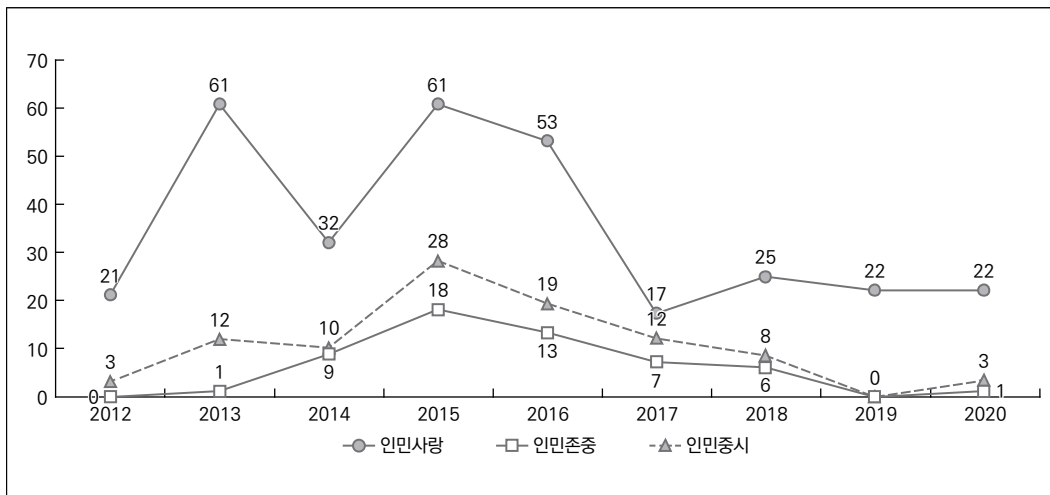
5)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노동신문』, 2020.7.5.

□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 빈도와 추이

- 김정일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를 기초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했다고 설명
- 2013년 ‘인민대중제일주의’ 제시와 함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용어도 함께 활용됨.
-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전면화되는 2015년과 2016년에 다빈도로 활용

〈그래프 II-2〉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시기별 빈도와 추이



○ 의미 맥락

- ‘인민대중제일주의’와 함께 활용되었으나 2020년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처럼 급증하지 않은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사상이자 이념으로 다양한 의미를 담게 되면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다만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등 3개 단어가 함께 활용되는 것 외에 ‘인민사랑’이라는 용어를 정책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애민’을 강조).



□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 201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에서 등장
  -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구호를 이어받은 것으로 김일성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라!’ 구호를 제시한 바 있으며, 김정일은 인민군대의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을 일군들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로 제시한 바 있으며, 김정은은 여기에 ‘멸사’를 추가
- 북한 문헌은 ‘멸사복무정신’을 김정은시대의 시대어로 규정하고 있으며,<sup>6)</sup>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의미상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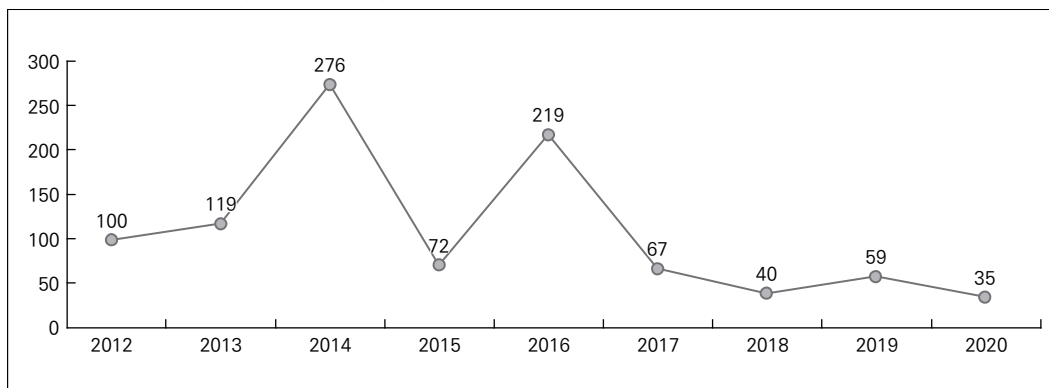
(2) ‘김일성-김정일’ 연관어

□ 김일성-김정일주의

○ 빈도와 추이

- 2012년 등장해 2016년까지 다빈도로 활용되다가 2017년부터 급감하며 점차 감소 추세

〈그래프 II-3〉 ‘김일성-김정일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6) 채희원·원충국, 『김정은장군과 시대어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7), pp. 83~84.

○ 의미 맥락

- 2012년 4월 6일 김정은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제시
-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당 규약을 개정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 계승 의미 부여
-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 규정

○ 파생어 확장

- 2013년 1월 28~29일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김정은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자’ 등장
- 2014년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2/12),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3/8) 등장
- 2016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
- 사설에 등장한 ‘김일성-김정일주의’ 파생어
  - 김일성-김정일주의자,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보물고,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김일성-김정일주의학습·열풍,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김일성-김정일주의자,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 전당김일성-김정일주의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 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

○ 김정일의 ‘김일성주의’를 김정은 시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확장 개명

- 김정일 유헌통치 시기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김일성과 함께 김정일을 각인시키는 대표적인 전략용어로 각 분야에서 다양한 파생어를 낳으며 연관어로 활용됨.
-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의 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본질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설명하면서 언급이 급증했지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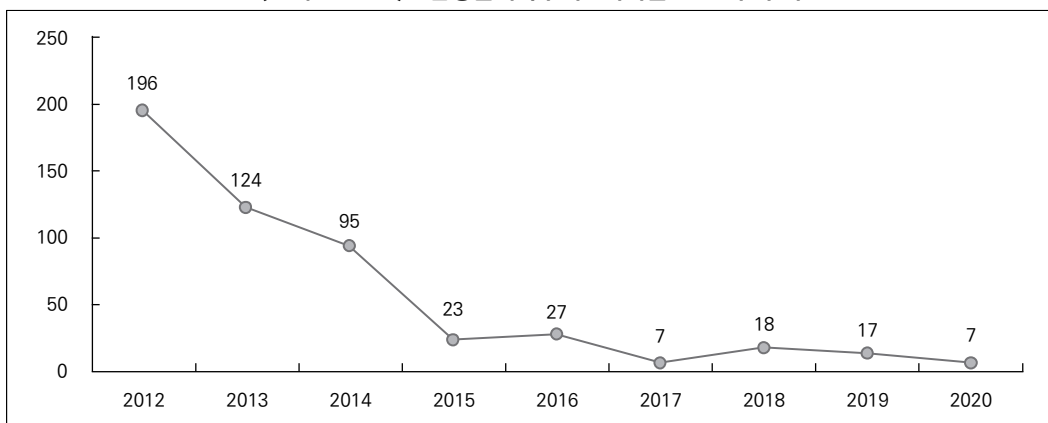
- 정권 초기부터 제7차 당대회까지를 이끈 전략용어지만 김정은 시대의 사상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규정된 이상 다시 ‘김일성-김정일주의’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김정일애국주의

○ 빈도와 추이

- 2012년 등장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점차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 빈도 급감
- 2012년 3월 2일 식수절 현지도에서 첫 사용, 2012년 7월 26일 김정은 담화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등장
- 2012년 5월 12일 사설에 첫 등장한 뒤 사설 제목에 4차례 사용(5/21, 7/12, 8/9, 9/4)
- 2015~2016년부터 사용 빈도 감소하며 2017년부터는 ‘5대교양’으로도 더는 언급하지 않음.

〈그래프 II-4〉 ‘김정일애국주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용어의 전개

- 2012년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한 사업’<sup>7)</sup>으로 설명, 김정은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sup>8)</sup>, ‘김정일애국주의자’는 ‘전략적과업’이자 ‘인간육성사업’으로 설명<sup>9)</sup>

7)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 『노동신문』, 2012.5.21.

8)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 『노동신문』, 2012.8.9.

- 2013년 ‘1970년대 화선식’ 사업과 연결
- 2014년 사상혁명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제시<sup>10)</sup>, 김정은의 “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 발언 이후 4대 교양의 하나가 됨.<sup>11)</sup>
- 김정은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sup>12)</sup> 발언 이후 ‘나침판, 귀감’으로 설명
- 2015년 신년사에서 ‘5대교양’으로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2014년 11월 3~4일 개최된 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언급한 것임.
- 2016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로 설명, 5대교양은 사회주의강국건설 목표의 실천활동으로 표현<sup>13)</sup>

○ 의미 맥락

- 2012년 김정일 유훈통치 대표용어로 등장해 인민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김정일애국주의정신·기치·열풍, 김정일애국주의자 등으로 활용
- ‘강성국가건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경제강국건설’, ‘부강조국건설’ 등 국가건설 목표의 ‘실천활동’으로 구현할 것을 제시, ‘애국’을 추상적 이념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이행하도록 독려
- 집권 이후 김정은만의 정책적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점차 ‘김정일’이 들어간 용어의 수를 줄이고 김정은 자신만의 이념적 색채를 강조하여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 유훈통치의 대표적 정책용어였다고 할 수 있음.

9) “모두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노동신문』, 2012.9.4.

10) “사회주의농촌테제는 우리 당의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노동신문』, 2014.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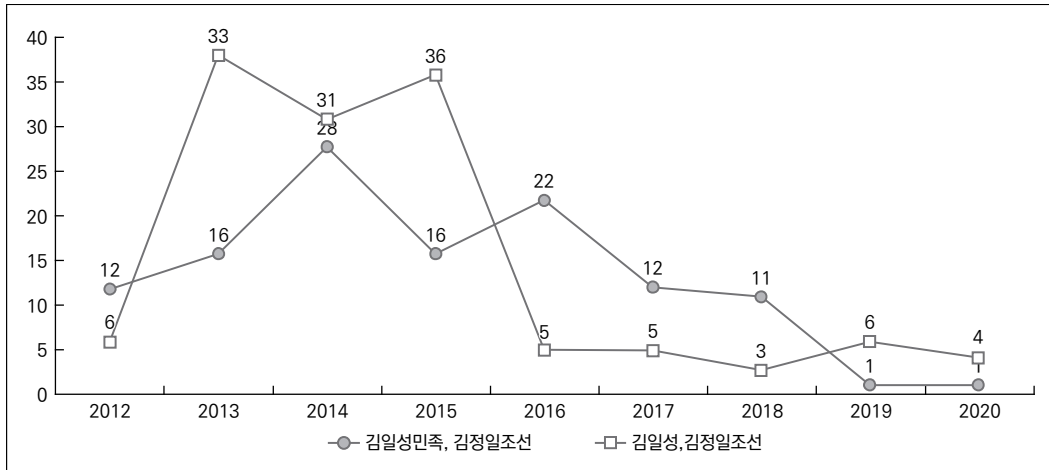
11) “은 사회에 사회주의도덕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노동신문』, 2014.8.20.

12)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나아가자,” 『노동신문』, 2012.5.1.

13)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노동신문』, 2016.8.2.

□ 김일성, 김정일조선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그래프 II-5〉 ‘김일성, 김정일조선’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김일성, 김정일조선

-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직후 사설에서 등장<sup>14)</sup>
- 2013~2015년 3년간 다빈도 사용, 2016년 이후 급감
- 2016년 제7차 당대회로 김정은 시대의 색채가 강해지면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 급감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나라’라는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김정일 유훈통치가 끝나고 ‘김정은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참고로, ‘김일성조선’은 9년 기간 중 2012년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사용 빈도 급감

〈표 II-3〉 ‘김일성 조선’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34	6	1	2	1	1	1	0	0

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노동신문』, 2012.4.13.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 2012~2016년 꾸준히 사용되다가 점차 감소, 2019년 이후 사라짐.
  - ‘김일성민족’은 1994년 김일성 사후 등장한 뒤 지속 사용되어 온 단어
  -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자 ‘김일성민족’ 100년이 되는 해로, 2013년부터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라는 문구가 언급됨에 따라 ‘김일성민족’은 ‘지난 100년’을 설명하는 서사에 있음을 주목
  
- ‘민족’과 ‘조선’의 의미 맥락
  - 2017년 11월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장 이후 ‘국가’ 용어를 전면화하면서, ‘민족’을 줄이고 ‘국가’ 사용을 늘림, 2017년 이후 2018년 ‘김일성민족’의 빈도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완충기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임.
  - 2019년부터 ‘김일성민족’ 용어의 소멸은 ‘국가제일주의’로 대체되었음을 의미
  
- ‘김정은’을 포함한 ‘조선’과 ‘시대’의 의미 맥락
  - 나라를 이르는 표현으로 ‘김정은’이 포함된 ‘김정은강성조선’이 있으나 두드러진 사용 빈도를 보이지는 않음.
  - 대신 ‘김정은시대’는 2013년 사설(1/15)부터 등장하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김일성, 김정일조선’ 등과 함께 사용되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사용 빈도가 감소하였고 2020년에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과 관련이 있는지 등 앞으로 관찰이 필요함.

〈표 II-4〉 ‘김정은 시대’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12	38	33	24	7	2	8	0

□ 그 밖의 ‘김일성, 김정일~’ 활용 용어들

- 2012년 ‘김일성-김정일주의’ 언급 이후 ‘김일성, 김정일’ 파생어 급증
  - ‘김일성, 김정일전략전술·소년단·당·청년운동·헌법’ 등
-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 2012년 4월 6일 김정은 담화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함께 언급
-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
  - 2012년 8월 27일 청년절경축대회 축하문에 등장해 8월 29일 청년절 사설에서 언급
- 김일성, 김정일혁명학원
  - 2012년 10월 12일자로 김정은이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에 보낸 서한에서 언급
-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 2015년 7월 19일 김정은의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현지도에서 명명
  - 9년간 언급된 76회 중 6번 제외하고 모두 ‘영웅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음.
  - 로동계급 앞에 ‘영웅’과 ‘김일성, 김정일’을 붙여 시기별 정책목표를 추동하는 중요한 주체로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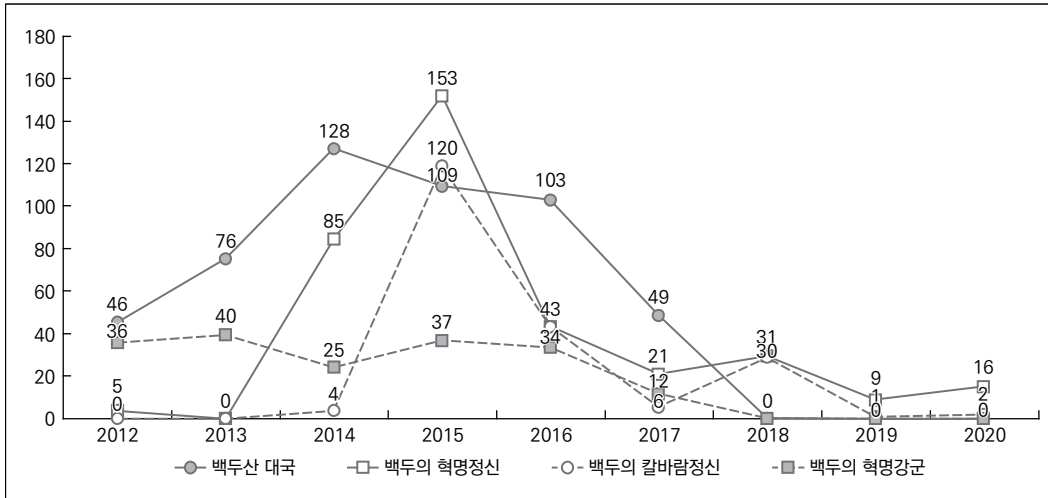
〈표 II-5〉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0	0	7	45	7	8	6	3

- ‘김일성, 김정일~’ 활용어의 의미 맥락
  - 2016년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활용을 제외하면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며, 제7차 당대회 이후 2017년부터는 의례적으로만 사용
  -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등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김일성, 김정일’ 파생어 사용은 감소하고 있음.

(3) '백두' 연관어

〈그래프 II-6〉 '백두' 연관어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백두'가 포함된 사설은 9년간 총 사설 843개 중 46개(5.45%)에 이룸.
- 대체로 2014~2016년 빈도 집중된 뒤 감소, 2018년 이후 언급 미미함.
- 2017년 이후 '백두' 연관어들의 빈도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백두' 연관어들이 새롭게 확장하기보다는 특정 '백두' 관련 용어로 집중하거나 의례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백두'는 혁명정신, 혁명전통 등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정일의 고향 등을 직접적으로 상징하며, 혁명의 성산으로 불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혁명, 수령, 인민군대 등을 수사적으로 표현할 때 활용됐음.

□ 백두산대국

○ 용어의 생성과 전개

- 2012년 '백두산대국'은 김일성, 김정일의 위업이 담긴 나라를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며 김정일을 '백두산대국의 태양'으로 설명



- 2013년 ‘백두산대국’의 새로운 변영기 개척을 독려하며 김정은이 ‘백두산대국’의 상징으로 등장<sup>15)</sup>, 우주강국, 핵실험 등과 연관, 존엄과 국력, 위력 등으로 설명
- 2014년 김정은은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자 미래<sup>16)</sup>
- 2015년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 “강성국가, 백두산대국”,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 등과 같이 목표하는 국가상을 표현하는 용어 및 의미로 활용하다 김정은을 ‘백두산대국의 태양’<sup>17)</sup>으로 설명
- 2016년 ‘백두산대국’은 영웅청년 신화를 쓴 김정은의 나라로 일심단결, 군민대단결 강조

○ 용어의 감소와 의미 맥락

- 2017년 빈도가 급감했으나 ‘백두산대국’은 강대성, 최강의 무기, 힘 등의 의미로 강조
- 2018년 이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대국’보다는 ‘강국’으로 칭하면서 이런 경향이 ‘백두산대국’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정권만의 색채를 강화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의 ‘백두산대국’과도 차별화된 김정은만의 국가 호칭 필요성 증대

□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 빈도와 추이

- ‘백두의 혁명정신’은 이전부터 사용한 용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2014~2016년 많이 활용
- ‘백두의 칼바람’은 2014년 8월 15일 등장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2014년 10월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 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라는 문구로 함께 활용
- 이어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2015년 최다빈도를 보임.

15)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에 공헌한 영웅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노동신문』, 2013.2.21.

16)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노동신문』, 2014.7.8.

17)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청년강국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자,” 『노동신문』, 2015.8.28.

□ 백두산혁명강군

○ 빈도와 추이

- ‘백두산혁명강군’은 다른 ‘백두’ 연관어들과 달리 김정은 시대 초반인 2012년부터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점차 감소, 2018년 이후 언급이 사라짐.

○ 의미 맥락

- 인민군대에 대한 ‘백두’ 연관어들을 보면, ‘백두의 훈련열풍’의 경우 2012~2016년 조금씩 언급되었으나 2017년 이후 거의 언급되지 않음.
- ‘백두산총대’ 역시 2015~2016년 각각 11회, 15회 언급된 바 있으나 2018년 이후 소멸
- 즉, 인민군대와 관련된 ‘백두’ 연관어는 2016년까지 활용되었으나 2018년 이후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백두산정신

○ 빈도와 의미 맥락

- ‘백두’ 연관어들은 2014~2016년 집중적으로 사용되다 이후 대부분 소멸된 것과 달리 ‘백두산정신’은 2020년 1월 3일 사설에 첫 등장한 이후 2020년 ‘백두’ 연관어 중 최다인 47회 사용
- ‘백두산정신’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과 관련해 쓰였는데, ‘정면돌파전’, ‘자력갱생대진군’, ‘자력자강’, ‘자력부강’, ‘사회주의낙원의 미래’ 등을 의미
- 이는 ‘백두산답사’만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며 각 부문에서 ‘정면돌파전’을 벌여야 하는 원동력으로 강조함.

○ 2020년 다시 ‘백두’ 연관어의 사용이 늘었는데, ‘백두산정신’이라는 새로운 전략·정책용어의 등장 때문으로 판단됨.

- ‘백두산정신’은 그동안 ‘백두’ 관련 파생어들의 의미가 종합되어 수렴 정비된 것으로 보임.
-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결하게 줄인 단어이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

□ 그 밖의 ‘백두’ 활용 용어들

○ 《백두산대학》

- ‘백두’ 연관어 가운데 단발성으로 등장한 단어 중 하나로 2019년 12월 7일 사설에서 등장해 2020년 3회 언급
- ‘특별한 표현’을 나타내는 인용표(《》)를 단 것은 백두산을 ‘대학’에 비유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백두산대학》은 김정은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따라 ‘백두의 혁명전통’ 무장을 독려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답사를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일생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대학의 영원한 학생’에 비유

○ 《백두청춘대학》

- ‘특별한 표현’을 나타내는 인용표에 담긴 단어로 2015년 11월 10일 사설에서 단발성으로 사용
- 발전소 건설현장을 ‘대학’에 비유하였는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에서 모범을 보인 것은 이들이 “스스로 《백두청춘대학》이라는 과정안”을 만들어 최우등생이 되었기 때문이며, 결국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빗댄.<sup>18)</sup>

○ 백두산청년강국

- 2015년 ‘청년’ 강조하면서 2015년 10월 17일 사설부터 등장
- 2015년 3회, 2016년 21회, 2017년 5회 언급, 이후 소멸

○ 파생어 확장의 의미 맥락

-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와의 계승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 말 삼지연을 방문한 이후 매해 백두산을 방문 등정하고 삼지연시꾸미기에 집중하면서 관련 용어를 활용해 파생어들을 만들어냄.

18) “백두전구에서 타오른 영웅적위훈의 불길높이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어나가자.” 『노동신문』, 2015.11.10.

- ‘백두의 행군길’은 김일성의 행군길, 김정일의 행군길, 김정은의 행군길 등으로 의미가 확장
- ‘백두’ 연관은 2014~2016년 집중 사용됨. 2014년에는 ‘백두산대국’, 2015년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많이 사용되었고, 특히 ‘청년’과 관련해 ‘백두청춘’,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 등의 파생어를 만들어냈고 2016년에는 이를 확장해 ‘백두산청년강국’, ‘백두산영웅청년정신·신화’ 등을 만들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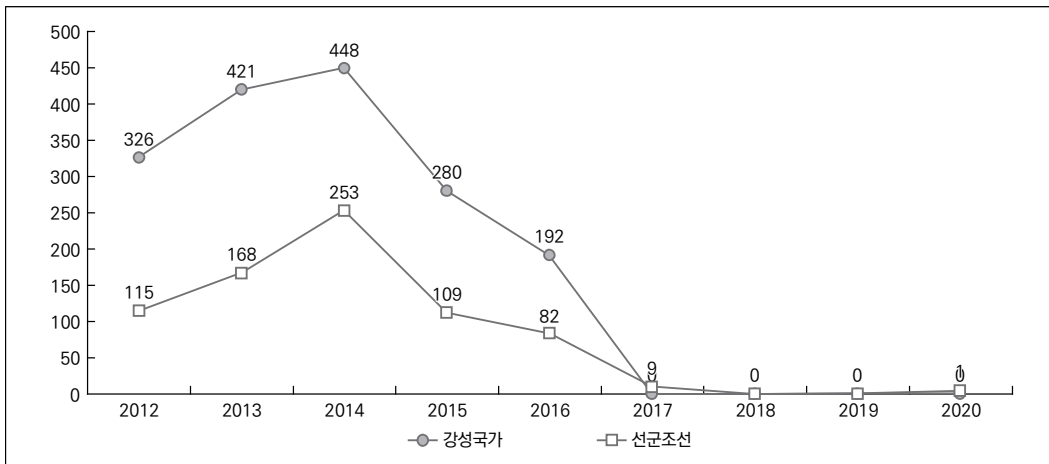
(4) 국가 관련 용어: 강성국가, 선군조선, 사회주의문명국, 강국, 주체조선

□ ‘강성국가’와 ‘선군조선’

○ 빈도와 추이

- ‘강성국가’는 2012~2016년 사용(사실 제목으로는 해당 시기 14번 등장)되었으나 2017년 급감해 2018년 이후 소멸
- ‘선군조선’은 2012~2016년 사용(사실 제목으로는 해당 시기 12번 등장)되고 2017년 급감 이후 소멸
- ‘강성국가’와 ‘선군조선’ 모두 2014년에 최다빈도를 나타낸 뒤 감소하였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국가 관련 용어에 해당

〈그래프 II-7〉 ‘강성국가’와 ‘선군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강성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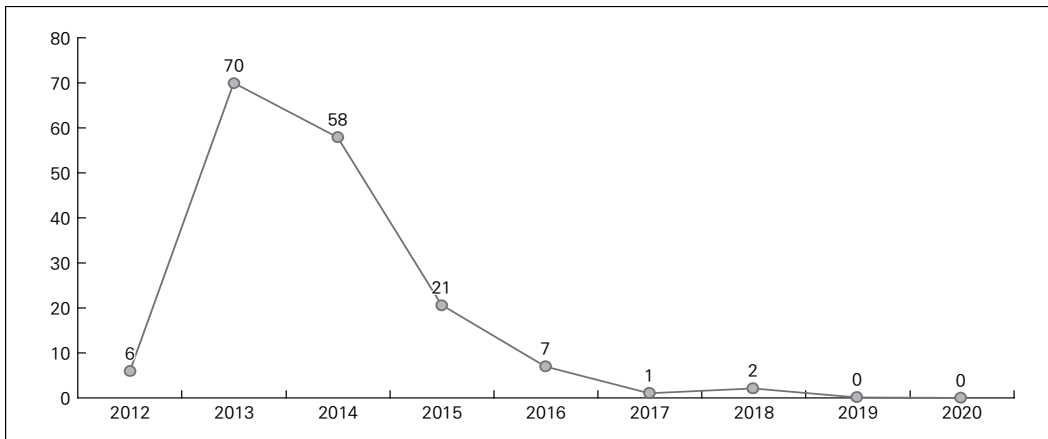
- 2012년 ‘강성국가’는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시작하지만, 2012년 4월 15일 김정은 연설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일심단결+불패의 군력+새 세기 산업혁명”으로 재정의됨.
- 2012년 김정은 4월 27일 담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에서 평양을 세계적 도시로 꾸릴 것을 요구함.
- 2013년 신년사에서 강성국가건설의 주요 과업으로 ‘경제강국건설’을 제시, 점차 ‘강성국가’에서 ‘강국’으로 용어 사용이 바뀜.

○ 선군조선

- 김정일의 ‘선군시대’를 의미하는 ‘국가’ 지칭어로서 김정일 유훈통치 기간 사용한 뒤 소멸됨.

□ 사회주의문명국

〈그래프 II-8〉 ‘사회주의문명국’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2013~2014년 집중 언급 뒤 의례적으로 사용되고 2017년부터 소멸 양상
- ‘사회주의문명국’은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전략용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지만, 『노동신문』 사설만으로 보았을 때 초기에 사용된 뒤 사실상 소멸

-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문명국론을 펼쳤으나,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뤄지며 현실적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의미 맥락

-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 등장해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과 같이 활용됨.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발표 이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쓰임.<sup>19)</sup>
- 2013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문명국’ 건설로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제시하며, ‘사회주의문명국’을 ‘사회주의강성국가’와 유사 의미체계로 사용, 생활·정신·체육의 문화 분야와 도시건설 등에서 ‘선진적 문명강국’을 세우는 것으로 개념화
- ‘사회주의문명국’이 ‘사회주의강성국가’와 유사 의미로 사용되면서 두 용어의 추이가 비슷해짐.
- 이후 사설에서 ‘수령들의 염원’이라고도 강조하며 ‘인민생활향상’으로 의미가 확장됨.
- 2014년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에는 ‘정신도덕적풍모’가 포함되며, ‘과학기술강국, 사회주의 문명국’으로도 활용됨.
- 2019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언급하며 ‘경제강국건설’의 한 방법으로 의미화, ‘방법적 차원’에서 ‘문명’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강국’과 ‘주체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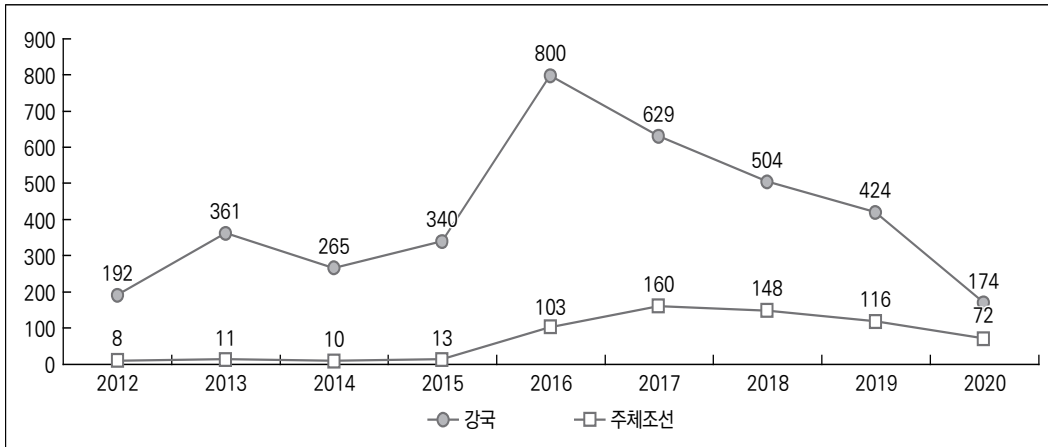
○ 빈도와 추이

- ‘강국’은 제7차 당대회가 열린 2016년 최다 사용 빈도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지만, 절대적 빈도가 높은 용어임.
- ‘주체조선’은 김정일 유훈통치 기간에 조금씩 사용되다가 역시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빈도가 증가해 꾸준히 사용됨.

19)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노동신문』, 2012.9.27.

- 제7차 당대회 이후 ‘강성국가’와 ‘선군조선’, 그리고 ‘사회주의문명국’을 대체하는 용어로 각각 ‘강국’과 ‘주체조선’이 부상했다고 볼 수 있음.

〈그래프 II-9〉 ‘강국’과 ‘주체조선’ 시기별 빈도와 추이



○ 강국

- 사설에서 활용 빈도도 높고 제목에서도 48차례 등장하였으며, 대부분 ‘사회주의강국’으로 활용되나, 이밖에도 다양하게 사용됨.
- 용례는 ‘천하제일강국’, ‘불패의 강국’, ‘부흥강국’, ‘지식경제강국’, ‘경제강국’, ‘최첨단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 ‘인재강국’, ‘교육강국’, ‘청년강국’, ‘체육 강국’, ‘정치사상강국’, ‘주체강국’, ‘주체의 핵강국’, ‘동방의 핵강국’, ‘통일강국’ 등
- ‘강성국가’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정도로 표현되지만 ‘강국’의 경우 다양한 수식어를 담아 각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짐.
- 이 가운데 ‘천하제일강국’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시점에서 가장 많이 언급

〈표 II-6〉 ‘천하제일강국’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2	27	33	28	58	28	21	20	7

○ 주체조선

-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와 같이 ‘주체년호’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지칭으로서 ‘지나간’ 주체 100년과 ‘새로운’ 주체 100년의 시작 등을 이룰 때 사용
- 따라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국가를 이룰 때도 ‘주체조선’이지만 2016년 이후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국가를 이룰 때 ‘주체조선’을 적극적으로 사용
- 2016~2020년 사설 제목에서 20회 언급한 것으로 보았을 때, ‘김정은시대’를 규정하는데 방점을 둔 용어로 보임.

○ 제7차 당대회 기점으로 국가 관련 용어의 변화

-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강성국가’, ‘선군조선’, ‘사회주의문명국’을 주로 사용, 2016년 제7차 당대회 기점으로 ‘강국’, ‘주체조선’ 등이 이를 대체, 김정은 자신의 정치를 본격화하는 상징 용어 사용

□ 그 밖의 국가 관련 용어

○ 강성대국

- 2012년 27회 언급, 2013~2014년 각각 1회 언급된 뒤 소멸
- ‘강성대국’은 김정일 시대의 용어로 김정은 시대 들어 ‘강성국가’로 대체
- ‘대국’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현실적, 실질적 용어의 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강대국

- ‘강성대국’ ‘강대국’ 등 ‘대국’이 포함된 단어는 김정일 시대의 용어로서 김정은 시대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경향
- 용례: ‘문명한 강대국(2012)’, ‘세계적인 강대국, 사회주의강대국(2016)’, ‘사회주의강대국(2017)’, ‘강대국의 주인된 인민, 사회주의강대국(2018)’, ‘불패의 강대국, 세계가 우러르는 강대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강의 힘을 가진 사회주의강대국(2019)’
- ‘사회주의강대국’은 김정일의 ‘강성대국’과 유사 용어로 보이지만, 대체로 ‘강대국’은 ‘세계적’ 수준·위상·힘 등의 맥락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2019년 8회 사용으로 빈도가 증가한 것은 2018년 정세 전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 외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계무대'에서 나라의 위상·힘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 차원으로 볼 수 있음.

〈표 II-7〉 '강대국'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2	0	0	0	4	1	2	8	0

○ 영웅조선

- 전반적으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꾸준히 사용됨.
- '영웅조선'은 '두 제국주의강적을 때려부신 영웅조선, 천리마의 기상' 등과 같이 김일성의 혁명, 전쟁, 인민군, 군사강국, 전승신화 등과 관련된 서사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체육, 과학 등으로 의미 확장

〈표 II-8〉 '영웅조선'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9	3	8	10	10	10	5	3

○ 전략국가

-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직후 등장해 2018년 신년사에서 언급된 '전략국가'는 2018년 사설에서 11회 언급되며 '핵무력완성'을 의미하는 전략·정책용어로 단기간 사용, '핵보유국가' 대체 용어로 활용됨.
- 이후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세운 정신"<sup>20)</sup>을 시작으로 "세계 공인 전략국가 지위" 서사로 사용, "짧은 기간 급부상, 급상승, 세계정치 흐름 주도했다"라는 맥락에서 미제의 책동, 제재압박 속 특대사변 성과를 의미

2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노동신문』, 201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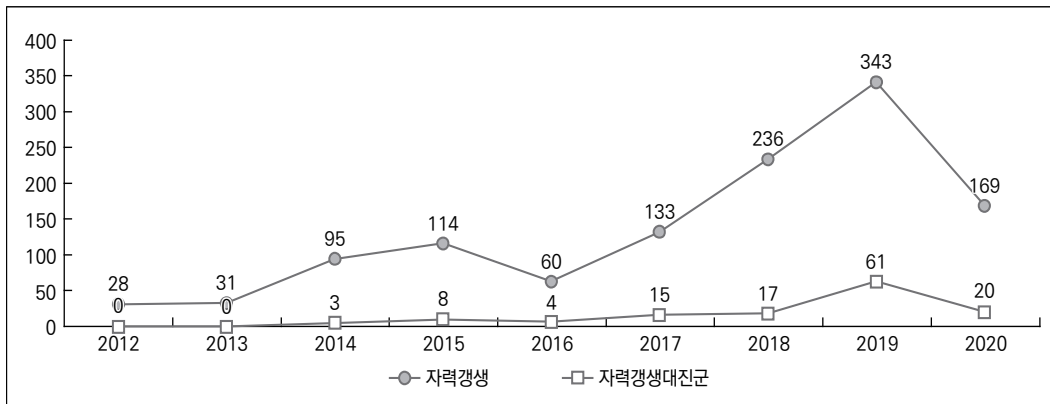
- 핵보유국이라는 의미가 강해 북미협상이 진행되면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2019년 이후 '전략적 지위'를 빈번하게 사용하며 포괄적 의미를 부여
- '전략'이라는 용어 사용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2018년 4월 전원회의)'과 같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주목 필요

○ 그밖에 국가 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로 '강성조국', '부강조국', '통일조국', '강성조선', '천리마 조선', '핵대국', '통일강성국가', '통일강성대국', '인민의나라', '내나라, 내조국' 등이 있음.

(5) '자력' 연관어: 자력갱생, 자강력, 자력자강, 자력부강, 자력번영

□ '자력갱생'과 '자력갱생대진군'

〈그래프 II-10〉 '자력갱생'과 '자력갱생대진군'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자력갱생'은 2014~2015년, 2018~2019년 등의 기간에 빈도 증가
- 2016년은 '자강력제일주의'가 등장하면서 '자력갱생' 용어의 빈도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그 의미는 지속
- 2017년부터 '자력갱생' 빈도는 두 번째 폭증하며 2019년에 정점을 찍음.

- ‘자력갱생대진군’은 2014년 등장해 2017년부터 빈도 증가
- 2019년은 ‘자력갱생’과 ‘자력갱생대진군’ 모두 최다빈도를 나타냄.

○ 자력갱생

- ‘자력갱생’은 2014~2016년 ‘간고분투의 정신’, ‘견인불발의 투쟁정신’,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등과 함께 김정일의 정신, 당의 구호로 설명됨.
- 따라서 ‘역사와 전통’을 포함한 “자력갱생의 역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자”와 같은 사설 제목이 나옴.<sup>21)</sup>
- 자력갱생의 기관차는 ‘과학기술’, 기본목표는 ‘국산화’, 자력갱생의 선구자는 ‘자강력’
- 2016년 12월 ‘강원도정신’이 시작된 원산군민발전소 연제에 ‘자력갱생’ 글발이 새겨짐.
- ‘자력갱생’은 ‘강원도정신’, ‘백두의 혁명정신’, ‘과학기술’, ‘경제건설’, ‘만리마’, ‘정면 돌파정신’ 등과 연결되어 설명

○ ‘자력갱생’의 역사적 맥락

- ‘자력갱생’은 김일성이 1961년 12월 제시한 바 있으며,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시기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외부의 지원이 부족한 시기 내부의 자원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정책용어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음.
- 김정은 집권 초기 자력갱생을 ‘김정일의 정신’으로 설명했으나, ‘당의 구호’로 강조된 이후 김정은 집권 내내 비중 있는 ‘정신, 구호, 운동, 노선, 전략, 사상’ 등으로 활용되는 전략·정책용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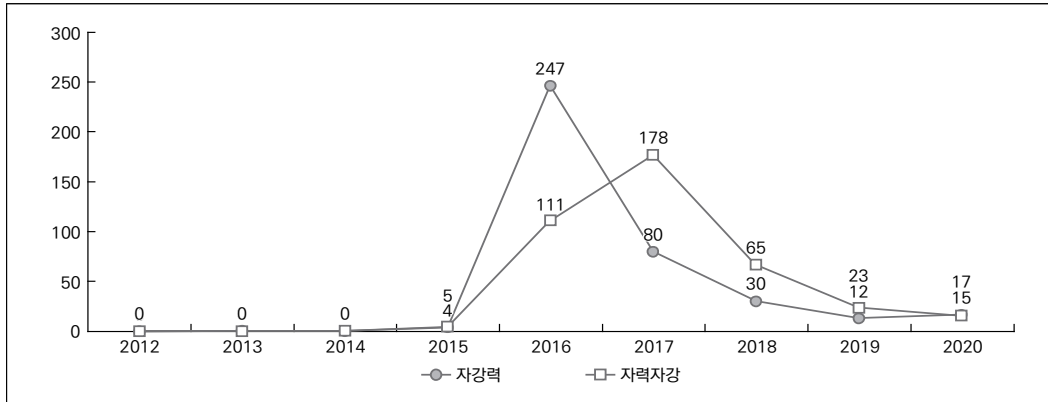
○ 자력갱생대진군

-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의 ‘자력갱생의 기치’ 발언으로 ‘자력갱생’과 ‘자력갱생대진군’ 빈도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자력갱생’이 포함된 사설은 모두 6개
- 2020년의 경우 ‘자력갱생대진군’은 곧 ‘정면돌파전’으로 의미 부여

21) 『노동신문』, 2014.3.24.

□ '자강력'과 '자력자강'

〈그래프 II-11〉 '자강력'과 '자력자강'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자강력'은 2015년 처음 등장했으나 2016년 신년사와 제7차 당대회에서 '자강력 제일주의'가 강조되면서 최다빈도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
- '자력자강'도 2015년 '자강력'과 함께 등장해 2017년 최다빈도 후 감소세
- 7차 당대회 시점 빈도가 폭증했지만 '자력갱생'과 달리 '정면돌파전'에서 강조되지는 않음.

□ '자력부강'과 '자력번영'

○ 빈도와 추이

- '자력부강' 빈도: 2018년 2회, 2019년 12회, 2020년 52회
- '자력번영' 빈도: 2019년 6회, 2020년 43회
- '자력부강'은 2018년, '자력번영'은 2019년 등장해 둘 다 2020년도에 다빈도를 나타낸 가장 최근의 전략·정책용어

○ 의미 맥락

- 2018년 4월 '사회주의건설 총력발전'이라는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라 제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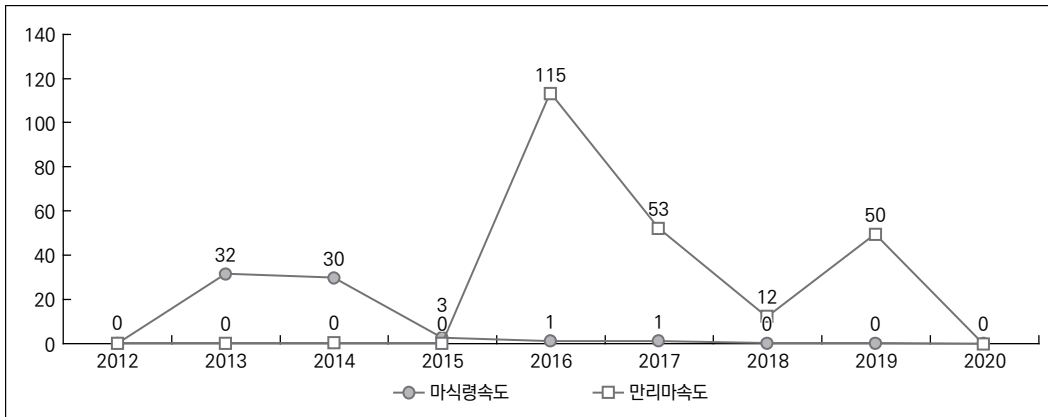
‘부강’과 ‘번영’이 ‘자력갱생’의 ‘자력’과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자력갱생’과 유사 의미를 갖지만, 좀 더 ‘경제’를 강조해 목표를 나타내는 용어

- 2019년 10월 23일 삼지연군 건설장 현지도 보도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는 표현, 2020년 순천린비료공장을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sup>22)</sup> 표현
- 2020년의 다빈도는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면돌파전의 방향성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이 제시된 것과 함께, 당 창건일까지의 투쟁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내걸었고, 당 창건일 이후 제8차 당대회까지 ‘80일전투’를 치르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구호로 내거는 등 3차례 계기에서 용어 강조

(6) ‘속도’ 연관어: 마식령속도, 만리마속도, 조선속도, 평양속도

□ ‘마식령속도’와 ‘만리마속도’

〈그래프 II-12〉 ‘마식령속도’와 ‘만리만속도’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마식령속도’는 2013~2014년 사용 후 소멸
- ‘만리마속도’는 2016~2019년 활용되고 사라짐.

22) “위대한 정면돌파전사상이 안아올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창조물 순천린비료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노동신문』, 2020.5.2.

○ 마식령속도

- 2013년 6월 4일 김정은 호소문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 첫 등장, 이후 6월 8일 사설 제목으로 등장
- 2013년 12월 마식령스키장 완공을 본보기로 2014년 ‘마식령속도’를 김정은의 ‘새로운 사회주의대건설속도’, ‘새로운 진군속도’로 설명하며 ‘새로운 시대어’로 규정<sup>23)</sup>
- 마식령지구 스키장건설은 10년 공사를 1년 공사로 앞당긴 것으로 ‘건설의 대전성기’ 문명국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로 정의<sup>24)</sup>
- 그러나 2014년 4월 23일 사설 이후 ‘마식령속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마식령속도’를 ‘지난 시기의 성과·구호’로 언급하며 빈도 급감

○ 만리마(의) 속도

- 2015년 12월 28일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연설에서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인 오늘날’ 발언
- 2016년 김정은의 신년사를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치는 ‘강성국가의 표대’로 해석하며 1월 4일 사설에서 ‘만리마속도’ 용어가 등장, 2016년 집중적으로 사용
-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 등장을 ‘만리마속도창조’로 해석,<sup>25)</sup> 2017년 ‘강원도정신’이 등장하며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으로 규정<sup>26)</sup>하는 등 시대 대표정신으로 내세움.
- ‘만리마시대’<sup>27)</sup>, ‘만리마선구자’<sup>28)</sup>, ‘만리마대진군’<sup>29)</sup> 등이 사설에 등장했고, 2017년 ‘만리마조선’이 1회 등장한 바 있으며, 2018년 ‘자력갱생만리마’, 2019년 ‘만리마속도 창조운동’ 등 파생어들로 확장되었으나 2020년 언급 없음.

23)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 『노동신문』, 2014.1.4.

24) 위의 기사.

25)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자,” 『노동신문』, 2016.7.22.

26) “강원도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자,” 『노동신문』, 201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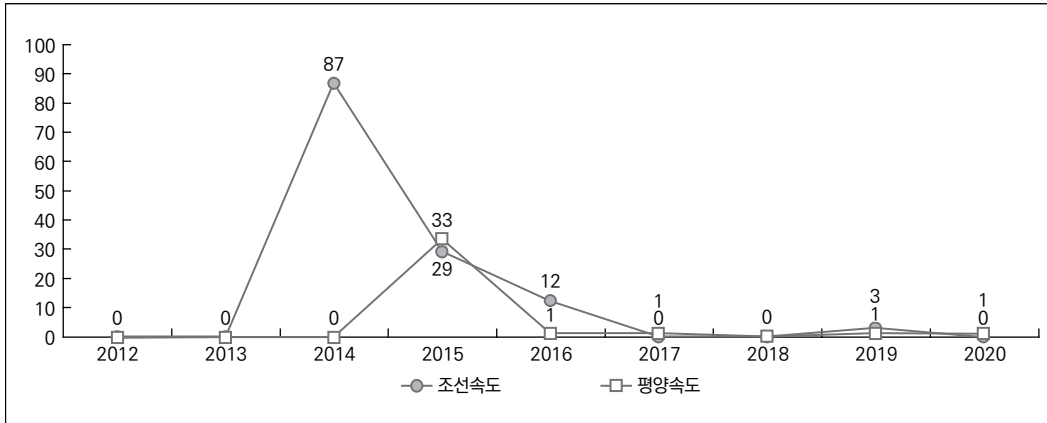
27) “만리마시대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녀성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노동신문』, 2017.3.8.

28) “모두다 만리마선구자의 긍지드높이 승리의 대회장에 땀땀이 들어서자,” 『노동신문』, 2017.3.13.

29)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만리마시대의 중요한 요구,” 『노동신문』, 2016.7.22.

□ ‘조선속도’와 ‘평양속도’

〈그래프 II-13〉 ‘조선속도’와 ‘평양속도’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조선속도’는 2014~2016년 집중 사용되고 거의 사라졌으며, ‘평양속도’는 2015년에만 나타난 용어

○ 조선속도

- 2014년 ‘새로운 조선속도 창조’로 언급되며 등장 한 뒤 ‘문명한 생활’, ‘백두의 혁명 정신’, ‘최첨단돌파전’과 함께 언급<sup>30)</sup>
- 이후 ‘새로운’ 수식어가 빠지고 ‘조선속도창조열풍·투쟁’으로도 언급, 당은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자!》,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 등의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며, ‘김정은의 공격속도, 조국의 전진속도’로 설명
- 2015년 들어 2012~2014년을 ‘마식령속도’에 이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 건설의 최전성기-대변영기로 평가하였으며, 조선속도를 ‘새로운 평양속도’로 규정
-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200일 전투’와 함께 ‘새로운 조선속도’를 ‘만리마속도’로 재규정<sup>31)</sup>

3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노동신문』, 2014.4.11.

○ 평양속도

- 2015년 한 해 동안 ‘1950년대 평양속도창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천리마, 속도전, 평양번영기’ 등 과거를 소환해 ‘창조’를 덧붙여 현재에 적용한 전략·정책용어임.
- “평양속도 → 평양정신, 평양속도 → 조선속도, 평양정신, 평양속도”로 의미 구조 변화

○ 천리마속도

- 한편 ‘천리마속도’는 사설에서 2012~2017년 총 11회 사용된 바 있는데, 대부분 수령들의 위업 설명에 사용
-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의 경우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을 김정일의 대고조진군에서 창조된 공격전의 기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등장
- ‘새로운 천리마속도’는 김정일의 ‘강선의 봉화’이기도 하며, 2011년 김정일이 지핀 ‘함남의 불길’은 1970년대 투쟁정신을 계승한 ‘새로운 천리마속도, 조선의 속도’로 설명됨.
- 다시 말해 ‘새로운 천리마속도’는 김정은시대의 속도가 아님.

○ 사설에서의 ‘속도’ 사용 빈도는 <표 II-9>와 같이 2013~2016년 집중되어 있으며, 제7차 당대회까지 속도를 강조해 왔음.

- 시기별 대표적인 ‘속도’ 연관어로는 2013년 ‘마식령속도’, 2014년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2015년 ‘조선속도, 평양속도’, 2016~2019년 ‘만리마속도’

<표 II-9> ‘속도’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49	206	235	169	267	121	78	137	38

- 김정은시대의 ‘속도’는 ‘마식령속도’에서 ‘만리마속도’로 넘어왔으며, 그 연결부분에 ‘조선속도, 평양속도’가 사용되고 있음.
- ‘조선속도, 평양속도’는 특정한 의미를 담은 것이라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31) “20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향하여 련속공격, 계속전진해나가자,” 『노동신문』, 201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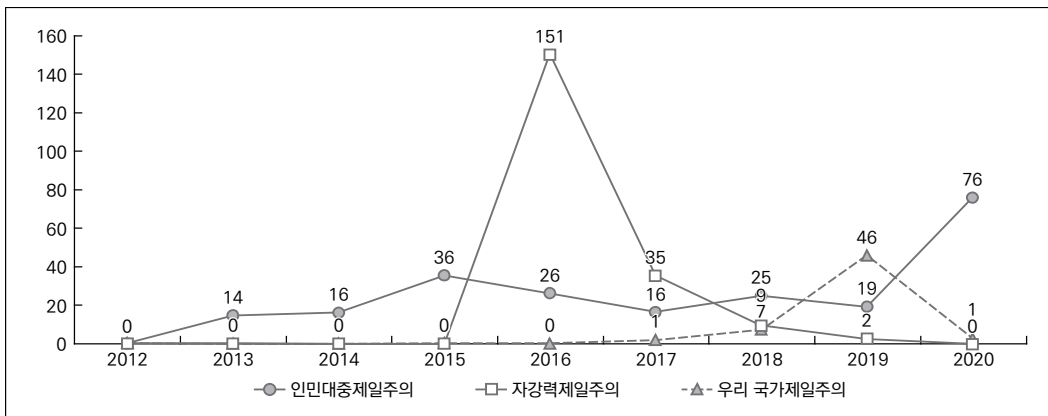


사용되었던 용어를 다시 한번 가져와 ‘새로운 조선속도’, ‘새로운 평양속도’로 김정은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7) ‘제일주의’ 연관어: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그래프 II-14〉 ‘제일주의’ 관련 용어들의 시기별 빈도와 추이



○ 인민대중제일주의

- 2013년 등장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거치며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전략·정책용어로 자리매김함.
- 김정은 시대 정치이념이자 사상이 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20년 최다빈도를 나타내며 앞으로 김정은 시대 핵심 키워드로 생명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

○ 자강력제일주의

- 2016년 신년사에서 등장해 제7차 당대회에서 전략적 노선으로 규정되며 한해 집중적으로 활용된 뒤 사설에서 자취를 감춘 용어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자력자강의 정신’, ‘나라와 민족의 존엄’, ‘자력갱생의 구현’ 등으로 규정
- ‘자력갱생, 자력자강, 자력부강, 자력번영’ 등 대체어들을 파생시켰으며, 2020년 ‘정면 돌파전’과 연속성을 갖고 있음.

○ 우리 국가제일주의

-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완성’ 선포 이후 11월 30일 사설에 등장
- 2019년 최다 언급되었으나 2020년 언급 급감
-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높아진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표현하는 전략·정책용어로 향후 김정은 시대의 대표용어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서 경제 발전을 호소하는 구호로 활용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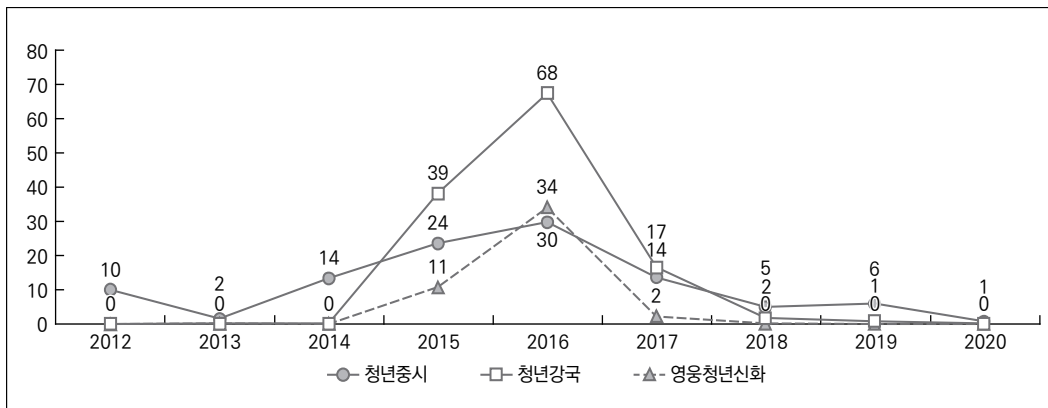
○ ‘제일주의’ 의미 맥락

-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 2019년 ‘우리 국가제일주의’, 2020년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김정은 시대 핵심어들과 결합해 전략·정책용어로 활용
- 그밖에 ‘수령제일주의, 사상제일주의, 제도제일주의’ 등 이전 시대 용어들과 ‘우리 인민 제일주의’(2017),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2019) 등이 일회성으로 사용되었으나 지속성을 갖진 않음.

(8) ‘청년’ 연관어 : 청년중시,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 ‘청년중시’,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그래프 II-15〉 ‘청년중시’,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시기별 빈도와 추이



○ 빈도와 추이

- ‘청년’ 연관어는 대체로 2015~2017년 집중적으로 사용됐으며, 특히 2016년 최다빈도를 보였고 2018년부터 언급 감소하며 의례적 사용에 그침.
- 김정은 시대를 표상하는 용어로 ‘청년’이 꼽히지만, 사설에서는 관련 용어들이 제7차 당대회를 전후한 특정 시기에 등장하고 소멸하고 있음.

○ 청년중시

- ‘청년중시’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정치로 설명되며 2012년부터 꾸준히 등장
- ‘청년중시사상’은 매해 8월 28일 청년절의 의례적 구호지만, 정권 초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청년중시정치’로 더 많이 언급

○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

- 김정은 시대 신조어인 ‘청년강국’, ‘영웅청년신화’가 2015년 등장한 것은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청년’ 파생어들의 확산 이후부터임.
- ‘영웅청년신화’는 8월 28일 청년절에 완공한 1호발전소연제공사에 대해 9월 현지지도에서 명명, ‘청년강국’ 역시 김정은의 현지지도 발언을 당이 내놓은 ‘시대어’로 규정하며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정의
- ‘백두산청년강국’을 사설 제목<sup>32)</sup>으로 내세우고, 청년들의 영웅신화창조를 독려<sup>33)</sup>

□ 그 밖의 청년 연관어

○ 청년돌격정신

- 2015년 10월 3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완공과 관련 이를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으로 평가하며 등장한 일회성 용어로 10년 동안 진행한 작업과제를 120일에 해낸 것을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설명
- 사설에서는 2015년 10월 8일 등장해 2015년 15회, 2016년 11회 언급한 이후 소멸

32)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나가자,” 『노동신문』, 2016.9.2.

33) “청년들은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해나가자,” 『노동신문』, 2017.1.17.

○ 청년복

- 2016년 사설에서 한 차례 언급, 전략·정책용어로 자리매김하지 못함.
-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10월 3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 연설에서 발언한 바 있음.
- 이전 시기에 ‘수령복’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청년복’이 있음을 부각하려는 용어 사용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식복’에 빗댄 표현이지만, “인민이 가진 수령복”이라는 프레임을 “당이 가진 청년복”으로 변용, ‘인민’을 중시하는 김정은 시대의 특징적 서사 구조와 연결됨.

○ 청년선구자

- 2015년 ‘처녀어머니’ 등과 같은 청년미풍선구자를 이르는 말로 등장해 6회 언급
- 2016년과 2017년 사설에서 1회씩 언급되었으나 이후 전략정책용어로 이어지지 않음.

○ ‘청춘’ 연관어

- ‘청춘’ 연관어로 ‘백두청춘’, ‘청춘대기념비’ 등이 있는데, 이 역시 2015~2016년 사용되었다가 이후 사라짐.
- ‘청년’과 ‘청춘’ 관련 용어들은 북한 문헌에서 ‘시대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시대어로 자리를 잡기보다는 ‘수식어’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의 의미 맥락

- 2015년 청년미풍선구자대회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계기로 ‘청년’ 연관어들이 확장되어 2016년 다빈도로 사용되고 ‘청년강국’ 제시 이후 ‘청년’ 연관어들은 급감하며 소멸
- 김정은 집권 초기 젊은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기 위해 ‘새로움’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용어와 결부시켰다가 이후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통치의 노련함을 보이려 용어 사용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 연도별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연도별로 특정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용어들이 식별됨.
  - 2012년 ‘생눈길’, 2013년 ‘일당백’, 2014년 ‘전민과학기술인재화’, 2015년 ‘황금해’, 2013~2015년 ‘단숨에’, 2016년 ‘곧바로’, 2017년 ‘강원도정신’, ‘전민총돌격전’, 2020년 ‘정면돌파전’ 등
  - 이 용어들은 ‘구호, 정신, 사상’ 등으로 불리며 당면 과제를 제시해 전략·정책용어로 특정 시기 활용되었지만 지속되지 않음.
    - 이 중 2020년 ‘정면돌파전’은 그 이후 추이가 관찰되지 않아 ‘일회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구대상 기간에서는 1년만 나타나는 용어임.

〈표 II-10〉 연도별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어	생눈길	일당백	전민과학기술인재화	황금해	곧바로	강원도정신 전민총돌격전			정면돌파전
		단숨에							

(1) 생눈길(2012년)

- 빈도와 추이
  - 2012년 79회로 최다빈도, 이후 급감

〈표 II-11〉 ‘생눈길’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79	5	16	15	21	13	10	9	11

○ 용어의 전개

- 2012년 10월 16일 사설에서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정의

- 2012년 ‘생눈길정신’(4회), ‘생눈길진군’(13회) 등을 언급하며 정책용어로 만들려 했으나, 2013년부터 빈도가 급감하며 ‘생눈길’ 용어에 ‘정신’이나 ‘진군’ 등 파생어가 따르지 않음.
- 대신 ‘역사의 생눈길’, ‘생눈길, 진창길’, ‘생눈길, 진펄길’ 등과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
- 2016년 당대회 직후 5월 12일 사설에서 ‘전인미답의 생눈길’이 등장하며 김정은의 용어로 가져왔으며, 2017년 9월 9일 사설에서 ‘핵무기병기화의 생눈길’과 같은 표현 역시 김정은의 업적을 나타내고 있음.
- 2018년은 ‘당일군과 당원들’에게 생눈길을 헤칠 것을 요구, 2019년에는 ‘청년과 근로자’에게 생눈길을 호소함.

○ 의미 맥락

- ‘생눈길’은 정권 초기 수령들을 본받는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며 ‘생눈길정신’과 같은 용어를 만들어 사설 제목으로도 제시해 이끌려 한 바 있지만 이후 ‘시대정신’으로는 활용되지 않음.
-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생눈길’의 맥락은 수령들의 업적보다는 김정은과 현 세대의 업적과 태도가 되었으며, 이후 일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눈길’을 호소하지만 전략·정책 용어에서는 이탈함.

(2) 일당백(2013년)

○ 빈도와 추이

- 2013년 ‘사설 제목’에 등장하며 그해 최다빈도 기록, 이후 빈도 감소

〈표 II-12〉 ‘일당백’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12	88	14	15	12	12	5	7	6

○ 용어의 전개

- 일당백은 ‘단숨에의 정신’과 연관해 2012년 신년사설부터 사용됨.
- 2013년 2월 6일 사설 제목에 “《일당백》의 구호”가 제시된 것은 김일성의 발언 50년을

- 기념한 것으로, 김일성은 1963년 2월 6일 최전연 초소를 찾아 “인민군대에서 들고나 가야 할 구호는 일당백입니다.”라고 발언, ‘일당백’은 인민군장병들에게 ‘전투적구호’로 제시됨.<sup>34)</sup>
- 2013년의 ‘일당백’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속도, 마식령속도”와 같은 문구로 활용하며, ‘일당백’을 ‘속도’로 의미화 함.
  - 2014년에도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조선속도’로 활용되었으나 빈도 감소
  - 인민군대의 ‘정신, 기상, 구호, 기치’에서 일군들의 것으로 확장했으나 다시 인민군대의 속성으로 의미화하며 전략·정책용어로는 정착하지 않음.

○ 의미 맥락

- ‘일당백’ 구호는 김일성 발언 기념을 계기로 정권 초기 ‘일당백 정신·구호·기상’과 같은 전략정책용어로 제시되었으나 단발성 용어에 그침.
-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등 김정은시대의 용어와 결합하며 ‘속도’ 의미로 확장하려 했으나 이 역시 일시적인 시도에 그치고 이후에는 의례적으로만 활용됨.
- ‘군인’을 이르는 용어, 김일성이 제시한 구호 등 한정적으로 활용되는데 머물게 됨.

(3) 전민과학기술인재화(2014년)

○ 빈도와 추이

- 2013년 김정은 발언으로 등장해 2014년 최다빈도 기록하고 이후 감소

〈표 II-13〉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5	35	12	11	8	3	10	4

○ 연관어의 전개

- 2013년 10월 19일 사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수준을

34) “«일당백»의 구호를 영원히 추켜들고나가자,” 『노동신문』, 2013.2.6.

끊임없이 높아나가야 한다”에 등장해 ‘구호’로 제시되고, 과학기술중시와 같은 의미로 목표는 강성국가건설

- 김정은의 2013년 6월 23일 담화에서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사상, 총대, 과학기술’ 제시
- 2014년 6월 1일 쑥섬개발사업 현지지도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발언하며, ‘과학은 사회주의의 기관차’라 언급
- 2014년 9월 5일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발표된 김정은 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실현’ 강조하며 ‘사회주의교육강국’을 목표로 함.
- 연관어: 과학기술중시,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 과학기술대전, 과학농사열풍, 지식 경제강국, 국산화, 현대화, 새 세기 교육혁명, 교육강국, 인재강국 등

○ 의미 맥락

- 지난 시기 선군의 구호 프레임이던 ‘전민무장화’를 빗대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제시함.
- 자력갱생으로 경제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중시’를 내세우며 농사 등 각 분야 수식어로 확장 적용, 당의 구호이자 사상과 방침으로 제시
- ‘과학, 교육, 인재’ 등과 연관되며 자력갱생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결합한 용어로서 ‘과학기술중시’를 통한 ‘전인민의 과학기술인재화’ 의미는 이어질 전망이나 전략·정책 용어로는 정착하지 않음.

(4) 황금해(2015년)

○ 빈도와 추이

- 2014년 등장해 2015년 많이 사용되었으나 2018년 이후 소멸하는 정책용어

〈표 II-14〉 ‘황금해’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0	18	29	17	14	4	3	1



○ 용어의 전개

- 2014년 11월 20일 사설 “물고기대풍으로 황금해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자”의 제목으로 제시
-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는 2014년 12월 2일 등장<sup>35)</sup>, ‘황금산, 황금벌’은 김일성, 김정일의 용어이며 여기에 김정은의 ‘황금해’를 얹은 문구
- 김정은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발언에서 가져온 것으로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 의미
-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황금해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여 김정은의 시대어로 위상을 만들었으며, 2017년에도 ‘황금해의 역사’를 사설 제목에 언급<sup>36)</sup>

○ 의미 맥락

- 김정은 시대 수산부문 용어들이 “황금해,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 이채어경, 수산혁명” 등 다양하게 파생된 가운데, ‘황금해’를 수령들의 ‘황금산, 황금벌’에 대등한 김정은 시대의 용어이자 특징적인 성과로 제시하려 함.
- ‘황금산’의 경우 매해 3월 2일 식수절에서 ‘황금산, 보물산’과 같은 용어로 기념하고 있는 데 비해 ‘황금해’의 경우 따로 기념일이 없는데다 ‘수산’ 관련 이슈가 아니라면 특별히 사설에서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5) 단숨에(2013~2015년)

○ 빈도와 추이

- 2013~2015년 사설 제목으로 제시하는 등 활용했으나 2017년 이후 빈도 급감

〈표 II-15〉 ‘단숨에’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34	44	44	40	31	16	3	7	3

35)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자,” 『노동신문』, 2014.12.2.

36) “겨울철물고기잡이전투에서 승전포성을 울려 황금해의 역사를 빛내어나가자,” 『노동신문』, 2017.11.7.

○ 용어의 전개

- 2011년 6월 인용표에 묶은 《단숨에》 표현 등장, 당시 의미는 김정일 시기 자강도 희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현된 군인들의 기질과 성격을 나타냄.
- ‘단숨에’는 일반적인 부사로 사용되면서도 인용표로 강조해 ‘《단숨에》기상’, ‘《단숨에》정신’ 등 고유명사로 사용됨.
- 2013년 ‘단숨에의 기상’은 시대정신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단숨에의 기적’<sup>37)</sup>은 김정은 업적으로도 설명
- 2014년 ‘단숨에의 기상’을 ‘조선속도’와 연결한 ‘단숨에의 돌격속도’ 등장
- 2015년 ‘단숨에의 기상’을 제시하고 ‘총돌격속도’를 내세워, ‘단숨에’를 ‘기상’으로 정착시키려 함.<sup>38)</sup>

○ 의미 맥락

- 정권 초기 ‘단숨에’를 ‘시대정신’으로 만들려 했으나 이후 위상을 낮춰 방법적 차원의 ‘기상’으로 제시했지만, 결국에는 소멸하고 있는 전략·정책용어임.

(6) 곧바로(2016년)

○ 빈도와 추이

- 정권 초기부터 활용하려 했으나 2017년부터 빈도 감소하며 소멸 중인 용어

〈표 II-16〉 ‘곧바로’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27	23	21	28	30	12	10	5	5

37) “백두의 천출위인을 진두에 모신 우리 당과 조국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노동신문』, 2013.4.11.

38)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 단숨에의 기상으로 총돌격속도를 최대로 높이자,” 『노동신문』, 2015.9.17.

○ 용어의 전개

- ‘곧바로’는 일반적인 부사로도 쓰이지만 2012년 김정은 발언에서 따와 사설에서는 인용표에 묶어 ‘《곧바로》의 구호’, ‘《곧바로》의 정신’ 등과 같이 고유명사로 제시함.
- 2012년 8월 28일 청년절 사설에 ‘곧바로’를 제목으로 내세워 ‘청년’ 대상 용어로 제시
- 2015년 사설 제목으로 ‘곧바로 힘차게’를 제시<sup>39)</sup>하고 2016년에는 ‘자력자강’의 연관어로 ‘곧바로 정신’을 제시함.
- 그러나 2017년 빈도 감소하며 ‘구호’나 ‘정신’으로 언급 안됨.

○ 의미 맥락

- ‘생눈길’이나 ‘단숨에’처럼 ‘곧바로’ 역시 2012년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구호’와 ‘정신’ 등을 붙여 ‘시대정신’으로 정착시키려 시도한 흔적을 볼 수 있음.
- ‘부사’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시대정신이 되지 않고 소멸되는 추이를 보임.

(7) 강원도정신(2017년)

○ 빈도와 추이

- 2017년 등장해 44회 언급되며 최다빈도 기록, 이후 급감한 용어

〈표 II-17〉 ‘강원도정신’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빈도수	0	0	0	0	0	44	9	6	1

○ 용어의 전개

- 2016년 12월 원산군민발전소 현지지도에서 김정은이 근로자들에게 명명한 시대정신으로 2017년 1월 24일 사설 제목에 등장해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자력자강의 원동력, 백두의 혁명정신의 구현, 만리마시대의 본보기 정신”으로 설명

39) “일심단결의 노래, 승리의 노래높이 위대한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자,” 『노동신문』, 2015.11.13.

- ‘강원도정신’, ‘강원도정신창조자들’ 등으로 활용됨.
- 김정일에게 ‘자강도’ 인민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강원도’ 인민이 있다는 의미

○ 의미 맥락

- ‘강원도정신’을 모범이자 시대정신으로 삼아 ‘자력자강’에 동원했지만, 한 해 집중 사용된 뒤 단기간에 힘을 잃은 용어
- 자력갱생, 자강력 등의 용어로 의미가 수렴되었지만 지속적인 전략·정책용어로 사용되지는 않음.
- 다만 ‘지난 2016년 12월의 강원도정신’을 되돌아보는 용어 정도로 사용될 전망

(8) 전민총돌격전(2017년)

○ 빈도와 추이

- 2017년 등장해 96회 언급되며 최다빈도, 사실 제목으로도 5회 게재됨.
- 이후 2018년(1회), 2019년(5회) 등 급감

○ 용어의 전개

- 2017년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 총력집중’을 위해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며 제시함. 즉 ‘경제강국건설’ 위한 투쟁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 과학기술중시기풍, 강원도정신, 수령결사옹위전,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 등과 관련됨.
- 2019년에 다시 한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다그침.
- 연관어: 비약의 불바람, 비약의 폭풍, 대고조진군, 대비약적혁신,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 전민결사전, 총돌격전, 총결사전 등

○ 의미 맥락

- ‘전민총돌격전’은 2016년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해 제시된 구호로 2017년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나 5개년전략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지속 사용되지 않음.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정면돌파전’으로 전략·정책용어가 대체된 것으로 보임.

### (9) 정면돌파전(2020년)

#### ○ 빈도와 추이

- 2020년 1월 3일 사설에 등장한 이후 321회 언급
- 본 연구대상에는 마지막 해에 포함되어 ‘단발성’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13년 6월 8일 사설에 등장한 적이 있지만 이때는 ‘마식령속도’를 언급하며 적들의 도전에 정면돌파전으로 맞서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전략용어가 아니라 일회성 설명이었음.

#### ○ 용어의 전개

- 201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김정은 보고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로 제시함. 이때 정면돌파전은 ‘혁명적로선, 투쟁방향’으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 주타격전방은 농업전선, 열쇠는 과학기술로 설명함. 또한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한 담보는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를 들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사설 제목으로 ‘정면돌파전’이 14번 사용되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사설에서 ‘정면돌파전’을 언급하고 있음. ‘수령옹위전’,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 ‘자력갱생의 창조대전’,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집단주의의 위력’ 등으로 설명함.

#### ○ 의미 맥락

- 2020년 구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제재와 방역 봉쇄 등이 풀리지 않아 주변 환경 도움 없이 자력갱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8차 당대회 성과를 다그치며 인민을 동원하는 전략용어로 이어질 전망이다.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민총돌격전’이 실패하자 대체된 용어로 보임.

### (10) 기타 사설 제목으로 제시된 바 있는 단발성 전략정책용어들

#### ○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

- 2016년 7월 11일 사설 제목으로 등장, 2016년 33회 언급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음.

- 김정은 발언에서 가져와 당대회 전후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인민과 군대의 혁명과 투쟁의 진군가, 신념의 찬가로 설명
- 김형직이 만든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혁명투사, 계승자대군을 키워낸 신념의 노래로 소환해 ‘지원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설명
- “민족자주정신,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이 맥박치는 노래”로 소개

○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

- 2012년 7월 모란봉악단이 시범공연으로 첫 선을 보인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창조기풍을 따라 배우자는 의미로 2014년 6월 3일 사설 제목으로 제시된 바 있음.
- 2015년 사설에서 일부 언급되었으나 이후 소멸된 용어
- 김정은시대에 창단한 악단으로서 ‘시대적명작창작’, ‘명작폭포’의 기수로 내세움.

○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운동

- 2013년 11월 26일 사설 제목에서 제시, 2013년 20회 언급되었으나 이후 소멸
- 모든 부문을 과학화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선진문명국건설 다그치기 위한 대중운동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구호와 관련

○ 수자중시기풍(수자를 중시하는 기풍)

- 2019년 7월 7일 사설 제목에서 제시, 2019년 외에는 언급된 바 없음.
- 김정은 발언에서 등장, “수자화, 지능화로 나가는 세계적 발전추세”라며 과학기술 중시관점을 반영

## 라. 정책적 함의

- 『노동신문』 사설은 지도부 입장이 담긴 정제된 전략·정책용어 사용
- 사설 제목으로 반복 제시되는 용어들은 대체로 전략·정책용어로 볼 수 있음.
  - 대외적으로 전략용어를 통해 의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선전선동의 기준 용어로 사용
- 사설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는 김정은의 발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 사설은 최고지도자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도 지도부의 의증을 반영, 신중하게 전략·정책용어를 선별하여 구호와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는 역할
  - 사설을 통해 제시된 전략·정책용어는 당대를 풍미하는 시대어들과 조응하며 용어들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가는 특성이 있음.
- 『노동신문』 사설은 새로운 전략·정책용어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무대
- ‘생눈길정신’, ‘단숨에 정신’ ‘곧바로 의 정신’, ‘일당백 구호’ ‘강원도정신’ 등은 『노동신문』 사설 제목으로 등장, ‘시대정신’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정도 등장한 뒤 전략·정책용어로 정착하지 못하고 강조 빈도가 급감
  - 『노동신문』 사설은 당과 지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주된 역할이지만 시대정신이 될 법한 용어와 파생어들을 제시하고 배경을 설명하며 전략·정책용어화를 시도한 뒤 이를 다시 거둬들이는 기능도 하고 있음.
  - 이는 『노동신문』 사설이 시대정신을 만들기 위해 일부 용어들의 부침을 조절하는 ‘의도적’ 시행착오를 취한다는 해석이 가능함.
- 당대회는 전략·정책용어 탄생의 산실
-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폭증하며 다양하게 사용됨.

- ‘백두산대국’, ‘백두의 혁명정신’, ‘사회주의문명국’, ‘자강력제일주의’, ‘만리마속도’, ‘청년 강국’, ‘영웅청년신화’ 등이 있음.
  - 김정은 정권 초기에는 김정일 유훈통치로 선대 수령들의 정책을 소개하는 것에 비중을 두었다면(‘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들을 본격 제시
  - 또한 당대회의 성과와 업적에 그동안 준비해 온 김정은 시대 전략·정책용어(‘자강력 제일주의’, ‘만리마속도’)들을 소개
- 김정은시대 전략·정책용어들은 당대회를 기점으로 그룹핑된다고 할 수 있음.
- 상당수 전략·정책용어들이 2017년 혹은 2018년 이후 사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회를 기점으로 쏟아낸 전략·정책용어들이 파생용어를 발생시키거나 정세를 반영하여 정리되는 것으로 보임.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2018년 정세 전환 이후 ‘국가’를 강조하며 관련 전략·정책 용어들(‘강국’, ‘주체조선’, ‘자력자강’, ‘우리 국가제일주의’)을 제시
  - 2020년은 제8차 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당대회에서 등장할 전략·정책용어들(‘인민대중 제일주의’, ‘정면돌파전’)이 제시되기 시작
  - 2021년 제8차 당대회 전후 또 다른 전략·정책용어군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5년 주기 당대회마다 추가 조사로 확인이 필요
- 사설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로 본 김정은 시대 통치코드
-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과 계승성을 강조하는 전략·정책용어를 통해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부터 김정은 자신의 독자적 통치스타일에 맞는 용어를 만들어 나감.
- 가령 ‘수령’보다 ‘인민’을 앞세우며 권위적 지배와의 길항을 통치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 김정은 시대는 유독 ‘과학, 교육, 인재’를 강조하는 전략·정책용어의 사용이 빈번한데, 이는 김정은 시대로의 세대교체와 인구사회학적 세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새로운 세대는 ‘자강력’으로 ‘자력갱생’하여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전략·정책용어를 통해 강조
- 김정은 시대는 ‘민족’보다는 ‘국가’, ‘통일’ 대신 ‘외교’를 강조하는 전략을 보임.
- 따라서 2020년 전략·정책용어인 ‘정면돌파전’은 민족이나 통일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 사회에 대한 ‘국가와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 볼 수 있음.
-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민의 결속을 동력으로 삼아 발전전략, 국가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

## 2.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 가.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 분석 개요

- 2012~2020년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보도한 『노동신문』 기사 전체를 분석
  - 경제부문 현지지도, 부대시찰, 훈련 및 무기실험 참관, 각종 회의 주재 및 행사 참석, 신년사 및 각종 회의 보도 내용 등
  - 공개활동 보도 제목 표기 기준으로 1건 계산
  - 가령 당대회·당중앙위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 행사의 개회사, 폐회사, 관련 보도가 별도의 제목으로 보도된 경우 각각 개별 공개활동으로 구분하여 계상
  - 가령 정상회담의 경우 회담은 1회 진행하였으나, 연회, 만찬, 참관, 기념촬영 등 부대행사 등과 관련한 기사가 별도의 제목으로 보도된 경우 각각 별도 공개활동으로 구분하여 계상
  - 각 연도별 공개활동 관련 기사 수는 <표 II-18>과 같음.

〈표 II-18〉 연도별 『노동신문』 공개활동 관련 기사 게재 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게재 수	151	225	171	154	142	97	136	116	67	1,243

- 공개활동 보도에는 최고지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통치 메시지, 강조하고자 하는 노선 및 정책의 방향, 추구하는 발전전략 등이 제시되어 있음.
  - 공개활동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당의 노선과 정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업을 어필하여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sup>40)</sup>
  - 현지도 보도의 정형화된 형식은 지도자의 지도와 과업제시를 반드시 포함<sup>41)</sup>하고 있으며, 이는 ‘말씀’이라는 형식으로 북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
  
- 공개활동은 현지도 외에도 시찰, 지도, 참관, 관람, 접견, 연설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sup>42)</sup>
  - 특히 각종 당·정·군 회의 주제를 통한 ‘지도’, ‘연설’에서는 국가전략의 전반에 걸친 전략·정책용어들이 탄생
  - ‘현지도’는 주로 공장기업소 및 건설현장, 주요 사회·문화 기관 방문 보도를 통해 경제·사회 분야의 주요 관심사를 환기시키고 주요 전략·정책용어를 제시하는 기능
  - 군부대 ‘시찰’ 및 무기·훈련 ‘지도’, ‘참관’ 등을 통해 군사전략 상의 주요 관심사와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며 주요 전략·정책용어를 언급
  - 2018~2019년 빈번하게 있었던 정상회담 및 외빈 접견 보도를 통해 지도부의 전략적 관심사와 정세 인식, 외교적 요구사항 등을 드러내어 이후 전략·정책용어 등장의 준거점 제시
  
- 총 1,243건의 공개활동 보도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9년간 강조한 전략·정책용어를 선별
  - 단순히 언급 횟수가 많은 용어보다도 당시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서 전략적·정책적 함의가 크고 파급력이 강한 용어들을 선별
  - 선별된 해당 용어들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용어들의 사용 빈도와 용법의 변화 추이를 정성적으로 해석

40) 배영애, “김정은 현지도의 특성 연구,” 『통일전략』, 제15권 4호 (2015), pp. 129~166.

41) 홍민,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36, 2018.8.29.,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f255e42d-e60d-48ed-883e-637aa5eef72e>> (검색일: 2021.2.14.).

42) 위의 글.

□ 『노동신문』 공개활동 보도에서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목록

〈표 II-19〉 공개활동 보도에서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목록

핵심어근	전략·정책용어
인민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중심(사회주의) 인민사랑, 인민존중, 인민중시
김일성-김정일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김일성, 김정일조선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백두	백두산대국 백두산/백두의 칼바람·혁명강군·훈련열풍 백두산총대/총대정신 백두의 혁명정신
국가	강성국가 사회주의강국
핵	병진노선 핵 강국·무력·시험·보유국·전쟁억제력·전쟁·무기 비핵화 평화
경제	정면돌파전 자력更生·부강·번영·자강 자립경제 자립적민족경제
사회	지식경제(강국·시대) 사회주의문명강국 과학기술강국,全民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중시정책 첨단돌파전 돌격전
속도	마식령속도 조선속도 만리마속도, 천리마속도
청년	청년강국
시대적 용어 및 단발성 전략·정책용어	군력강화의 전성기 강국건설의 최전성기 역사적 전환기 방역, 피해복구

나. 정치·군사적 전략·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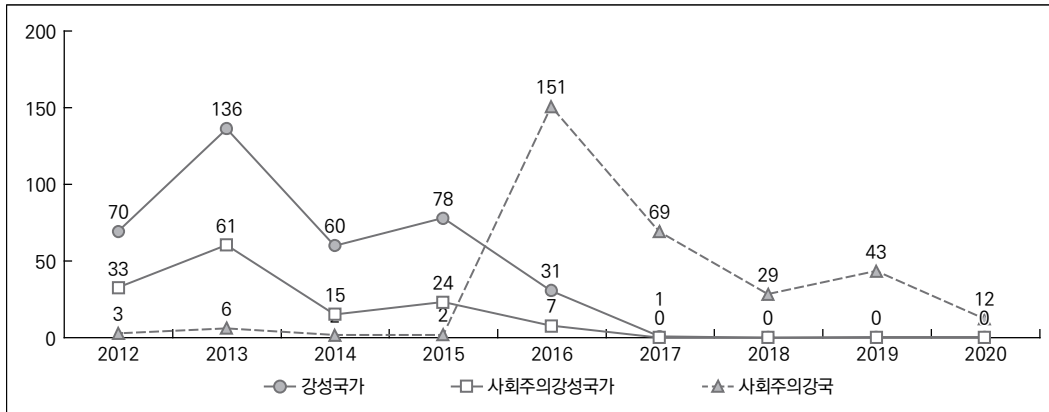
□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전략·정책용어: ‘강성국가’ → ‘사회주의강국’

○ ‘강성국가’에서 ‘사회주의강국’으로의 변화

- ‘강성국가건설’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한 2011년 12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에 등장<sup>43)</sup>
- 2012년 1월 1일 게재된 신년공동사설은 ‘주체 101년’인 2012년을 ‘새로운 주체의 100년대’라 칭하며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전환적 계선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강조<sup>44)</sup>
-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강성국가’가 ‘사회주의강국’으로 변화<sup>45)</sup>
- 2017년부터 공개활동 보도에서 ‘강성국가’ 대신 ‘사회주의강국’이 핵심 전략·정책 용어로 자리잡음.

○ ‘강성국가’ 및 ‘사회주의강국’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16〉 ‘강성국가’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강성국가’의 언급 횟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언급 횟수를 포함한 값

43)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 『조선중앙통신』, 2011.12.31.

44)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2012.1.1.

45) 제7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문에서 ‘강성국가’는 1회 언급되나, ‘사회주의강국’은 30회 언급

○ 국가의 강대성을 표현하는 서사구조

- ‘강성국가건설’은 김일성의 유훈으로 김정일 시기를 거쳐, 김정은 시기까지 내려온 북한 정권의 주요 전략목표
-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정치사상강국, 사회주의 군사강국, 사회주의 경제강국, 21세기 문명강국 등 사회 전 분야를 망라하는 전략·정책용어
-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선대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제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대체하는 전략·정책용어로 부상
- 제7차 사업총화보고에서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달성했다고 언급<sup>46)</sup>
- 김정은 집권 5년차에 접어들어 ‘강성국가 건설’을 성과로 내세우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정책용어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확립하려함.

□ 초기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정책용어: ‘김일성-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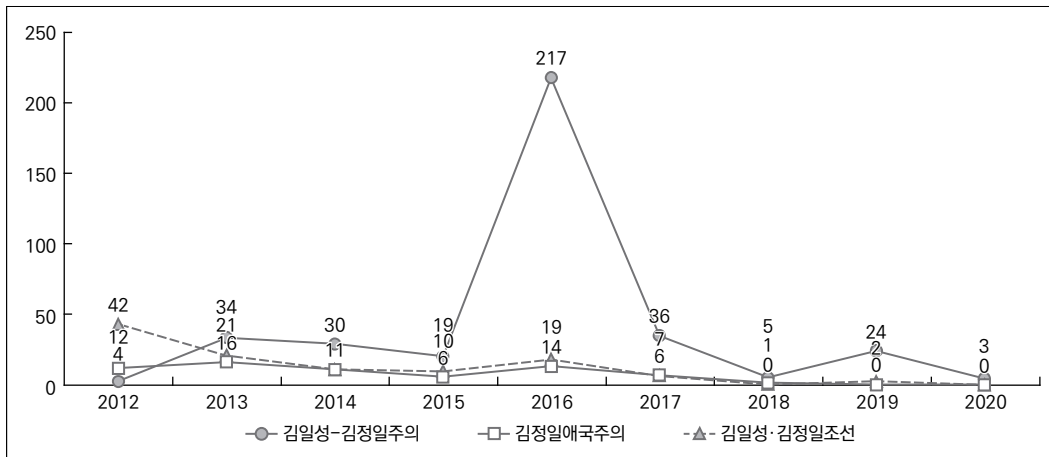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등장 및 변천

- 김정일 위원장 사후 2012년 4월 12일 보도된 제4차 당대표자회의 결정서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처음 등장
- 집권 초기에는 ‘김일성·김정일조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등의 용어를 함께 활용하며 계승, 정통성을 강조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김일성-김정일주의자’, ‘김일성-김정일주의당’,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 200회 이상 언급되었으나, 이후 파생어를 포함하여 그 사용 빈도가 감소

46) “제7차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5.8.

○ ‘김일성-김정일주의’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17〉 ‘김일성-김정일주의’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김일성-김정일조선’의 횟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및 ‘김일성민족’ 단독 언급 횟수 포함

○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서사구조

-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자신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선대지도자들을 사상적 구심점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
-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규정<sup>47)</sup>
- 당규약 서문에도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건설과 당활동의 출발점으로,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한다’고 밝히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확립
-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 ‘김정일애국주의’<sup>48)</sup>
- 2012년 3월 전략로케트사령부 시찰에서 처음 등장한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가

4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결정서,” 『노동신문』, 2012.4.12.

48)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3호 (2013), pp. 187~211.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sup>49)</sup> ‘김정일애국주의의 결정체인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sup>50)</sup> 등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북한 내 모든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상으로 강조

- ‘김정일애국주의’를 북한 정치사상의 ‘5대교양’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점차 확대 재생산<sup>51)</sup>

□ 초기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전략·정책용어: ‘백두’

○ ‘백두’의 등장 및 변천

- ‘백두’는 과거부터 북한의 혁명전통과 혁명의 계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
- 김정은 시대에도 ‘백두산대국의 위엄’,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 ‘백두산대국의 앞길’ 등 북한의 국가성(stateness)과 국가전략을 언급할 때 활용
- ‘백두산 칼바람’, ‘백두의 총대정신’, ‘백두의 혁명정신’ 등 ‘혁명’의 어려움, 고난을 강조하고, 정치군사적 사상의 환기가 필요할 때 ‘백두’를 수식어로 사용
- 2014~2016년에 걸쳐 활용어의 종류와 언급 횟수가 증가

○ ‘백두’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표 II-20〉 ‘백두’ 언급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빈도수	182	211	161	440	269	119	18	67	16	1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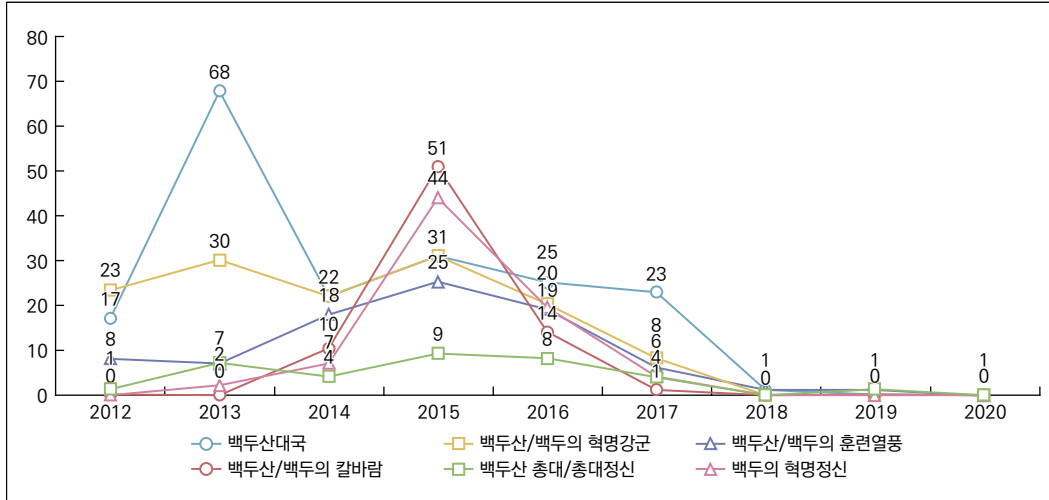
주: ‘백두’의 빈도는 〈그래프 II-18〉의 다양한 활용 용어들의 언급 횟수를 포함.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 진행,” 『노동신문』, 2012.9.26.

5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를 또다시 마련하였다,” 『노동신문』, 2012.12.31.

51) 2014년 6월 13일 려도방어대 시찰에서 언급된 4대교양은 ‘신념교양, 계급교양, 애국주의교양, 도덕교양’이었으나, 2014년 11월 5일 진행된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4대교양 중 애국주의교양이 ‘김정은애국주의교양’으로 변화. 이후 2014년 12월 13일 해군부대 시찰에서 ‘위대성교양’을 더한 ‘5대교양(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을 언급.

〈그래프 II-18〉 ‘백두(산)’을 활용한 주요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백두산OO’과 ‘백두의OO’을 동일 용어로 간주하여 가산

○ ‘백두’의 서사구조

- 집권 초기 ‘백두’는 정통성의 계승을 강조하고 ‘혁명’의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로 많이 사용
- 그러나 2018년부터 ‘백두’에 대한 언급 빈도수가 감소하며, 활용 방식도 기존의 사상적 의미를 내포한 활용에서 단순히 지역을 의미하는 활용으로 변화<sup>52)</sup>
- 『노동신문』을 통한 대내 메시지가 추상적인 사상적 동기 부여 용어 형식에서 실용적이고 현실적 용어 사용으로 바뀌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음.

□ 김정은 통치의 근간이 되는 전략·정책용어: ‘인민대중제일주의’

○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등장 및 변천

- 2013년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처음으로 언급
- 집권 초기 ‘인민대중중심’ 혹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등의 형태로 언급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확립

52) ‘백두산’, ‘백두산전적지구’ 등의 언급이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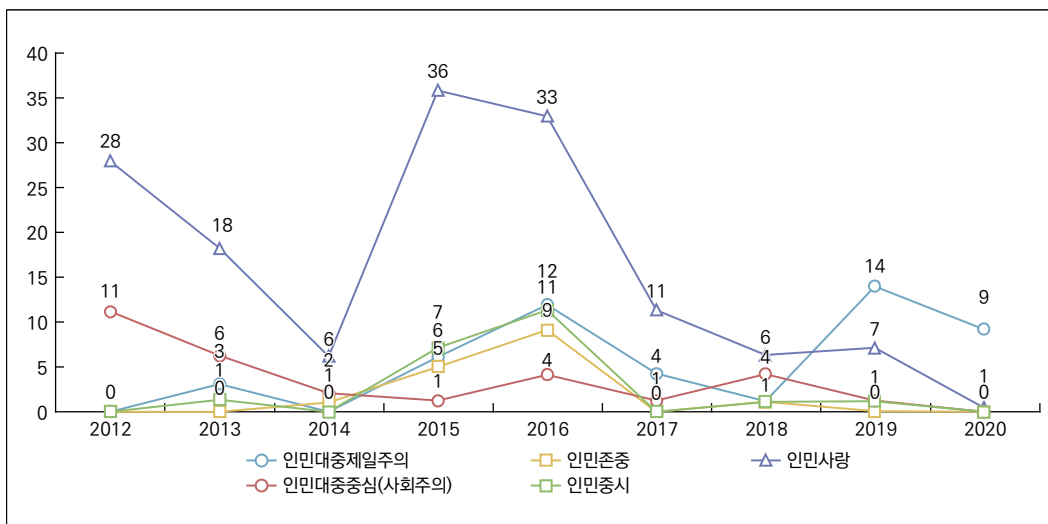


-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도 ‘당사업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 할 것을 강조
- 대부분의 정치적 전략·정책용어가 제7차 당대회 이후 감소한 것과는 달리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2020년 당창건 70주년, 2021년 제8차 당대회 등에서도 계속 강조돼 김정은 시대의 기본 정치방식 또는 통치이념으로 체계화 시도

○ ‘인민대중제일주의’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언급 횟수는 정치적 이벤트와 연동되어 변화, 2016년 제7차 당대회, 2019년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다수 언급

〈그래프 II-19〉 ‘인민대중제일주의’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각종 공연관람보도에서 언급된 ‘인민사랑’이 들어간 노래제목은 제외

○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서사구조

- 2013년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곧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당은 인민을 김일성-김정일과 같이 ‘모시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sup>53)</sup>

53)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 2019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 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며,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2013년 주창한 구호를 다시 한 번 내세움.<sup>54)</sup>
- ‘인민친화적 리더십·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가능<sup>55)</sup>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일과 차별화되는 김정은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인민을 중심에 두는 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철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 등의 파생용어들을 많이 언급
- 공개활동 보도에서 확인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유일한 확장용어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이념’
-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건축물과 도시건설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의 대표 전략·정책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군사·안보·외교분야의 전략·정책용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 ‘병진노선’의 등장 및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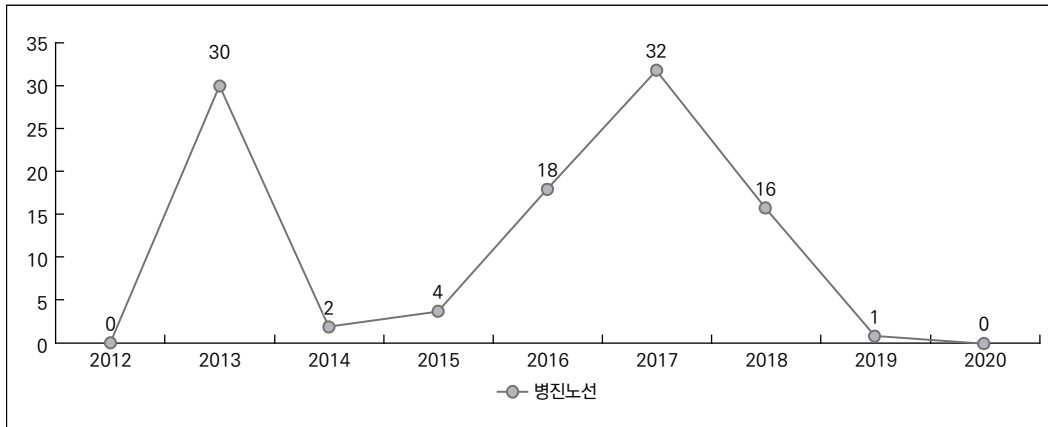
- 1966년 김일성 시대 채택한 ‘경제·국방병진노선’이 첫 사용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
-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2018년 4월 20일 ‘경제·핵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종결) 할 때까지 이 용어를 강조
- 2018년 4월 ‘병진노선’ 종결 선언 이후 공개활동에서는 병진노선에 대한 언급이 사라짐.<sup>56)</sup>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하신 연설, 『노동신문』, 2013.1.30.

- 54)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노동신문』, 2019.4.13.
- 55)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2018), pp. 43~83;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2014), pp. 179~196; 이승열,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비교를 통한 김정은 통치리더십 분석,” NARS 현안보고서, 제259호, 2015.6.25.
- 56) <그래프 II-20>에서 나타나는 2019년 1회 언급은 신년사에서 2018년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언급

○ '병진노선'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0〉 '병진노선'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병진노선'의 서사구조

- 2013년 채택된 경제·핵 병진노선은 '자위적핵무력을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 하는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라 언급, 사실상 핵무기 고도화 선언으로 볼 수 있음.
- '병진노선'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할 전략적노선'으로, 이를 통해 '정치대국, 군사강국,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을 이룰 수 있음.
- 병진노선 선언 이후 핵개발의 대내외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자위적 국방력', '자위적 핵무력', '자위적 핵억제력', '자위적 국방공업' 등의 용어 다수 사용

□ '핵'과 '평화'에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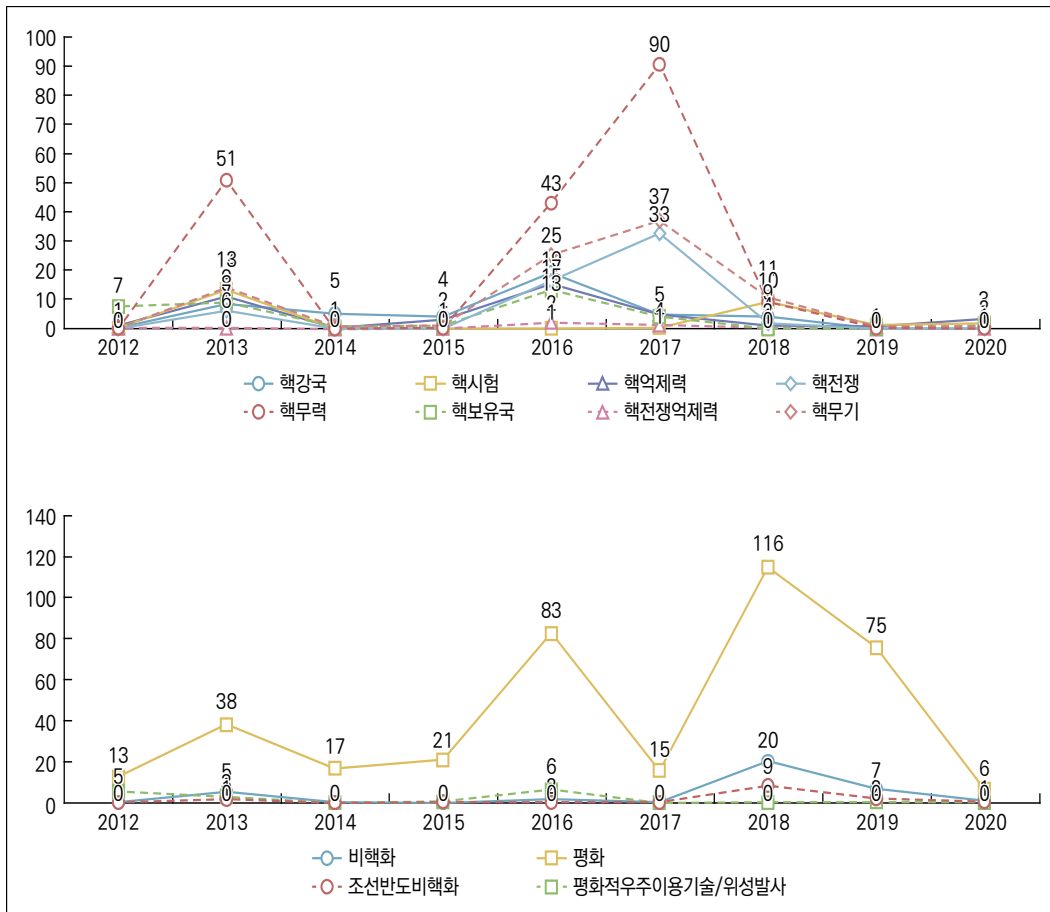
○ '핵'과 '평화' 관련 용어의 등장 및 변천

- 북한은 2005년 '핵보유' 선언을 한 바 있고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김정일 정권의 성과로 '핵보유국' 언급
- 2013년 병진노선 선언을 기점으로 '핵' 관련 용어 사용이 증가
- 2016~2017년 핵무기 개발이 절정에 이른 시기 '핵강국', '핵무력', '핵무기' 등 '핵' 관련 용어들의 종류와 언급이 증가

- 2018년 북미 대화와 함께 정세 전환이 이뤄지면서 ‘핵’ 관련 용어 사용이 감소하고, ‘비핵화’ 및 ‘평화’ 관련 언급이 상대적으로 증가

○ ‘핵’과 ‘평화’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1〉 ‘핵’과 ‘평화’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1) ‘비핵화’의 언급 횟수는 ‘조선반도비핵화’의 언급 횟수를 포함  
 2) ‘평화’의 언급 횟수는 ‘평화적우주이용기술/위성발사’의 언급 횟수를 포함

○ ‘핵’과 ‘평화’ 관련 용어의 서사구조

- 정세 변화를 반영, 2013년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시험’도 당시에는 주로 ‘핵시험 성공’의 용법으로 활용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핵시험 중단’을 언급하기 위하여 등장
- ‘평화’ 역시 집권 초기에는 위성발사 정당화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2018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무대에 나서면서 ‘평화번영’, ‘평화시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으로 용법으로 변화
- 2020년의 경우 북미대화 교착 속에서 대북제재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등 3중고 겪으며 ‘핵’과 ‘평화’ 관련 언급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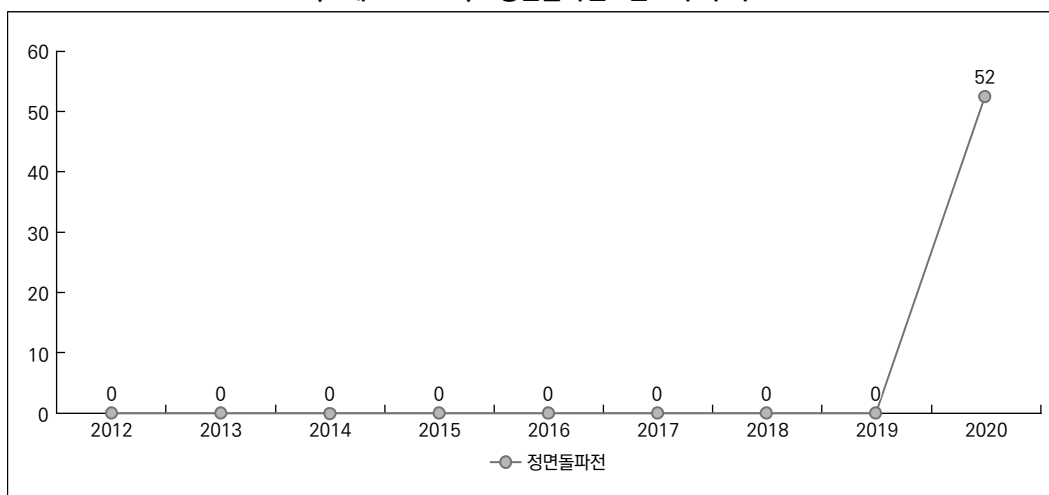
□ 2020년 북한의 새로운 전략·정책용어 ‘정면돌파전’

○ ‘정면돌파전’의 등장 및 변천

- 북미관계 불확실성 속에서 북미관계의 ‘장기전’을 내세우며 2020년 1월 1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포

○ ‘정면돌파전’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2〉 ‘정면돌파전’ 빈도와 추이



○ '정면돌파전'의 서사구조

- 당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서는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고 언급한 동시에,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정면돌파전'이 대내적 경제적 전략·정책용어이자 대외적 정치·군사적 전략·정책용어임을 드러냄.<sup>57)</sup>
- 공개활동 보도에서 대외전략의 기초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 '핵' 관련 용어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현상유지 속 내부결속을 강조하는 '정면돌파전'을 핵심적 전략·정책용어로 볼 수 있음.

다. 경제·사회적 전략·정책용어

□ 김정은 시대 대표 경제적 전략·정책용어 '자력갱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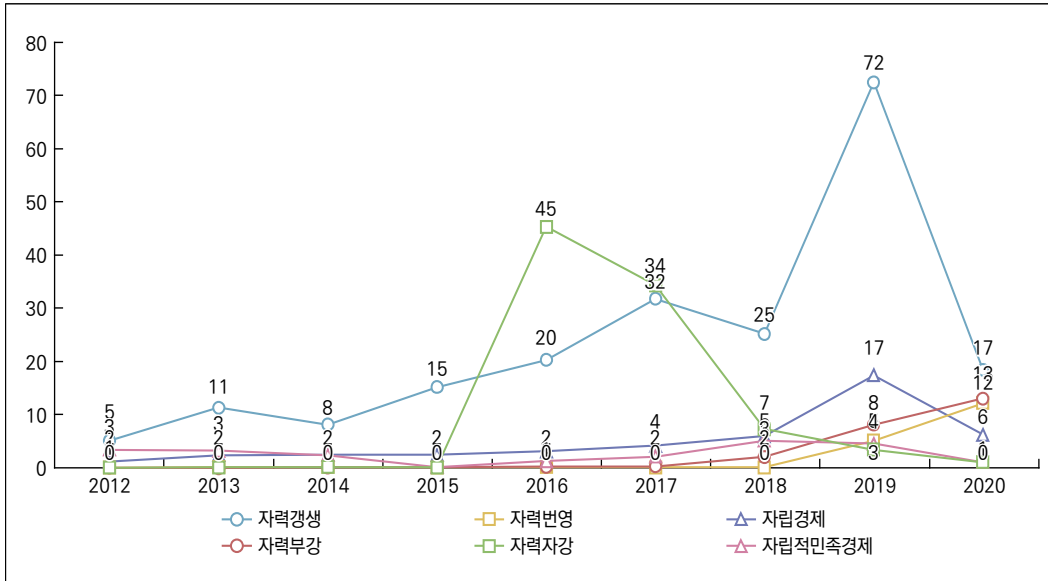
○ '자력갱생'의 등장 및 변천

- '자력갱생'은 김일성 시대 등장 이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
- 2016~2017년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서 '자력갱생' 언급이 증가
-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구호로 내세웠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개최된 4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첫 번째 의정으로 상정
-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서 '자력갱생'과 관련 파생어들이 언급된 것은 2020년 7월까지이며, 2020년 8월 수해피해현장 현지지도 이후에는 언급하지 않음.

57)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밝힌 불멸의 대강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노동신문』, 2020.1.1.

○ ‘자력갱생’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3〉 ‘자력갱생’ 및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자력갱생’의 서사구조

- ‘자력갱생’과 함께 ‘자립경제’, ‘자력자강’, ‘자력부강’ 등 다양한 파생용어가 등장
- 핵무기 고도화가 한창이던 2016~2017년도에는 경제적 의미를 강조하는 ‘자력갱생’보다도 군사적 의미도 포괄하는 ‘자력자강’을 더 많이 언급
- 2018년부터 ‘자력자강’ 언급은 감소하고, ‘자력부강’, ‘자력변영’과 같이 경제적·군사적 함의가 함께 담겨 있는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
  - ‘자력부강’은 2018년 9월 10일 열병식에서 처음 언급, 2019년 10월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기사에서도 언급되는 등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 등장
  - ‘자력부강’과 ‘자력변영’은 대부분의 경우 연속하여 함께 언급
- 2019년 ‘자력갱생’ 강조와 더불어 ‘자립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라는 전략·정책용어의 언급 횟수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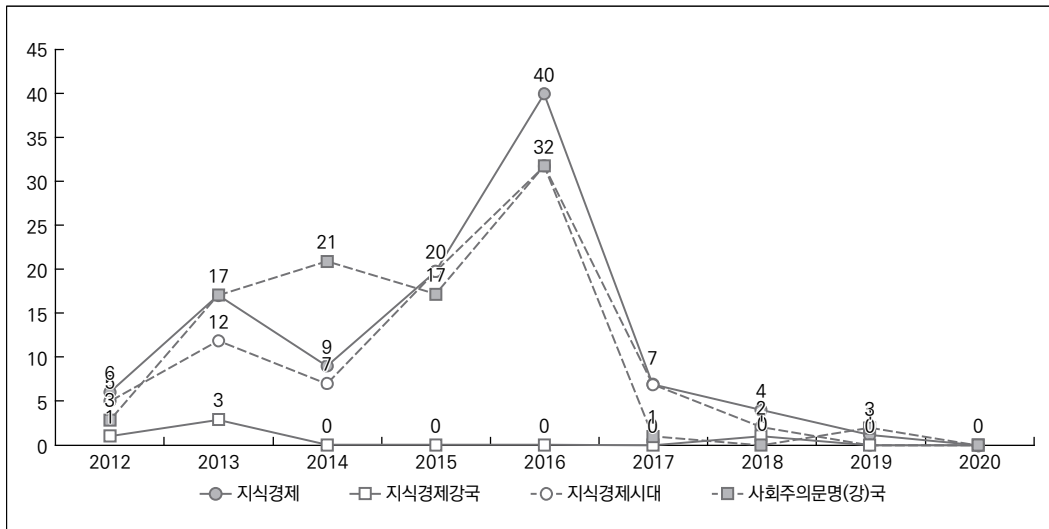
□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

○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등장 및 변천

-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 결정서에서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울 것’을 명기
- 2012년 집권 첫해에 ‘지식경제강국’을 전략·정책의 지향점으로 제시했으나, 그 언급은 제한적이었으며, 주로 ‘지식경제의 기반’,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 일반적 용법으로 사용
-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제7차 당대회까지 꾸준히 언급
-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두 용어의 언급이 급격히 감소, 내부지향적 목표였던 두 용어보다는 핵무기 고도화와 같은 외부지향적 목표에 집중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4〉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 관련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 ‘지식경제강국’ 및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서사구조

- ‘지식경제강국’은 경제적 성장과 과학기술적 성장 모두를 함축



-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이 곧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강국’이며, ‘지식경제’로의 전환은 주체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옴.<sup>58)</sup>
- ‘사회주의문명국’은 도시개발과 미화, 주변 경관 개선 등에서 시작 주민들의 정신·육체·생활의 문명화로 점차 개념적 체계화를 시도
- ‘사회주의문명(강)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것<sup>59)</sup>
- ‘사회주의문명국’은 김정은 집권초기 방문한 다양한 문화·레저·교육 시설 등의 건축 현장 현지지도에서 많이 언급되나, 2017부터 전반적인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의 감소와 더불어 언급이 감소

#### □ 지식경제강국의 토대는 ‘과학기술’

##### ○ ‘과학기술’의 등장 및 변천

- 지식경제시대는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며, 지식경제시대의 강조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도 증가
- 과학기술 발전 방안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sup>60)</sup>가 등장, ‘과학기술강국’, ‘과학기술 중시정책’ 등 관련 용어들도 함께 활용
- 기술증진을 독려하는 전략·정책용어로는 ‘(최)첨단돌파전’을 활용, ‘(최)첨단돌파전’은 ‘우주과학의 최첨단돌파전’,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 등 군사관련 과학기술 및 기계공업기술 증진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용
-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서 ‘과학기술’ 용어의 언급 자체는 2018년 이후에도 유지가 되나, ‘(최)첨단돌파전’은 2018년 이후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음.<sup>61)</sup>

5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노동신문』, 2013.4.2.

59) “신년사,” 『노동신문』, 2013.1.1.

60) “조선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교육사업전반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교육에 힘을 넣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친다,” 『조선중앙통신』, 2013.9.14.

○ ‘과학기술’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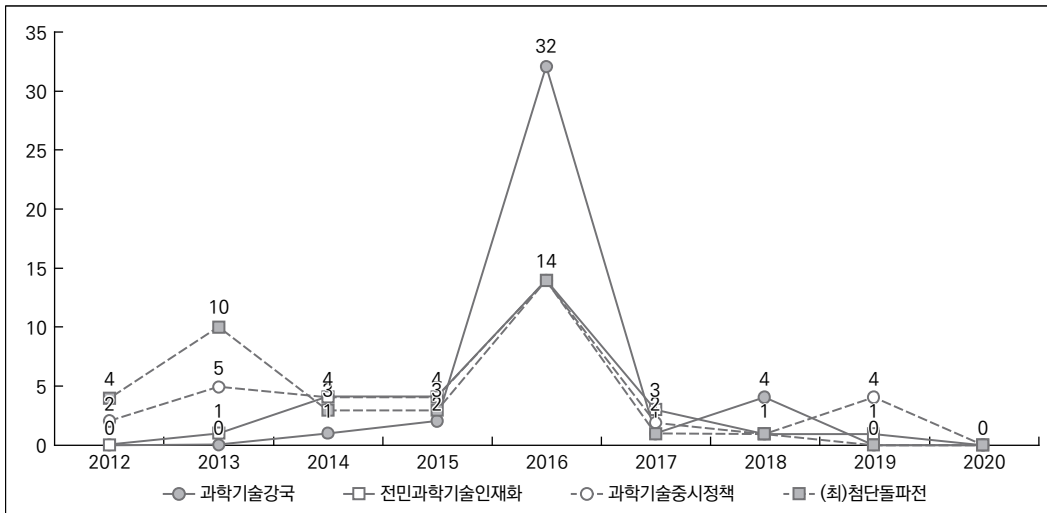
- ‘과학기술’ 단어 자체는 집권시기 전체에 걸쳐 공개활동 보도에서 높은 비중으로 언급되었으나, 파생 전략·정책용어들은 공개활동 보도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음.

〈표 II-21〉 ‘과학기술’ 언급 횟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빈도수	73	108	121	188	366	101	108	56	21	1142

주: 과학기술의 언급 횟수는 〈그래프 II-25〉의 ‘과학기술강국’,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언급 횟수를 모두 포함

〈그래프 II-25〉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주: ‘과학기술중시정책’의 횟수는 과학기술중시 ‘정책’, ‘사상’, ‘노선’, ‘기풍’ 등을 모두 포함

○ ‘과학기술’ 관련 용어의 서사구조

-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전당’ 건설, 각 기업소에 ‘과학기술보급실’의 적극적 운영을 독려하는 등 과학기술의 확산을 강조
- ‘과학기술중시’는 군사적 의미와 산업·경제적 의미를 모두 내포하나, 공개활동에서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 질적 제고를 독려하는 활용보다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로 더 많이 활용

61) 2018년에 언급된 ‘첨단돌파전’은 신의주화장품공장 현지지도 당시 언급된 것으로, 그간 군부대 시찰 및 중공업 분야와는 다른, 민간경제에서의 기술개발을 주문하기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 2018.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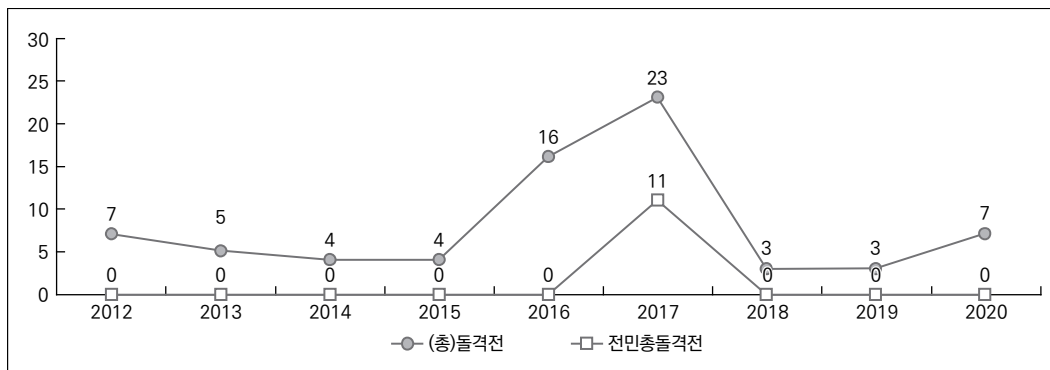
□ 사회동원을 위한 전략·정책용어: ‘돌격전’

○ ‘돌격전’ 관련 용어의 변천 및 서사구조

- 경제운동 및 내부결속 차원에서 주민 동원을 중요시, 전통적으로 ‘돌격전’ 혹은 ‘총돌격전’은 선전선동 용어 또는 전략·정책용어를 수사하는 용어로 사용
-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용어는 ‘전민총돌격전’으로, 2017년 신년사에서 처음 등장,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의 결정 내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강조한 용어<sup>62)</sup>
- 공개활동 보도에서 ‘돌격전’은 집권시기 동안 꾸준히 언급되나, ‘전민총돌격전’은 2017년에만 언급<sup>63)</sup>
- ‘전민총돌격전’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은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일정한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돌격전’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6〉 ‘돌격전’ 관련 용어 빈도와 추이



주: ‘(총)돌격전’의 횟수는 ‘전민총돌격전’의 횟수를 포함

62) 2017년 김정일 탄생기념 중앙보고대회와 관련한 『노동신문』 보도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함.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온 나라에 (후략).”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돛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노동신문』, 2017.2.16.

63) 2018년에도 ‘전민총돌격전’이 『노동신문』에서 언급되나, 공개활동 보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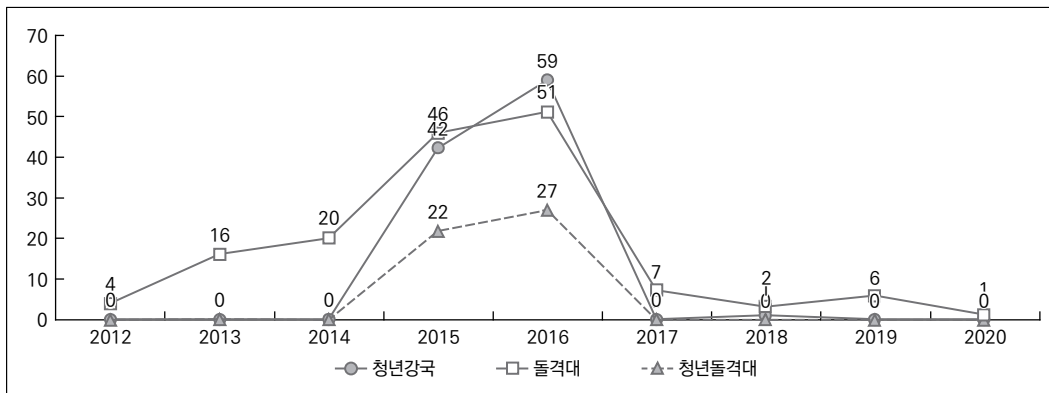
□ 사회동원을 위한 전략·정책용어: '청년'

○ '청년' 관련 용어의 등장 및 서사구조

- 2015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sup>64)</sup> 현지지도 보도에서 처음으로 '청년강국', '청년돌격대'라는 용어 등장
- 이후 '청년'에 대한 강조가 2015~2016년 두 해에 걸쳐 크게 늘어남.<sup>65)</sup>
- 대부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과 2016년 개최된 '제9차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회'와 관련된 언급으로, 발전소 건설과 7차 당대회 결정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강조가 단기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임.

○ '청년'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7〉 '청년강국'과 '청년돌격대' 빈도와 추이



주: '돌격대' 언급 횟수는 '청년돌격대' 언급 횟수를 포함

64) 당시 이름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로 개관 시 '영웅청년발전소'로 명칭 변경

65) 2018년은 열병식에서 청년들이 내세운 구호로서 1회 언급됨.

라. 시대를 반영 또는 규정한 전략·정책용어

(1)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속도’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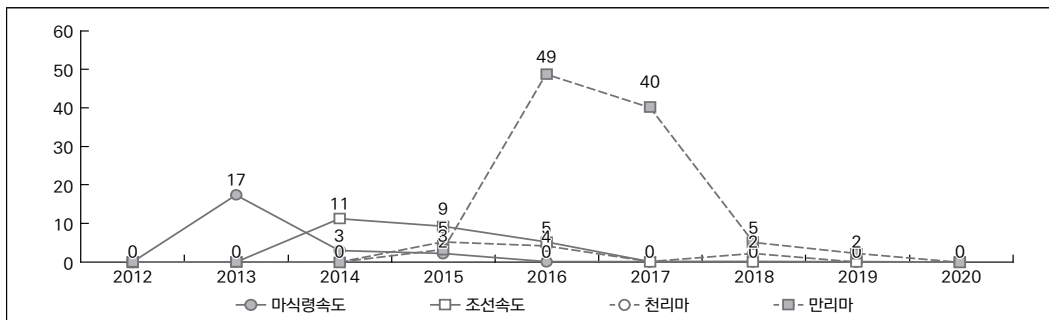
□ ‘마식령속도’와 ‘만리마속도’

○ ‘속도’ 관련 용어의 등장 및 변천

-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처음 등장한 ‘속도’ 관련 강조 용어는 2013년 ‘마식령속도’
  - 2012년 ‘일당백공격속도’라는 용어가 1회 등장하나, 언급만 있을 뿐 속도에 대한 시대적 정의는 나타나지 않음.
- 2013년 5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 한 뒤, 6월 5일자 『노동신문』에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sup>66)</sup>을 기고하면서 ‘마식령속도’가 확산
- 2014년은 ‘마식령속도’에 대한 언급이 줄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라는 용어가 등장
- 2015년 4월 22일 원산육아원, 애육원 현지지도에서 ‘만리마’ 용어가 첫 등장
- 2015~2016년 ‘천리마, 만리마속도’, ‘새로운 천리마, 만리마 시대’를 혼용
-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천리마와 만리마의 병행이 사라지고, ‘만리마속도’가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로 확립<sup>67)</sup>

○ ‘속도’ 관련 용어 빈도 및 추이 변화

〈그래프 II-28〉 김정은시대 속도를 나타내는 전략·정책용어 빈도와 추이



66) 본 호소문은 공개활동 기사수에 포함되지 않음.

67) 2016년 이후 ‘천리마’에 대한 언급은 주로 과거 ‘천리마대고조시기’를 기억해야한다는 의미로 사용

○ ‘속도’ 관련 용어의 서사구조

-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속도’ 용어 창출을 초기부터 시도, 2013년 ‘마식령속도’가 등장하였으며, 이후 건축 현장 현지도 등에서 다수 언급
- 김정은 위원장은 2014년 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마식령속도와 같은 시대어를 계속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sup>68)</sup>
- ‘마식령속도’의 본격 사용은 한 해에 그치고, 이후 ‘만리마속도’가 시대어로 등장
-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만리마시대’를 ‘10년을 1년으로 내달리는 시대’<sup>69)</sup>로 규정, 김정은 시대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천리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시대로 정의하는 데 활용
-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시대를 ‘만리마시대’, ‘만리마신화’ 등의 용어로 표현

□ 김정은 시대를 설명하고 규정하는 용어

○ 시대용어의 등장 및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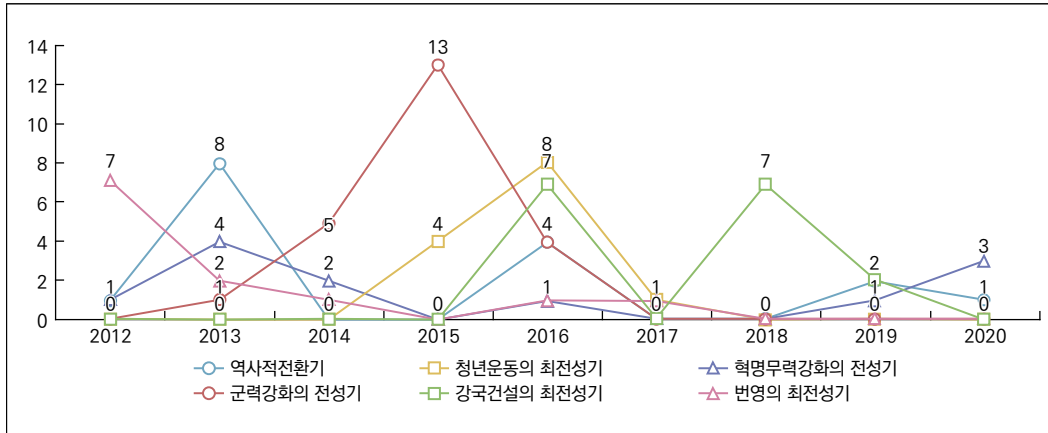
- 시대를 정의하는 용어는 해당 시기 중요 정치행사, 결정, 대외 정세 변화 등에 따라 등장 빈도와 활용이 다르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일정하게 보여줌.
- 김 위원장 집권 초기인 2013년에는 ‘전환기’라는 표현(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사적 전환기, 선군혁명위업의 역사적 전환기 등)이 많이 사용됨.
- 이후 제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에 다시 한 번 ‘전환기’라는 표현이 등장, 당대회를 기점으로 통치 차원의 변화를 추구
- 2012년에는 ‘번영’, 2015년에는 ‘군력 강화’, 2015~2016년에는 ‘청년’을 강조
- 2018년은 ‘강성국가·강국’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종천선의 새로운 전성기’와 같이 북중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도 등장

6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노동신문』, 2014.2.26.

69) “제7차당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5.8.

○ 시대용어의 빈도 및 추이변화

〈그래프 II-29〉 시대를 나타내는 용어의 빈도와 추이



주: 1) '강국건설'은 강성국가건설, 사회주의강국건설, 주체강국건설 등을 모두 포함  
 2) '번영'은 조국번영, 강성번영, 융성번영 등을 모두 포함

(2) 공개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정책용어

□ 현지도 기사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 '지방'

○ '지방'의 등장 및 서사구조

- '자력·자립'을 강조하는 정책 지향에 맞춰 '지방' 언급이 꾸준히 나타남.
  - '지방공업을 급속히 발전'70),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71), '지방건설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72) 등 각종 정치회의 및 현지도에서 지방 스스로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이 성장해야한다는 것을 강조
- 김정은 위원장이 많은 관심을 보인 '지방' 중에 하나인 삼지연군은 '공산주의이상향', '공산주의이상도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 특징이 있음.

70)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창성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노동신문』, 2013.6.14.

71)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201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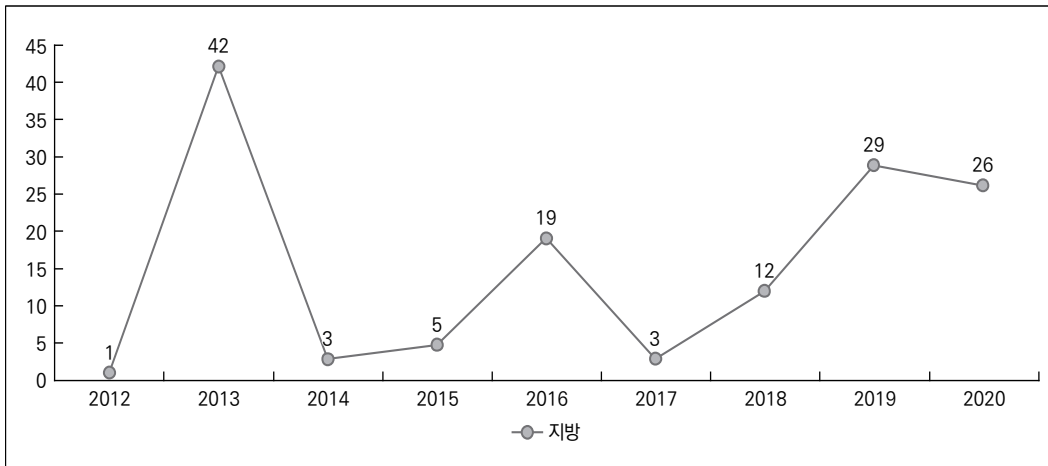
72) "위대한 당의 령도와 전인민적애국충정으로 천지개벽된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군 읍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노동신문』, 2019.12.3.

- 2018년 삼지연군을 현지도하며 삼지연군의 미래상을 ‘공산주의 이상향’, ‘공산주의 이상도시’라고 언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삼지연은 ‘산간의 이상도시’, ‘산간문화도시의 전형’, ‘인민의 이상향’ 등으로 표현됨.<sup>73)</sup>
- 공개활동 보도 외 전체 『노동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여명거리를 언급하며 ‘공산주의 이상거리’<sup>74)</sup>라고 칭하는 등 김정은 시대의 대상건설에서는 ‘공산주의’를 지향점으로 언급

○ ‘지방’의 빈도 및 추이변화

- 집권 초기인 2013년 권력 안정화를 위하여 가장 많은 공개활동 횟수를 기록한 만큼, ‘지방’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음.
- 이후 최근 삼지연, 원산 등 지방 주요 도시 개발 및 2020년 수해복구 현장 현지도 등으로 인하여 지방에 대한 언급이 증가

〈그래프 II-30〉 ‘지방’ 빈도와 추이



73) 김정은 위원장의 삼지연 방문은 2013년 1회, 2016년 1회, 2017년 1회, 2018년 3회, 2019년 3회 총 9회 보도되었으며, 2018년 ‘공산주의 이상향/이상도시’라는 언급(2018년도 총 3회 언급)은 2019년 ‘인민의 이상향/이상도시’로 변화(2018년 3회, 2019년 5회 언급)

74) “만리마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완공의 그날을 앞당긴다.” 『노동신문』, 2017.2.5.



□ 2020년도를 상징하는 용어: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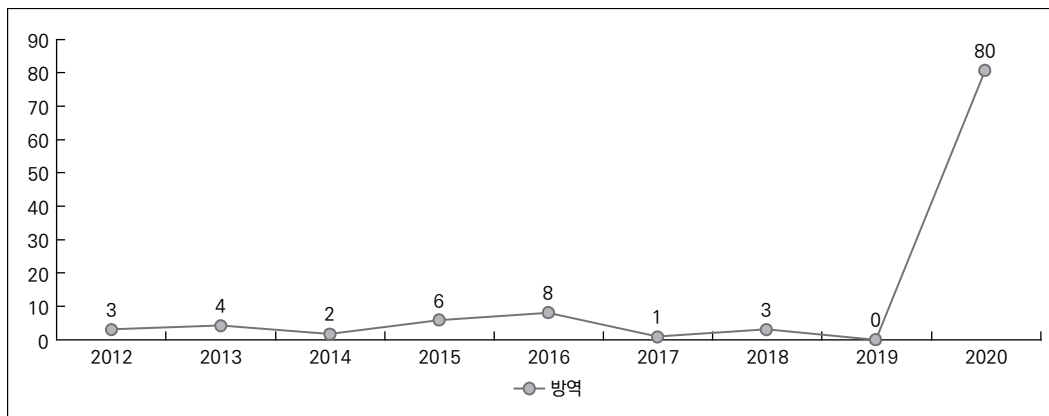
○ ‘방역’의 등장 및 변천

- 기존 공개활동 보도에서 ‘방역’은 축산업 현지지도 시 ‘수의 방역’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보건부문에서는 위생방역기관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sup>75)</sup>와 같이 보편적 의료체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에서도 ‘방역’이라는 용어가 급증
- 2020년 2월 29일 당중앙위 정치국확대회의에서 ‘초특급방역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언급한 이후, ‘초특급방역조치’, ‘비상방역’, ‘방역전초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용어 급증<sup>76)</sup>

○ ‘방역’의 빈도 및 추이변화

- 코로나19로 인하여 과거 한자리 수에 불과했던 ‘방역’의 언급 횟수가 80회로 증가

〈그래프 II-31〉 ‘방역’ 빈도와 추이



주: 위의 숫자는 축산업 관련 내용과 질병 관련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계산한 것이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같이 고유명사에 대한 언급도 모두 포함

75)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 『노동신문』, 2016.5.9.

76) 『노동신문』 전체에서는 1월 26일 박명수 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명의로 나온 기사에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언급이 국내 방역대책에 대한 첫 언급이었음.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철저히 막자,” 『노동신문』, 202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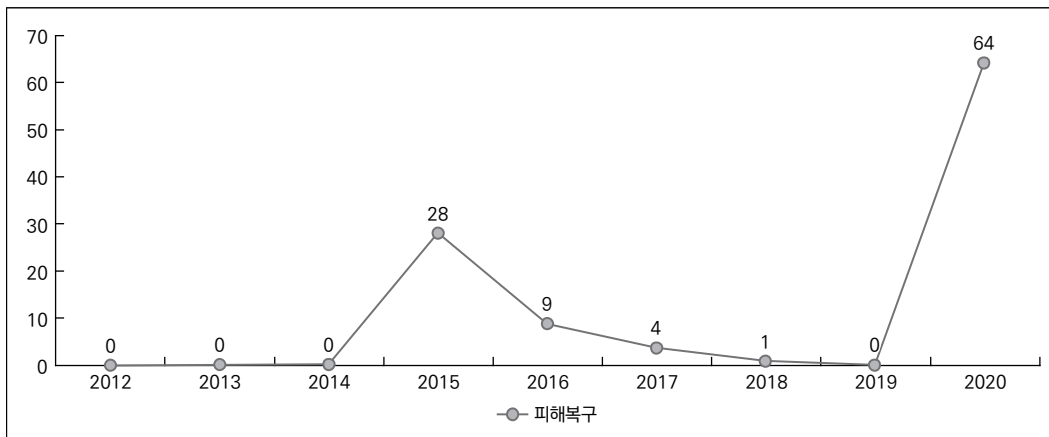
□ 2020년도를 상징하는 용어: ‘피해복구’

○ ‘피해복구’의 등장 및 서사구조

- 2015년에는 ‘라선시큰물피해복구’, 2016년에는 함경북도의 ‘북부피해복구전선’ 등 큰 수해를 입은 시기에 ‘피해복구’라는 용어가 등장
- 2020년 하반기, 큰 홍수와 태풍 피해를 겪으면서 ‘피해복구’ 용어가 재등장
  - 2020년 8월부터 5개월간 ‘피해복구’라는 용어가 64회 언급됨.
- 2015년 ‘나선시큰물피해복구’ 당시 2회 현지지도 보도를 한 것(2015.9.18., 2015.10.8.)과는 달리 2020년에는 총 8회 보도,<sup>77)</sup> 평양시 당원들에게 피해복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 등을 발표하는 등 피해복구에 적극적으로 임함.
- 『노동신문』 보도내용 역시 피해규모를 명확한 수치로 언급하여 지난 2015, 2016년 공개 활동보도에서 언급된 피해복구 기사와는 다른 경향을 보임.

○ ‘피해복구’의 빈도 및 추이변화

〈그래프 II-32〉 ‘피해복구’ 빈도와 추이



주: 2017년과 2018년은 2016년 ‘북부피해복구전투’의 성과를 언급하는데 등장

77) 2020.8.7., 2020.8.28., 2020.9.6., 2020.9.12., 2020.9.15., 2020.10.2., 2020.10.14., 2020.10.15.

#### 마. 정책적 함의

- 공개활동에서 언급되는 전략·정책용어는 연도별 공개활동 보도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용어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향을 보임.
  - 선대로부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어는 집권 초기 특히 2013년에 많이 나타남.
    - 예 : 강성국가, 김정일애국주의 등
  - 2016년 제7차 당대회는 선대와는 차별화되는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가 많이 언급됨.
    - 예 : 인민대중제일주의, 과학기술강국 등
  - 2018~2019년 대외관계 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대내적 동원을 위한 전략·정책용어의 언급 횟수는 감소하는 반면, ‘비핵화, 평화, 자력갱생’ 등의 용어 언급 횟수는 증가
- 공개활동에서 언급된 전략·정책용어를 기반으로 김정은 시기를 나누다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음.
  - 2012~2013년은 선대의 유훈을 받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시기
  - 2014~2015년 자신만의 노선·정책을 모색하여 이를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확립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2019년 대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외 정세에 대응한 용어가 등장
- 2020년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해
  -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북한의 전략·정책은 ‘비상방역체계’를 중심으로 설정
  - 예년과 비교하였을 때 절반 수준에 미치는 공개활동 횟수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추정할 수 있음.
  - 2020년 8월 수해 및 태풍 피해로 하반기의 모든 사회적 자원이 피해복구에 동원됨에 따라 방역, 피해복구 외의 다른 전략·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짐.

### 3. 소결

-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전략·정책용어는 주로 당대회나 신년사, 김정은 주재 주요 회의를 통해 제기
  -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사실에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는 김정은의 발언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 김정은시대 전략·정책용어들은 전환점이 되는 당대회를 기점으로 제시·확장된다고 할 수 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 전후 또 다른 전략·정책용어군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5년 주기 당대회마다 추가 조사로 확인이 필요
  
- 선대와의 계승성 강조 용어에서 김정은 독자적 통치를 강조하는 용어로의 변화
  - 김정은 시대 초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과 계승성을 강조하는 전략·정책용어를 통해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부터 김정은 자신의 독자적 통치스타일에 맞는 용어를 만들어 나감.
  
- 김정은 공개활동 감소와 전략·정책용어의 수적 감소 연관성
  - 김정은의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지도자의 지적사항, 과업제시 등이 이후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전략·정책용어화되는 경향이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2~2015년 사이 매년 150~240여 회 수준의 공개활동 보도가 있었으나,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에는 70~90여 회 수준
  - 공개활동 감소에 따라 현장 지도를 통해 나오는 문제지적이나 과업 제시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 전략·정책용어 탄생의 발화 기회가 줄어들.
  
- 공개활동에서 언급된 전략·정책용어를 기반으로 김정은 시기를 나눈다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음.
  - 2012~2013년은 선대의 유훈을 받고, 정통성을 확보하는 시기
  - 2014~2015년 자신만의 노선·정책을 모색하여 이를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확립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2019년 대외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대외 정세에 대응한 용어가 등장

○ 김정은 시대를 규정하는 용어의 변화

- 시대를 정의하는 용어는 해당 시기 중요 정치행사, 결정, 대외 정세 변화 등에 따라 등장 빈도와 활용이 다르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일정하게 보여줌.
- 2012~2015년에는 ‘전성기’, ‘번영기’ 등이, 2016~2017년에는 ‘군력강화기’, ‘만리마 시대’ 등이, 2018년 이후에는 ‘대전환기’, ‘격변기’ 등을 사용
- 2018년은 ‘강성국가·강국’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중친선의 새로운 전성기’와 같이 북중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도 등장

### III 『우리민족끼리』에 나타난 전략·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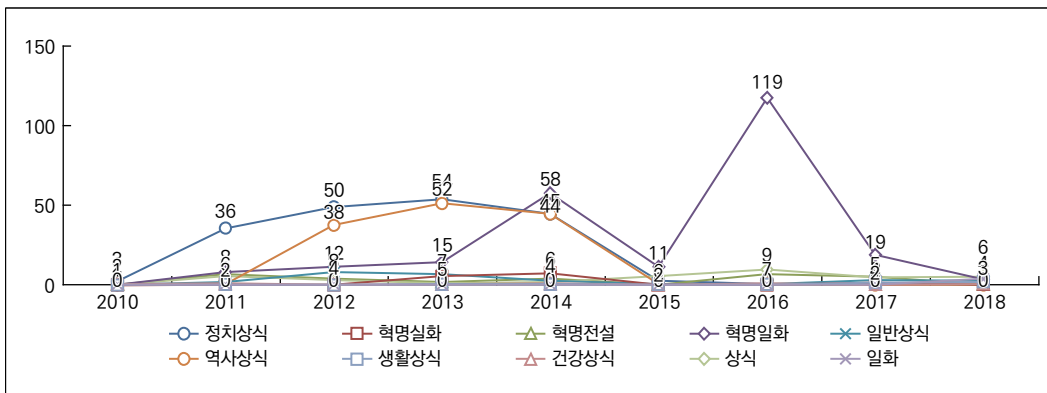
강채연

#### 1. 개관 및 분석방법

##### □ 『우리민족끼리』 개관

-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외선전매체로 2010년에 처음 개설되었으나 2018년까지 약 8년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음.
  - 2018년까지 주로 정치상식, 혁명일화, 상식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았고 대남·대외 관련 내용은 결여

〈그래프 III-1〉 2010~2018년 『우리민족끼리』 기사유형



- 2010~2020년 전체 기사건수는 7,248건으로, 그 중 약 90.8%에 해당하는 6,582건이 2019~2020년에 실린 기사
- 2019년에 들어 『우리민족끼리』는 기사유형을 대폭 개편하고 '혁명성'과 역사, 상식과 같은 '일반성' 기사들에서 국내외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괄하는 대남선전매체로 활약하기 시작
  - 이에 따라 2019년에 기사유형은 보도, 논평, 투고, 인입기사, 단평, 수필, 문답, 반향, 사설, 논설, 기고 등을 포함하여 28개의 유형으로 확대

- 2020년에는 2019년의 일부 기사유형들을 제외하고 새롭게 13건의 기사 유형들을 추가 하면서 한국의 국내 정치현안이나 언론소식, 민간단체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전달 및 평가
- 동시에 북한의 발전상과 변화상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수행

〈표 III-1〉 2019~2020년 『우리민족끼리』 기사유형

구분	2019년(신규)	소멸	2020년(추가)
2018년 계승	혁명일화, 상식, 일화		혁명일화, 정치상식, 상식, 일화
기사 유형	기사(소개기사), 보도, 논평, 투고, 인입기사, 단평, 명언 해설, 명제, 사진과 글, 반향, 반영, 수필, 문답, 사진묵음, 만필, 격문, 단상, 연재, 사설, 논설, 해설, 기고, 공동결의문, 공동호소문, 선언문, 수기, 참관기	사설, 논설, 해설, 기고, 공동 결의문, 공동호소문, 공동성명, 선언문, 수기	만평, 고발장, 시, 성토문, 평론, 취재기, 편지, 연단, 실화, 대담, 일기, 독자편지

- 대남선전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남·대외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은 전체 기사의 약 5.3%를 차지하는 355건에 불과함.
  - 이는 2019~2020년 전체 기사 중 남북, 북미, 북일, 북중관계를 포함하는 대남·대외정책 관련 기사들이고,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비판기사들과 북한관련 기사들을 제외한 결과
  - 2020년에는 특별히 북한의 내부소식을 소개·선전하는 기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
  - 북한의 대남매체로 기능하는 전문매체는 『통일신보』로, 『우리민족끼리』의 부속매체 기능, 『통일신보』에 포함된 기사건수(2019~2020)는 337건임.
- 이 외에도 『우리민족끼리』는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과 같이 북한 주요 국내매체들에 실린 기사들의 일부를 다루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음.
- 분석방법
- 상술한 결과들로 볼 때,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들을 통해 김정은 시대 국내외 핵심 전략과 정책들을 추적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우선 분석 텍스트로 활용되어야 하는 기사들이 2019~2020년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시기별 전략정책용어들의 전략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한계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민족끼리』(『통일신보』 포함)에 등장하는 주요 전략정책용어들을 먼저 추출하고, 용어의 등장에 따른 시계열 의미를 2012~2020년 『노동신문』 기사들과 연계하여 분석
- 분석방법으로는, △주요 전략·정책용어들을 정치, 경제, 사회, 군사·통일 부문으로 나누고, △각 용어들을 대표하는 핵심키워드(어근)를 중심으로 2차 분류한 데 기초하여, △해당 용어들의 빈도수와 등장·소멸, 증감추이, 의미 등을 분석함.<sup>78)</sup>
-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하는 전략·정책용어들을 각 분야별로 유형화했을 때 나타나는 핵심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정치부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국가, 사상, 정신, 시대
  - 경제부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자력, 전략자산, 자립, 속도, 과학
  - 사회부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인민, 문명, 청년, 군민, 자존
  - 군사·통일부문에서 핵심 키워드는 군사, 민족, 적대, 평화, 화해

## 2. 주요 전략·정책용어

### 가. 정치부문: 국가, 사상, 신념, 시대

#### □ 국가 및 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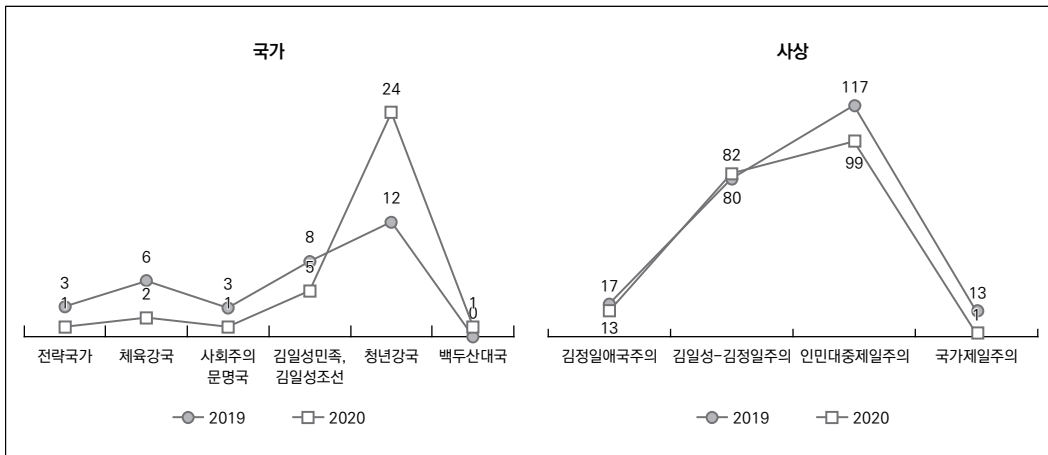
- ‘국가’와 관련된 전략용어는 ‘전략국가’, ‘체육강국’, ‘사회주의문명국’, ‘김일성민족·김일성조선’, ‘청년강국’, ‘백두산대국’임.

78) 2차 분류에 따른 핵심 키워드는 『우리민족끼리』 텍스트분석에서 도출된 전략정책용어들을 대상으로 분류한 것임.



- ‘청년강국’은 2015년 5월 『노동신문』에서 처음 등장하여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함께 최고의 빈도수를 보였고 2017년부터 꾸준히 감소한 반면, 2020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24회로 『노동신문』의 2회를 추월
- ‘백두산대국’은 2018년부터 북한 매체들에서 언급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전략 용어인데 2020년 『우리민족끼리』에 등장
- ‘청년강국’과 ‘백두산대국’을 제외하고 ‘체육강국’, ‘사회주의문명국’, ‘김일성민족·김일성조선’에 대한 중요도가 2020년에 확연히 감소

〈그래프 III-2〉 국가·사상을 대표하는 전략·정책용어와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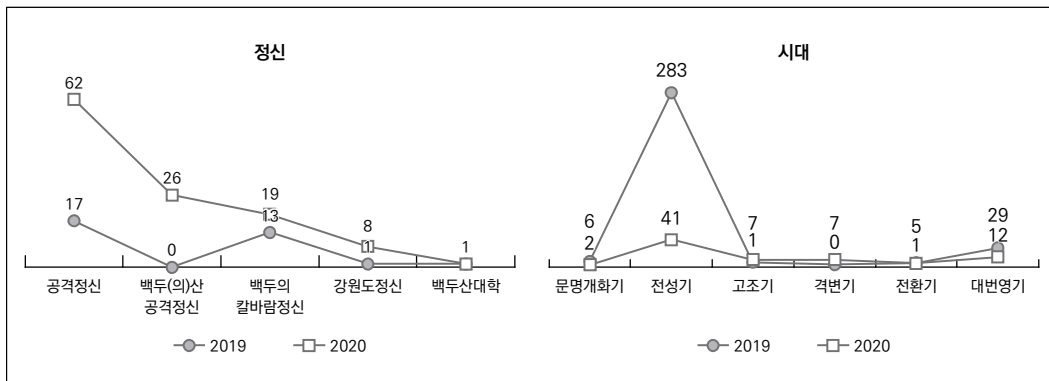
- ‘사상’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는 ‘김일성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제일주의’임.
-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9년에 117회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소폭 낮아진 경향을 보임. 이는 『노동신문』과 비교할 때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로, 2019년(297회)에서 2020년(335회)으로 가면서 언급 횟수가 높아짐.
-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북한매체에 등장한 전략용어로, 북핵문제로 인한 고강도 제재와 북미갈등이 고도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등장, 2019년에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2020년에 들어 급격히 감소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019~2020년 『노동신문』 기사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끼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언급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연관어로 강조되기 때문임.<sup>79)</sup>
- 전체적으로 2019~2020년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국가제일주의’ 순으로 중요도가 관찰

□ 정신·시대

- ‘정신’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는 ‘백두산공격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원도정신’, ‘백두산대학’임.
- ‘백두산대학’은 2019년에 등장한 용어로 백두산답사행군을 통해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따라 배운다는 상징어로 등장
- ‘강원도정신’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언급 횟수가 높아진 편, 이는 『노동신문』과 비교할 때 반대되는 결과임. 실제로 『노동신문』에서는 2016년 ‘강원도정신’이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동시에 등장한 이후로, 2017년 최고의 빈도수(796회)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빠르게 급감함.
- 전체적으로 ‘정신’과 관련된 용어들의 빈도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정면돌파전’ 시기에 더 높아진 편

〈그래프 III-3〉 정신·시대를 대표하는 전략·정책용어와 빈도수



79)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우리민족끼리』, 2020.6.3.

- ‘시대’를 상징하는 전략·정책용어는 ‘문명개화기’, ‘전성기’, ‘고조기’, ‘격변기’, ‘전환기’, ‘대변영기’가 대표적임.
  - 2019년에는 ‘전성기’에 대한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대변영기’, ‘문명개화기’ 순임.
  - 2020년에는 ‘전성기’에 이어 ‘대변영기’, ‘고조기’, ‘격변기’에 대한 언급 순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비해 ‘문명개화기’, ‘전환기’에 대한 언급은 약화됨.
  - 『노동신문』에서 ‘전환기’에 대한 언급은 2012년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크게 강조되었으나 점차 감소하면서 2016년을 전후로 ‘전성기’, ‘격변기’, ‘고조기’ 등과 교차되는 경향
  - 특히 대북제재, 비핵화회담불발, 경제난 등과 함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사업에서의 ‘새로운 전성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전성기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아진 결과

#### 나. 경제부문: 자력, 전략자산, 자립, 속도,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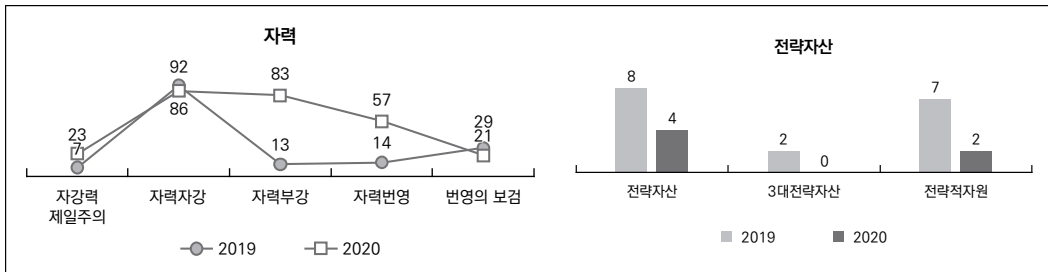
##### □ 자력·전략자산

- ‘자력’으로 대표되는 전략·정책용어는 ‘자강력제일주의’, ‘자력자강’, ‘자력부강’, ‘자력번영’, ‘번영의 보검’과 같은 용어들임.
  - ‘번영의 보검’은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용어로 2019년 북미협상이 결렬된 이후로 여러 형태의 자력정책을 강조하면서 증가
  - ‘자강력제일주의’에 비해 ‘자력자강’이나 ‘자력부강’, ‘자력번영’에 대한 빈도수가 높은 편, 특히 2019년에 비해 2020년 정면돌파전에서는 ‘자력번영’과 ‘자력부강’에 대한 언급이 최소 4배에서 최고 6배 이상 증가
  - ‘자력부강’은 2017년, ‘자력번영’은 2018년 『노동신문』에서 등장하였고, ‘번영의 보검’은 2020년에 줄어든 반면,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증가한 편
- ‘전략자산’은 2016년 북한에 대한 유엔 및 미국제재에 대응하여 언급되기 시작한 용어임.
  - 초기 한미핵전략자산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되어, 북한의 3대 전략자산(황금산, 황금벌, 황금해)과 비교평가차원에서 언급,<sup>80)</sup> 2019년은 2020년에 비해 전략자산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강조

80)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상징,” 『우리민족끼리』, 2019.12.6.

- '전략적자원'은 2019년에 과학기술+인재의 의미에서 새롭게 정의한 전략용어로, 자립경제건설과 국가발전에서 과학기술과 인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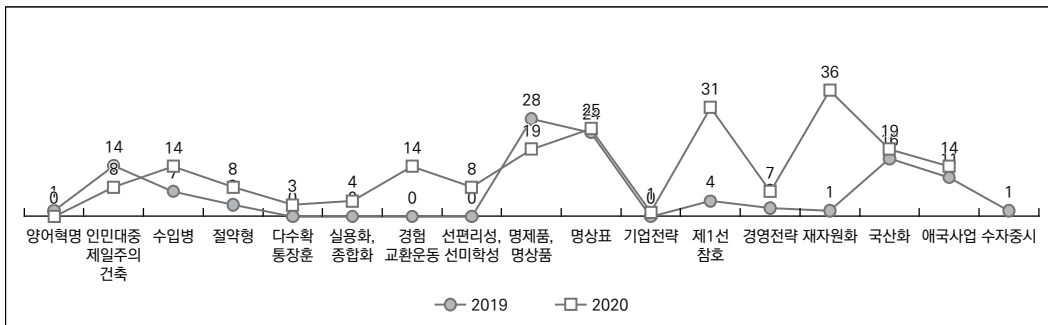
〈그래프 Ⅲ-4〉 '자력'부분 핵심용어와 빈도수



□ 자립

- '자립'은 국산화, 재자원화정책들을 바탕으로 수입병을 배격하고 산업부문별 자립정책의 성과와 과제, 전략들을 대표
  - '자립'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은 대체로 강력하게 '수입병'을 배격하고 과학화, 국산화, 세계화, 문명에 초점을 맞춘 경제·경영·생산정책들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등장한 시대어들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농업(제1제대, 제1선참호), 재자원화에 대한 빈도수가 수십 배로 증가하고, 교육(실용화, 종합화), 경공업, 과학, 절약과 관련된 언급들도 증가
  - 단순 빈도수로 볼 때, 경제관리정책에 있어서는 기업전략보다 경영전략을 더 중요하게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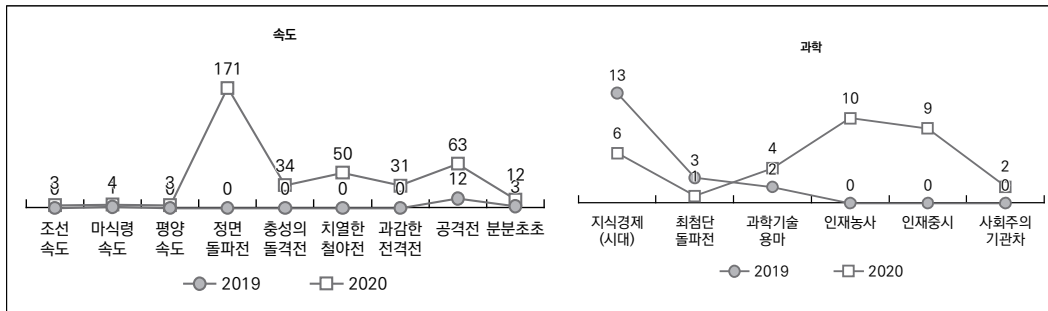
〈그래프 Ⅲ-5〉 '자립'부분 핵심용어와 빈도수



□ 속도·과학

- ‘속도’는 오랫동안 북한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작동하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점차 그 중요도가 감소하는 추세임.
  - 2020년은 ‘정면돌파전’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임.
  - 동시에 황해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 지역들에서 대규모 큰물피해로 인한 복구사업들에 군인들을 포함하여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총동원하면서 ‘충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과 같은 용어들을 강조

〈그래프 III-6〉 ‘속도’, ‘과학’ 부문 핵심용어와 빈도수



- ‘과학’부문에서 주요 전략·정책용어는 ‘지식경제시대’, ‘최첨단돌파전’, ‘과학기술용마’, ‘인재농사’, ‘사회주의기관차’ 등임.
  - 2019년에는 ‘지식경제시대’, ‘최첨단돌파전’과 같이 거시적인 전략·정책용어들이 우위였다면, 2020년에는 ‘인재농사’, ‘인재중시’와 같이 세부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이는 과학기술과 인재가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핵심 키워드라는 북한의 전략을 반영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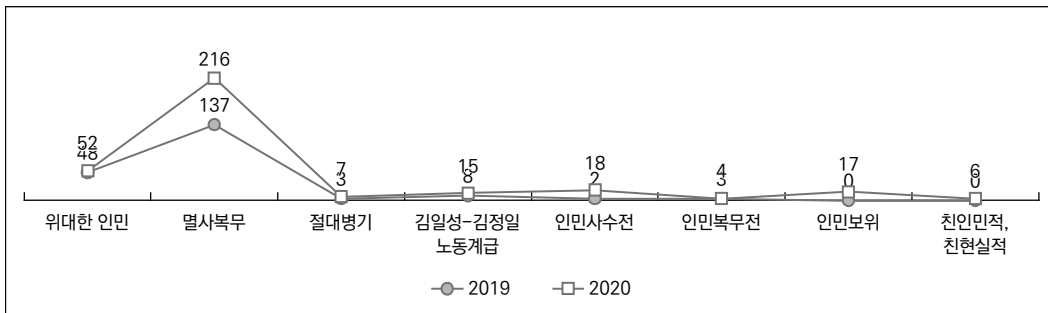
다. 사회부문: 인민, 문명, 청년, 군민, 자존

□ 인민

- ‘인민’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는 ‘위대한 인민’, ‘멸사복무’, ‘절대병기’, ‘김일성-김정일노동 계급’,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인민보위’, ‘친인민적·친현실적’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인민에 대한 복무’, ‘보위정신’이 ‘친인민적, 친현실적’이라는 새로운 전략용어의 등장으로 종합화
- ‘렬사복무’에 대한 언급은 ‘위대한 인민’, ‘김일성-김정일노동계급’,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인민보위’와 함께 급속하게 증가
-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과 정치, 노선에 따른 ‘인민’ 중심의 철학으로, 외견상으로 볼 때 수령중심의 체제에서 인민중심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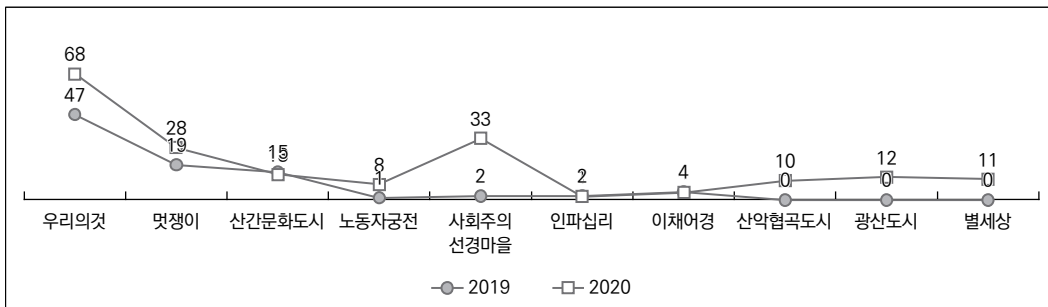
〈그래프 III-7〉 ‘인민’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 문명

- ‘문명’은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함께 등장한 키워드로 초기 문화예술부분에서 특별히 강조되었으나 점차 경제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강조되고 있음.
- ‘문명’과 관련된 용어로는 ‘우리의 것’, ‘멋쟁이’, ‘산간문화도시’, ‘노동자궁전·노동자호텔’, ‘사회주의선경마을’, ‘인파십리’, ‘이채어경’ 등 다양한 분야·형태로 등장

〈그래프 III-8〉 ‘문명’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 ‘우리의 것’이나 ‘멋쟁이’, ‘사회주의선경마을’은 김정은 정권에서 등장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
- 특히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을 강조하는 김정은 체제에서 ‘사회주의선경 마을’이나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와 같은 용어들은 사회주의문명을 강조하는 전략용어로 2020년에 보다 강조
- ‘이채어경’은 2015년부터 수산 및 양어사업발전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경제발전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새롭게 언급된 용어
- ‘인파십리’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건설함으로써 명사십리가 ‘인파십리’로 변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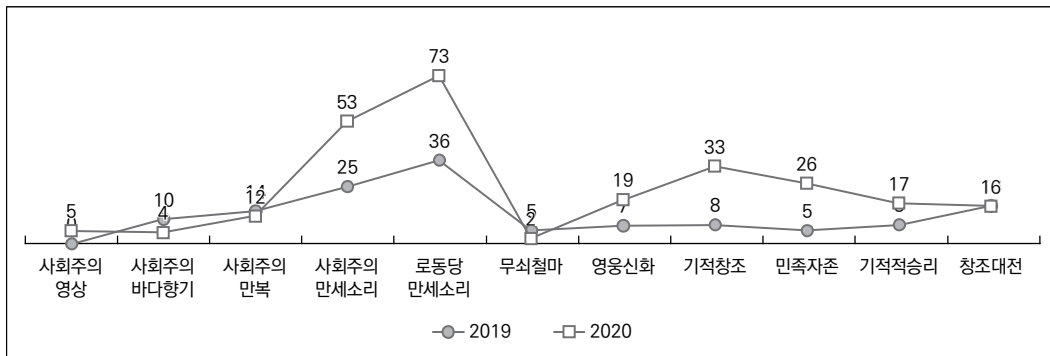
#### □ 청년·군민

- ‘청년’과 관련된 핵심용어는 ‘청년강국’에 이어 ‘청년중시’, ‘청춘대기념비’, ‘익측부대’와 같은 용어들임.
  - ‘청년중시’와 ‘청춘대기념비’, ‘익측부대’와 같은 용어들은 초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류경원, 과학기술전당, 평양국제축구학교,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민들레학습장공장, 순천린비료공장건설 등에서 위훈을 떨친 속도전청년돌격 대원들에 대한 소개로 등장
  - 그러나 ‘청년’에 대한 언급이 2017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년중시’에 대한 의미는 북한사회변화에 따른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의미로 보다 많이 언급
- ‘군민’과 관련된 용어는 ‘군민총돌격전’, ‘군민협동작전’과 같이 경제건설에서 군민협동, 군민대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언급
  - 특히 ‘군민총돌격전’은 여명거리건설이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 태풍피해복구 사업과 같이 국가의 주요 건설현장들에서 호소적 의미로 사용
  - ‘군민협동작전’은 ‘강원도정신’과 함께 원산군민발전소건설 성과와 사례들의 확산기조로 보다 많이 활용, 즉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군민일심동체의 필요성 강조

□ 자존

- ‘자존’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승리를 특징짓는 용어들로 김정은 정권의 자긍심을 강조
  -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는 ‘사회주의만세소리’와 ‘로동당만세소리’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두 배, 세 배로 증가
  - ‘사회주의영상’은 2019년에 등장한 용어로 사회주의우월성 상징으로서 보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sup>81)</sup> 이는 전국 도 단위의 보건용산소공장 건설에 이어 평양종합병원건설, 아동치과병원건설 등을 통해 보건사업 발전을 강조하는 전략용어
  - ‘무쇠철마’는 사회주의수호전의 무쇠철마로 경제건설에서의 기적과 창조를 강조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기적창조, 영웅신화, 민족자존과 같은 용어들의 중요도가 증가, 이는 『노동신문』과 정반대의 결과

〈그래프 III-9〉 ‘자존’과 관련된 주요 전략·정책용어



라. 군사·통일부문: 군사, 민족, 적대, 평화, 화해

□ 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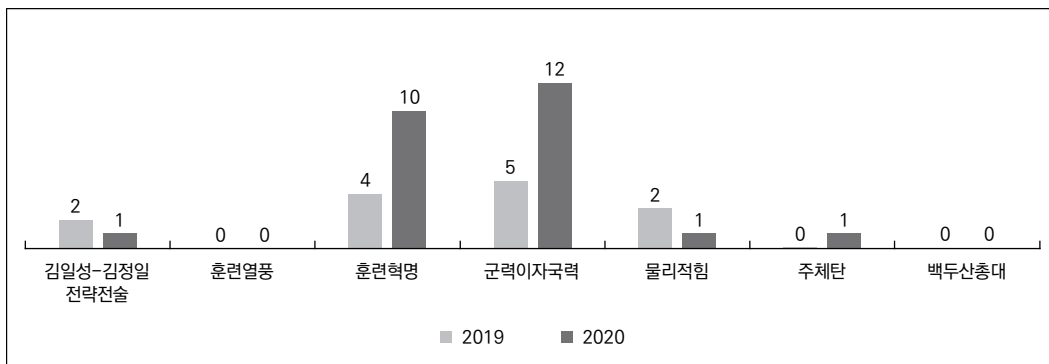
- ‘군사’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는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 ‘훈련열풍’, ‘훈련혁명’, ‘군력이자국력’, ‘물리적힘’, ‘주체탄’, ‘백두산총대’와 같이 강성전략에 따른 용어들임.

81) “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이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의 상징입니다 - 김정은의 명언해설,” 『우리민족끼리』, 2019.9.19.



-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이나 ‘물리적힘’, ‘백두산총대’와 같은 전략용어들은 2019년 이후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주체탄’도 2016년 등장 당시에는 전략무기개발에 사용되었던 것이 2020년에 들어 ‘인민’을 강조하는 의미로 대체 적용
- ‘훈련열풍’도 2020년에는 ‘훈련혁명’으로 대체하기 시작

〈그래프 III-10〉 ‘군사’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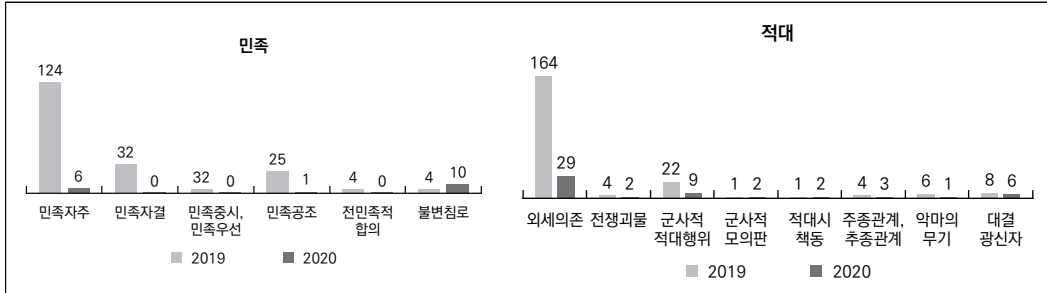


□ 통일: 민족, 적대, 평화, 화해

- ‘민족’과 관련된 전략용어는 ‘민족자주’, ‘민족자결’, ‘민족중시·민족우선’, ‘민족공조’, ‘전민족적 합의’, ‘불변침로’와 같은 용어들임.
  - 전반적으로 2019년에 ‘민족자주’, ‘민족자결’, ‘민족공조’와 같이 민족과 관련된 전략용어들을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변영·통일을 위한 전략적노선 관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언급
  - ‘불변침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로 향한 우리민족의 불변침로’라는 의미에서 많이 언급되었으나,<sup>82)</sup> 2020년에는 ‘자력갱생’과 ‘백두의 행군길’이 주체혁명위업의 불변침로임을 언급
  - ‘민족자주’에 대한 언급도 2020년에는 대폭 줄어들고 ‘불변침로’에 대한 언급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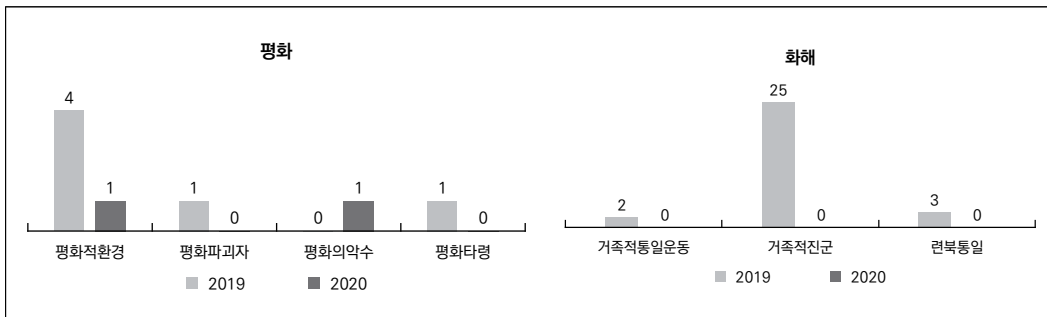
82)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조국통일로 향한 우리 민족의 불변침로이다,” 『우리민족끼리』, 2019.7.4.

〈그래프 III-11〉 ‘민족·적대’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 ‘적대’와 관련하여 핵심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외세의존’으로, 그 뒤를 ‘군사적적대행위’가 차지하고 있음.
  - ‘적대’와 관련된 용어들의 언급도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대폭 감소
- ‘평화’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로는 ‘평화적환경’, ‘평화파괴자’, ‘평화의 악수’, ‘평화타령’과 같은 용어들이 선언적 의미로 사용됨.
  - 2019년에는 남북합의서이행을 통한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촉구·반발의 의미로 동 용어들이 언급되었으나, 2020년에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
  - 2020년에는 주로 보수당이나 보수 세력들에 대한 비판기사들이나 한국의 언론 및 민간단체활동을 소개·평론하는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
  - 이 때문에 평화적환경이나 통일, 화해를 강조하는 용어들(거족적통일운동, 거족적진군, 련북통일 등)과 같은 용어들은 2020년 기사들에서 소멸

〈그래프 III-12〉 ‘평화·화해’와 관련된 전략·정책용어



### 3. 소결

- 전체적으로 2020년 ‘적대관계’에 있어『우리민족끼리』에서는 여전히 강경모드를 어느 정도 유지하나,『노동신문』에서는 다소 소극적 태도
- ‘적대’와 관련한 전략·정책용어인 ‘전쟁괴물’, ‘군사적적대행위’, ‘군사적모의판’, ‘주종관계·추종관계’, ‘악마의 무기’와 같은 용어들도 『우리민족끼리』에 등장하였으나, 『노동신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음.
  - 『우리민족끼리』에서도 국내정치현안이나 한국의 언론보도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남북관계의 비난은 2020년 하반기로 가면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경향
- ‘민족’, ‘평화’, ‘화해’, ‘통일’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은 2019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서 크게 자제하는 경향
  - 『우리민족끼리』에서도 ‘거족적통일운동’, ‘자주적결단’, ‘거족적진군’ 등과 같이 통일과 관련된 용어들과 ‘평화파괴자’, ‘평화타령’과 같이 평화와 관련된 비난용어들이 언급되지 않음.
  - 2020년 『노동신문』에서도 ‘평화적환경’에 대한 약간의 언급을 제외하고 일체 언급하지 않음(〈부록1〉 참조).
- 2020년 『우리민족끼리』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략·정책용어는 ‘백두산정신’, ‘정면돌파전’, ‘산악협곡도시’, ‘광산도시’뿐임.
  - 반대로, 2020년 언급되지 않은 전략정책용어들은 주로 2018~2019년 남북·북미 정상 회담 이후 새로 등장했거나 강조됐던 10여 개의 군사·통일부문의 용어들임.
- 2020년부터 『우리민족끼리』에서 국내정책, 변화와 관련된 소식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2019년에 비해 국내정책에 크게 치중하는 편임.
-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정면돌파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부문 세부 전략·정책용어들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

- 2019~2020년 전략정책용어들의 빈도수 증감추이를 비교할 때, 거시정책과 미시정책 사이에서 『노동신문』과 다소 반대되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으로 가면서 『우리민족끼리』에서는 ‘청년강국’, ‘강원도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 등에 대한 빈도수가 높아지고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빈도수가 다소 낮아지는 반면, 『노동신문』에서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냄.
  - 2020년 경제부문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에 비해 ‘자력부강’, ‘자력번영’, 그리고 자립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도 증가 추세를 보임. 대체로 2019년에는 거시적인 전략정책용어들의 증가추세였다면, 2020년에는 미시정책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이 증가한 경향임.
  - 사회부문에서도 2020년에 ‘인민사수전’, ‘인민보위’, ‘멸사복무’와 같이 ‘인민’을 매개로 한 전략정책용어들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용어들(‘사회주의만세소리’, ‘노동당만세소리’ 등)이 두 배, 세 배로 증가
  -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기적창조’, ‘영웅신화’, ‘민족자존’과 같은 용어들의 중요도가 증가, 이는 『노동신문』과 정반대의 결과
  - 군사부문에서도 ‘훈련열풍’이 2020년 들어 ‘훈련혁명’으로 대체
  
- 2020년 북한은 ‘정면돌파전’과 함께 경제회복을 위한 전략적 노선과 방침에 따라 국내정치 현안을 제외한 대남관계의 ‘신중모드’를 정면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음.

## IV 결론

홍민

- 김정은 집권 이후 전략·정책용어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로 선대와의 계승성을 강조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 가는 시기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7차 당대회와 핵무력 완성 선언을 정점으로 김정은 위원장만의 성과와 통치체제를 일차적으로 완성해 내는 시기
  - 2018년 이후 대남, 대미 관계를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정세 전환을 모색하다 전반적 교착기로 접어든 현재까지의 시기
  - 이들 각각의 시기에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북한 지도부는 다양한 전략·정책 용어를 등장시킴.
- 전략적·정책적 용어 사용의 전체적인 변곡점은 제7차 당대회와 2018년 정세전환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2012~2015) 다양한 전략적·정책적 강조 용어들이 등장했으나,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용어들이 정리, 새로운 용어 등장, 대체로 간소화되는 추이
  - ‘김일성-김정일주의’, ‘백두’ 등과 같이 집권 초기 선대와의 계승성, 정통성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용어들이 사용이 많았으나, 제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만의 통치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전략·정책용어화되는 경향
  -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8년 정세전환을 통해 핵무력 과시 단어들이 경제발전이나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용어들로 변화
-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의 전략적 위상을 강조하는 단어들이 전략·정책용어화
  - 2017년까지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속도와 위력, 핵보유국을 지칭하는 용법에 주력했다면, 2018년부터는 국제관계에서 국가 ‘지위’, ‘국력’ 변화 쪽으로 포괄적 의미로 전략·정책용어가 변용
  - 2017년까지 핵능력 과시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태도에서 이후 핵무기를 통해 높아진 국가 위상을 드러내는 쪽으로 용법을 뚜렷하게 변화시킴.

〈표 IV-1〉 전략·정책용어로 본 김정은 시대의 변천

정권 수립기				전략적 과도기			전략적 도전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	백두산대국/사회주의문명국/체육강국			청년대국/사회주의문명국/백두산강국			전략국가 청년강국/인재강국		
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김정일애국주의/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신념	공격정신/사회주의문명국/백두산강국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원도 정신	강원도정신/백두칼바람정신		백두산 정신	
시대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전성기			전성기/만리마시대	만리마시대/전성기/대변영기	전성기/만리마시대/대변영기	만리마시대/대변영기	격변기/전성기(총련사업)	
자력	자력자강/변영의 보검			자강력 제일주의/자력자강	자력자강/자강력제일주의		변영의보검/자력부강	자력변영/자력부강	
자립	국산화/애국사업			국산화/경험교환/절약형/명제품		절약형/경험교환	국산화/절약형/재자원화	재자원화/국산화/절약형	
속도	마식령속도	공격전		만리마속도/평양속도	만리마속도	공격전/만리마속도/평양속도/조선속도		정면돌파전	
과학	지식경제시대/최첨단돌파전/인재중시						전략적자원/지식경제시대	인재중시/전략적자원	
인민	위대한 인민		열사복무/위대한 인민		열사복무/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			열사복무/인민보위/친인민적	
군사	백두산총대/훈련열풍/백두의훈련열풍				주체단(무기개발)/백두산총대/훈련열풍				주체단(인민)/훈련혁명
적대	대결광신자/외세의존		군사적 적대행위	외세의존/대결광신자	적대시책동/외세의존/대결		대결/적대시책동	외세의존	외세의존/적대시책동
민족 평화	민족자주		민족자주/민족공조, 평화적환경/평화파괴자				평화적환경/평화의약수		평화적환경

주: 글자크기는 빈도수에 따른 대표성을 반영한 것임.

- 독자적 이념의 철학적 체계화보다는 실용주의적 통치용어 사용 및 대중화에 초점
  - 주체사상, 선군사상, 총대철학 등 심오한 통치철학의 체계화에 주력한 김정일 시대와 달리 인민, 국가, 과학, 청년, 강국, 백두산, 자력갱생, 정면돌파 등과 같은 조성된 정세에 즉답적으로 대응하는 실용주의적 통치용어를 선호
  - 다양한 용어들의 명멸 속에서도 초기부터 강조한 ‘인민’ 관련 용어를 2016년 이후부터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수렴하면서 체계화
  - 조성된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여 내부적 내핍 극복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력갱생’을 전략적 지침을 삼는 등 실용적 용어 사용
  
- 김정은 시대의 실용적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하며 사상적 지위로 격상시켜 체계화
  - 2015년 당 창건 70주년,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거치며 김정은 시대의 사상으로 체계화, ‘정치이념’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사업 및 국가사업 전반의 통치 구호로 전면화
  - 2020년 당중앙위 전원회의, 당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 등을 거쳐 ‘이념, 원칙, 방법’으로 체계화 시도
  - 2020년 사용 빈도를 늘리기 시작 2021년 제8차 당대회 등을 거치며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과 정치’로 전면화
  - 전통적인 ‘수령-인민’ 사이의 수혜적 관계를 김정은 시대 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재생산하는 의미
  
- 인격적 국가 호명에서 국가성을 그 자체를 강조하는 국가주의 용어 강조 추세
  - 김일성·김정일조선, 김일성민족, 김정일 조선 등과 같이 선대 지도자의 인격성에 의존하는 국가 호명에서 점차 ‘국가제일주의’, ‘지식경제강국’, ‘강국’ 등 국가성 자체를 강조하는 용어를 선호
  - 2017년 11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노동신문을 통해 등장한 이후 ‘국가’ 용어를 전면화, ‘민족’을 줄이고 ‘국가’ 사용을 늘림.
  - 2017~2018년 ‘김일성민족’이 일정한 사용 빈도를 보이는 완충기를 지나, 2019년 사설부터는 ‘김일성민족’ 용어는 소멸하고 상대적으로 ‘국가제일주의’가 부상

- 초기 강조했던 ‘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 ‘전략국가’ 등은 조성된 정세에 조응하여 점차 빈도수가 줄었지만, ‘국가’ 자체에 대한 강조는 유지
  - 2016년 당대회 이후 국가의 강대성을 표현하는 용어와 서사구조의 강화,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을 기점으로 ‘사회주의강국’ 담론 증가
- ‘핵’과 관련된 용어의 용법과 파생어 확대의 추이에서 현격한 변화 발견
- 2016~2018년 핵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핵’과 관련 용어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비핵화 담론으로 축소, 2020년 이후 다시 핵무력 고도화 담론이 재활성화되는 추세
  - ‘핵’ 관련 용어는 전체 전략·정책용어 중 사용 빈도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용어로, 이 용어가 대외적으로 갖는 파급력을 고려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파생어 확대 다변화에서도 ‘핵’ 관련 용어가 가장 활발했는데, ‘핵강국’, ‘군사대국’, ‘핵대국’, ‘핵무력 고도화’, ‘핵공격무력’, ‘핵억제력’, ‘자위적 국방력’, ‘핵운반수단’, ‘초강력열핵무기’, ‘핵타격사정권’, ‘전략무기’, ‘전략군’, ‘국가핵무력’, ‘전쟁억제력’ 등이 있음.
  - 2019년 이후 ‘핵’ 관련 용법은 ‘평화’ 용어와 수사적 관계를 맺으며 의미화하는 것을 강화, 소위 핵무기 고도화가 평화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담론 강화
  - 핵무기 지속 개발과 장기적 보유 의사를 ‘평화’ 담론과 결부하여 정당화하는 기조가 2020년 이후 강화되는 추세
  - 관련하여 ‘민족’, ‘평화’, ‘화해’, ‘통일’과 관련된 전략·정책용어들은 2019년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민족끼리』나 『노동신문』에서 크게 자제하는 경향
- 적극적인 외향적 정책 비전에서 내부 결속 중심의 전략·정책용어로의 변화
- 초기 특정 정책 비전을 담은 ‘강국’ 표현에서 2019년 이후 내핍 극복과 인내를 요구하는 ‘자력’ 구호와 담론으로 변화
  - 집권 초기 강조했던 지식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 체육강국, 백두산대국 등 국가운영의 포부가 담긴 정책 비전 용어가 급격히 줄고 2019년 이후 ‘자력’ 관련 용어들이 강조되는 추이



- 2017년 전까지는 핵무기 고도화 과정에서 대외적 압박을 내부적으로 견뎌내는 차원에서 ‘자력’ 관련 용어가 강조되다, 2019년 이후 북미협상 교착, 향후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내부결속과 내부 자원 동원 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변화
  - 2020년에는 ‘정면돌파전’, 2021년에는 ‘자력갱생전략’ 등 보다 높은 수위에서 ‘자력’ 담론이 강조
- ‘백두’ 연관어, 김정은 정통성·우상화 및 내부결속 용어로 전략·정책용어화
- ‘백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김정일의 고향을 상징하며 김정은으로의 혁명전통 계승성 및 지도자 권위를 상징하는 전략·정책용어
  -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말 삼지연을 방문한 이후 매해 백두산을 방문하고 삼지연시 개발에 집중하면서 관련 용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옴.
  - ‘백두’ 연관어는 2014~2016년 집중 사용하다,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은 연관어의 새로운 확장보다는 특정 ‘백두’ 관련 용어로 집중하거나 의례적으로 활용한 측면
  - 2020년 ‘백두산정신’이라는 새로운 전략·정책용어의 등장으로 ‘백두’ 연관어가 증가했는데, ‘자력갱생, 간고분투, 혁명적 낙관주의’ 등 어려운 환경의 극복에 초점을 맞춰 ‘정면돌파전’과 같은 정세 대응 성격으로 의미 확장
- 당 중심 통치체제의 정비와 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전략·정책용어 증가 현상
- 김정은 시대의 전략·정책용어는 대체로 당대회를 기점으로 증가하여 다양하게 파생어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임.
  - 집권 초기에는 선대 지도자들과의 계승성에 비중을 두었다면, 제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본격 제시, 제8차 당대회는 조성된 대내외 정세의 어려움에 응전하는 전략·정책용어 생성에 주력
  -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했던 전략·정책용어의 대부분은 2017~201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회 기점으로 쏟아낸 용어들의 현실적 파급효과와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정리 및 간소화

- 전략·정책용어들은 당대회를 기점으로 일군의 전략·정책용어군을 형성하다가 특정 몇 개의 용어로 정리·수렴되었으며, 2021년 제8차 당대회 전후 다시 전략·정책용어군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임.
  - 이런 경향은 당대회에서 제시된 비전들을 조성된 정세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하면서 통치상에 지속적으로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김정은 공개활동 증감폭에 따른 전략·정책용어의 수적 감소 현상
- 김정은의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지도자의 지적사항, 과업 제시 등이 이후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전략·정책용어화되는 경향이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2012~2015년 사이 매년 150~240여 회 수준의 공개활동을 하다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최근 2~3년 사이 70~90여 회 수준으로 급감
  - 공개활동 감소에 따라 현지지도를 통해 나오는 문제 지적이나 과업 제시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 전략·정책용어가 등장할 수 있는 발화 기회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전체적으로 공개활동의 횟수와 현장 방문 횟수가 줄고 당 회의를 통한 지적, 결정이 이를 대체하고 있는데, 당 회의가 적지만 전략·정책 용어의 생성 지점으로 부각
-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의 대남·대외 관련 표현은 일정한 표현과 시차에서 차이를 보임.
- 대남 및 대외 관련 적대적 표현을 담은 용어들로 전쟁괴물, 군사적 적대행위, 군사적 모의판, 주종관계·추종관계, 악마의 무기 등이 『우리민족끼리』에 정세에 따라 강하게 등장하는 반면, 『노동신문』에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우회적인 기사로 보도
  - 이런 표현 차이와 시차성은 대외 공개만 하는 매체와 대내외 모두 공개되는 매체의 차이를 반영, 정세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을 양 매체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체적으로 집권 초기 권력을 장악하고 정통성을 내외에 과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정책용어를 등장시켰다면, 2018년 이후 대외적으로 조성된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실용적으로 내부 결속에 방점을 찍는 현상유지적 전략·정책용어가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부록**

〈부록 1〉 2019-2020년 『우리민족끼리』와 『노동신문』 교차비교표

분야	용어	2019		2020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정치	국가	인재강국	×	○	×	○
	신념	평양정신	×	○	×	○
	시대	대변영기	○	○	○	×
		만리마시대	×	○	×	○
경제	자산	3대전략자산	○	○	×	○
	자립	다수확동장훈	×	○	○	○
		실용화, 종합화	×	○	○	○
		경험교환운동	×	○	○	○
		선편리성, 선미학성	×	○	○	○
		기업전략	×	○	○	○
		속도	조선속도	×	○	○
	시대	평양속도	×	○	○	○
		지식경제시대	○	○	○	×
	과학	인재농사	×	○	○	○
		인재중시	×	○	○	○
		애국과학자	○	○	×	○
	사회	인민	인민보위	×	○	○
군민		친인민적, 친현실적	×	○	○	○
		군민총동격전	○	○	○	×
군사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	○	○	○	×
	훈련열풍	×	○	×	○	
	주체탄	×	○	○	○	
	백두산총대	×	○	×	○	
민족	민족자결	○	○	×	×	
	민족중시, 민족우선	○	○	×	×	
	민족공조	○	○	○	×	
	전민족적합의	○	○	×	×	
군사/ 통일	적대	전쟁괴물	○	○	○	×
		군사적적대행위	○	○	○	×
		군사적모의판	○	○	○	×
		주종관계, 추종관계	○	○	○	×
		악마의무기	○	×	○	×
		대결광신자	○	×	○	○
	평화	평화적환경	○	○	○	○
		평화파괴자	○	○	×	×
		평화의악수	×	○	○	×
		평화타령	○	×	×	×
화해	거족적통일운동	○	○	×	×	
	거족적진군	○	○	×	○	
	련북통일	○	○	×	×	
	자주적결단	×	○	×	×	

## 참고문헌

- 채희원·원충국. 『김정은장군과 시대어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17.
- 김우영·안경모.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통제 유형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1권 3호, 2018.
-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 2014.
- \_\_\_\_\_.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집 3호, 2013.
- 배영애. “김정은 현지도의 특성 연구.” 『통일전략』. 제15권 4호, 2015.
- 이승열.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비교를 통한 김정은 통치리더십 분석.” NARS 현안보고서. 제 259호, 2015.6.25.
- 홍민. “김정은 위원장 최근 현지도 행보 속 정책 코드 읽기.”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36. 2018.8.29.
- 『노동신문』.
-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KINU Insight 21-02

---

발 행 일 2021년 5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편 집 인 북한연구실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

© 통일연구원, 2021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KINU Insight